

碩士學位論文

朝鮮時代 濟州島 關防施設의 研究

－ 邑城·鎮城과 烽燧·煙臺를 중심으로 －

指導教授 高 昌 錫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歷史教育專攻

金 明 徹

2000年 8月

朝鮮時代 濟州島 關防施設의 研究

- 邑城·鎮城과 烽燧·煙臺를 중심으로 -

指導教授 高 昌 錫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0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歷史教育專攻



提出者 金 明 徹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金明徹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0年 7月 日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朝鮮時代 濟州島 關防施設의 研究

- 邑城, 鎭城과 烽燧, 煙臺를 중심으로 -

金 明 徹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歷史敎育專攻

指導敎授 高 昌 錫

關防이란 要害地에 성곽, 참호 등을 축조하고 군사를 배치하여 외침에 대비하는 것을 말한다. 즉 관방시설은 외침으로부터 영토를 보존하고, 백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축조된다. 우리 나라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인 요충지이고, 해양과 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전초기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많은 외침을 받았다. 특히 고려말부터 조선초에 이르면서 남부의 연해지역에는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관방시설이 축조되었다. 제주도는 해안 방어의 요충지로 지적됨에 따라 왜구 침입을 방어하기 위하여 읍성·진성, 수전소, 봉수·연대가 축조되는 등 관방시설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었다.

본고의 목적은 제주도 관방시설의 축조와 정비과정은 물론 현실태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즉 문헌기록과 현지 조사를 통하여 관방시설의 변천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제주도 관방사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코자 함이 주된 목적이지만, 이와 더불어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낡아 훼손되는 관방시설을 현재의 시점에서 정리코자 하였다.

제주도 관방시설이 언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이전에 축조된 시설에 대하여는 문헌기록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축조된 3읍성·9진성과 25봉수·38연대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여 우선 문헌기록을 통하여 축조과정과 정비내용 그리고 시설내역을 검토하였고,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현재 남아 있는 상태를 기술하였다.

관방시설의 핵심을 이루는 성곽에는 읍성과 진성이 있다. 읍성은 군사적인 기능과 행정적인 기능이 복합되어 축조된 성곽으로, 제주도가 3읍으로 분리된 15세기 초에 叵과 縣의 소재지에 축조되거나 정비되었다. 그리고 진성은 읍성과는 달리 군사적인 목적으로 축조된 성곽이므로 해안의 요해지에 15세기부터 16세기까지 축조된 후 17세기에는 부분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졌다.

봉수와 연대는 전통시대에 횃불과 연기로 군사적인 소식을 전했던 통신시설이었다. 제주도내의 기생화산(오름)에 설치되어 멀리서 다가오는 적의 동태를 살피는 봉수는 고려시대부터 사용되었으나, 체계적인 축조와 정비는 15세기에 이루어졌다. 이와는 달리 해안지대 구릉에 위치하여 가까운 곳에서 적의 동태를 자세히 살피는 연대는 18세기에 이르러 축조되어 갔다. 봉수와 연대는 변경의 급한 소식을 서로 상응하는 곳에 연락하여 중앙의 경봉수에 해당하는 사라봉수를 통하여 제주목에 알리는 기능을 하였다.

현재 관방시설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인 요인 등으로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 부분적으로 남아 있거나, 그 형태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곳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우리 선조가 남긴 관방시설을 복원, 정비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 본 논문은 2000년 8월에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석사학위 논문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목 차

초 록

I. 서 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방법 및 범위	2	
1) 연구 방법	2	
2) 연구 범위	3	
II. 제주 관방시설의 구축	5	
1. 조선시대 이전의 관방시설	5	
1) 탐라국시대 관방시설	5	
2) 고려시대 관방시설	6	
2. 조선시대 관방시설	8	
III. 제주 관방시설의 현황	12	
1. 읍 성	12	
1) 제주읍성	13	
2) 정의읍성	20	
3) 대정읍성	25	
2. 진 성	29	
1) 화북진성 ----- 29	2) 조천진성 -----32	3) 별방진성 ---- 35
4) 애월진성 ----- 38	5) 명월진성 -----41	6) 수산진성 ---- 45
7) 서귀진성 ----- 48	8) 모슬진성 -----49	9) 차귀진성 ---- 51

3. 봉수와 연대.....	54
1) 봉수와 연대 축조.....	56
2) 봉수와 연대 현황.....	59
IV. 관방시설의 분석과 특징	65
1. 읍성과 진성.....	65
1) 축조시기	65
2) 성곽의 규모와 문헌에 사용한 용척.....	66
3) 입지여건	69
4) 유 형	71
5) 구 조	73
2. 봉수와 연대.....	79
1) 봉수와 연대의 시기별 변천	79
2) 봉수와 연대의 특징.....	79
V. 결 론.....	82
참고문헌.....	87
<ABSTRACT>	
부록 1. 읍성관련 문헌자료	93
2. 진성관련 문헌자료	96
3. 봉수관련 문헌자료	105
4. 연대관련 문헌자료	116



〈表 目 次〉

〈표 3-1〉 제주읍성의 규모와 시설현황	16
〈표 3-2〉 정의읍성의 규모와 시설현황	22
〈표 3-3〉 대정읍성의 규모와 시설현황	26
〈표 3-4〉 화북진성의 규모와 시설현황	30
〈표 3-5〉 조천진성의 규모와 시설현황	33
〈표 3-6〉 별방진성의 규모와 시설현황	36
〈표 3-7〉 애월진성의 규모와 시설현황	39
〈표 3-8〉 명월진성의 규모와 시설현황	42
〈표 3-9〉 수산진성의 규모와 시설현황	46
〈표 3-10〉 서귀진성의 규모와 시설현황	48
〈표 3-11〉 모슬진성의 규모와 시설현황	50
〈표 3-12〉 차귀진성의 규모와 시설현황	52
〈표 3-13〉 봉수와 연대의 변천과정	57
〈표 3-14〉 봉수대의 현황과 형태	60
〈표 3-15〉 연대의 현황과 형태	62
〈표 4-1〉 읍성과 진성의 축조	65
〈표 4-2〉 읍성과 진성의 규모	67
〈표 4-3〉 읍성과 진성의 성문현황	74
〈표 4-4〉 읍성과 진성의 옹성과 치성현황	76
〈표 4-5〉 봉수와 연대의 설치현황	79
〈표 5-1〉 관방시설의 시기별 변천현황	82

〈圖 面 目 次〉

제주읍성 추정도	19
정의읍성 지적도	24
대정읍성 지적도	28
화북진성 지적도	31
조천진성 지적도	34
별방진성 지적도	37
애월진성 지적도	40
명월진성 지적도	44
수산진성 지적도	47
차귀진성 지적도	53
제주의 관방시설의 위치도	84

I. 서론

1. 연구 목적

關防은 본래 ‘험한 시설을 하여 방어를 튼튼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를테면 도로가 모인 곳, 험한 고개 마루의 요해지에 城을 쌓고 군대를 배치하여 외침에 대비하는 따위가 모두 이에 속한다.” 우리 나라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고, 침략의 전초기지로써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잦은 외침을 받았다. 따라서 시대에 따라 많은 關防 시설을 축조·정비하였다. 특히 고려말부터 조선초기에는 북방의 野人과 남방의 倭寇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관방시설을 대대적으로 구축·정비하였다.

관방 시설에는 城郭과 烽燧·煙臺 등의 지상 시설물과 溝池·塹壕 등의 지하 시설물이 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심을 이룬 것은 성곽이다.²⁾

성곽은 지배자의 거주지에 축조함으로써 이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재산·영토를 보존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이 성곽의 축조를 더욱 중요하게 여겨 도읍지에 궁성을 쌓고 나성을 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해처에는 산성과 보루를 축조하여 도성을 보호하였다.³⁾

예로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전략상 성곽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조선 초에 梁誠之는 “우리 동방은 성곽의 나라이다.”⁴⁾라고 한 바도 있다. 뿐만 아니라 柳成龍은 胡人·倭人·조선의 군사의 전술적 특징을 비교하면서 “옛적에 호인들의 長技는 말을 잘타는 것에 있고, 왜인의 장기는 짧은 무기(칼)를 잘 쓰고, 우리 나라는 성 위에서 활을 쏘아 적을 제압함에 있다.”⁵⁾라 하였다. 이와 같은 연유로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많은 성곽 시설을 축조하였고, 지금도 그 시설의 일부가 남아 있다. 성곽 시설은 당대의 방어 체제의 핵심을 이루는 시설물로서 군사제도와 더불어 군제사 연구의 중심 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주도의 군제사 연구에 기초가 되는 관방시설 중에 읍성·진성과 봉수·연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즉, 제주도의 관방시설의 축조 시기, 규모, 시설내

1) 『萬機要覽』軍政編 關防條,

設險固圉 是關防 凡道路控會 嶺隘繁要 築城置兵 以備外侮 皆是物也.

2) 車勇杰(1983), 「朝鮮前期 關防施設의 整備過程」, 『한국사론』 7, 국사편찬위원회, pp.83~84.

3) 方相鉉(1982), 「朝鮮前期城郭機能考」, 『사학지』16, 단국대사학회, p. 651.

4) 『世宗實錄』卷3, 世宗 2年 3月 丁酉條 : 吾東方城郭之國也.

5) 『萬機要覽』關防總論,

古者 虜之長技 在馬足 倭之長技 在短兵 我在城上 以弓矢制之而有餘矣.

역 뿐만 아니라 변천과정에 대하여 문헌에 기록된 내용을 발췌하여 이를 검토·정리하였다.

특히 읍성과 진성은 지적도와 현장 조사를 통하여 규모와 시설 내역을 분석하고 그 결과로 얻어진 자료를 토대로 축조방법과 성곽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1) 연구 방법

지금까지 제주도의 관방 시설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문헌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史的 概觀, 축성의 동기와 그 면모를 기술하고 있다.⁶⁾ 뿐만 아니라 한 성곽에 대한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다.⁷⁾ 하지만 제주도의 성곽은 물론 관방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가 미미한 편이다.

최근에 제주도는 3읍성과 9진성, 25봉수와 38연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관방시설에 대한 문헌 내용과 현재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⁸⁾ 19세기 제주 지방의 군사제도와 제주읍성에 대한 부분적이거나 연구도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⁹⁾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제주도의 관방 시설에 대하여 문헌기록과 간략한 현장 조사를 종합하여 정리해보자 한다.

본고에 인용하는 주요 문헌은

『朝鮮王朝實錄』¹⁰⁾

『新增東國輿地勝覽』¹¹⁾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6) 朴用厚(1962), 「歷史上에서 본 濟州島의 防衛」, 『제주도』 2.
---- (1975), 「濟州島의 城址 및 防衛施設」, 『제주도』 66.
金泰能(1964), 「濟州島內 諸城의 由來」, 『제주도』 15.
洪淳晚(1979), 「濟州主城考」, 『耽羅星主遺事』.
姜政弘(1981), 「城」, 제주신문 1~11 연재.
- 7) 濟州市·濟州大學校博物館 (1988), 『禾北浦口地表調査報告書』.
濟州市(1990), 『濟州城址 및 五賢壇 整備計劃(案)』.
姜彰彦(1991), 「濟州島의 環海長城 研究」, 『耽羅文化』 11호.
北濟州郡(1993), 『明月城 地表調査 報告書』.
---- (1993), 『別防線 地表調査 報告書』.
濟州道(1998), 『제주항파두리 항몽유적지』
- 8) 김봉욱·신석하(1996), 『濟州의 防禦遺跡』, 제주도.
- 9) 金祥玉(1997), 「朝鮮後期 濟州地方의 軍事制度」, 『19세기 濟州社會研究』, 一志社.
吳洙政(1997), 「19세기의 濟州邑城」, 『19세기 濟州社會 研究』, 一志社.
- 10) 『朝鮮王朝實錄』·『朝鮮王朝實錄中 耽羅錄』.
- 11) 『新增東國輿地勝覽』 영인본.

- 『南槎錄』¹²⁾
- 『耽羅志』¹³⁾
- 『知瀛錄』¹⁴⁾
- 『耽羅巡歷圖』¹⁵⁾
- 『耽羅防營總攬』¹⁶⁾
- 『濟州邑誌』¹⁷⁾
- 『濟州大靜旌義邑誌』¹⁸⁾
- 『耽羅誌草本』¹⁹⁾
- 『濟州郡邑誌』·『旌義郡邑誌』·『大靜郡邑誌』²⁰⁾
- 『耽羅紀年』²¹⁾

등이 주류를 이룬다. 물론 이 밖에도 다소의 문헌 자료를 인용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제주도의 관방 시설을 크게 조선시대 이전과 조선시대로 구분하여 통시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였고, 제3장에서는 제주도 관방 시설 중 읍성·진성과 봉수·연대의 축조와 변천과정을 서술하였다.

물론 문헌 자료를 주 자료로 활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읍성과 진성은 현재 실태에 대하여 기존 연구 자료와 부분적인 현장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성과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전통시대의 군사용 통신 시설인 봉수와 연대는 문헌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기존의 현지조사 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주도 관방 시설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제주의 관방 시설에 대한 시대별 축조·정비 상황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였다.

2) 연구 범위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연구의 범위를 정하였다. 첫째, 제주도의 관방 시설 중 조선시대에 축조·정비된 읍성과 진성, 그리고 봉수와 연대를 대상으로 삼았다.

-
- 12) 『南槎錄』 영인본.
 - 13) 『耽羅志』 영인본.
 - 14) 『知瀛錄』 영인본.
 - 15) 『耽羅巡歷圖』 영인본.
 - 16) 『耽羅防營總攬』 영인본.
 - 17) 『濟州邑誌』 영인본.
 - 18) 『濟州大靜旌義邑誌』 영인본.
 - 19) 『耽羅誌草本』 영인본.
 - 20) 『濟州郡邑誌』·『旌義郡邑誌』·『大靜郡邑誌』 영인본.
 - 21) 金錫翼(1918), 金啓淵譯(1976), 『耽羅紀年』, 제주도교육위원회.

탐라국시대와 고려시대에 축조된 관방시설은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제주 3읍성과 9진성 그리고 25봉수와 38연대를 연구대상으로 한 셈이다.

둘째, 제주 3읍성과 9진성, 25봉수와 38연대의 축조와 정비과정을 검토하였다. 제주도 관방체제의 연구에 있어서 군사제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지만, 본고에서는 제외하였다. 이는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우리 나라 여타 지역의 관방시설과 비교·검토가 필요하지만 제주도라는 한정된 공간적 범위 속에서 비교·분석하였다. 제주 관방시설과 여타 지역의 관방시설에 비교·검토하는 작업도 차후 과제로 남긴다.

끝으로 관방시설 연구는 문헌 기록과 병행하여 체계적인 현장 조사가 필수적이지만 간략한 지표조사 결과에 의지하여 기술함에 따라 연구의 한계가 있다. 필자는 제주의 관방시설에 대한 연구의 試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외에 미약한 부분은 후일에 보완하고자 한다.



II. 제주 관방시설의 구축

제주도의 관방 시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별 축조양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각 시대별 관방 시설의 축조와 정비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제주도 전체의 관방 시설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도의 역사를 시대 구분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²²⁾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제주 관방시설 축조의 분기점이 되는 고려말부터 조선 초까지를 중심으로 하여 그 이전을 조선시대 이전의 시기로, 그 이후를 조선시대로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조선시대 이전의 시기는 탐라국 시대와 고려시대로 구분하였다.

1. 조선시대 이전의 관방시설

1) 탐라국시대 관방시설

제주도에 관한 최초의 史書는 쑤나라 陳壽²³⁾의 『三國志』 「魏書 - 東夷傳」이다. 同書 韓條에, “섬 오랑캐(州胡)가 있는데 마한의 서해 중 큰 섬 위에 있다. 그 사람들은 키가 작고 몸이 작다.”²⁴⁾고 하고 있다. 위의 기록에는 나타난 ‘섬 오랑캐’는 제주도에 사는 제주인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이 기록이 제주에 관한 최초의 문헌기록이다.

이 시기에 관방 시설과 관련하여 『唐會要』에 “탐라는 신라의 武州 해상에 있다. 섬 위에는 산이 있고 주위는 모두 바다에 접하였는데, 북쪽으로 백제와는(배를 타고) 5일에 갈 만 한 거리이다. 그 왕의 성은 儒李이고 이름은 都羅인데, 城隍은 없고 다섯 부락으로 나누어 있다.”²⁵⁾고 되어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탐라에는 성황이 없다’라 하고 있다. 물론 ‘성황’의 의미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만²⁶⁾, 이 시기에 탐라국인 제주에는

22) 김동전(1999), 「濟州史 時代區分에 대한 一試案」,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제2차 학술세미나 (발표요지)에서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정리하면서 제주사 시대구분의 시안을 제시하였다.

23) 陳壽(233~297)는 西晉의 史學者로 처음 蜀에서 벼슬하였다가 蜀이 망하자 涪에서 벼슬하였다. 그가 편찬한 『三國志』는 『魏書』 30권, 『吳書』 20권, 『蜀書』 15권으로 되어 있고 魏書 중에 『東夷傳』은 탐라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24) 『三國志』 魏書 東夷傳條.

又有州胡 在馬韓之西海中大島上 其人差短小 言語不與韓同 皆髮頭如鮮卑 但衣羣 好養牛及猪 其衣有上無下 略如裸勢 乘船往來 市買中韓.

25) 『唐會要』 耽羅國條.

耽羅在 新羅武州海上 居山島上 周廻竝於海 北去百濟可五日行 其王姓儒李名都羅 無城隍 分作五部落.

26) 고창석(1995), 『耽羅國史料集』, 신아문화사, p.245에서 城隍의 의미에 대하여 “城을 지키기 위해 설치한 城 주위의 壘壕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하였다.

체계를 갖춘 성곽이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탐라국에 관한 부분적인 문헌 기록은 많이 있으나 관방 시설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다.²⁷⁾

최근에 발굴 조사한 바 있는 금성리 유적²⁸⁾과 삼양동 유적²⁹⁾에서는 마을의 경계석 혹은 환호와 유사한 石築시설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이 시설의 용도에 대한 성격 구명이 미흡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탐라국 시대의 관방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문헌 기록이나 시설물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연구는 후일로 미루고자 한다.

2) 고려시대 관방시설

고려시대는 군현제도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각 군현의 邑治가 있는 곳에는 본격적으로 읍성이 축조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읍성의 축조는 왜구 침입이 잦았던 고려말 조선초기에 이르러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제주도가 탐라국 체제에서 고려의 지방행정 단위로 편입된 것은 고려시대 숙종 10년(1105)의 일이다.³⁰⁾ 그러나 실제로는 고려시대 의종때 현령관을 탐라로 파견하면서부터 고려 조정은 직접적으로 탐라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바로 『高麗史』 「地理志」에 “숙종 10년에 毛羅를 고쳐 耽羅郡을 설치하였고, 의종 때에는 縣令官을 두었다.”³¹⁾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즉 고려 전기에 고려 조정에서는 탐라에 대하여, 自進通朝의 관계로 인해, 句當使를 파견하거나 武散階를 수여하는 등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탐라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 조정과 附庸關係를 맺게 되는 것은 외부의 정치적 영향보다는 탐라가 자율적으로 취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³²⁾

하지만 고려 후기에 오면서부터 제주는 왜선과 중국상선의 왕래가 빈번한 지정학적 요충지로 부각되었다.

김문경(2000), 「張保皋와 法華三寺」, 제2회 법화사지 학술대회 발표요지, p.24에서 '無城隍'을 성곽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27) 『隋書』百濟條.

平陳之歲 有一戰船 漂至海東 聘牟羅國. 이 기록에는 읍성이 聘牟羅國에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聘牟羅國이 어느 곳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8) 1997년도에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한 석축유적으로 발굴조사 보고서가 미발간 상태임.

29) 1997~1999년까지 제주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한 바, 동 유적지 내에서 석축유구가 발굴되었으나, 발굴조사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은 상태임.

30) 진영일(1996), 「高麗前期 耽羅國 研究」, 《耽羅文化》16, p. 169에서 동 시기는 고려가 지방관 파견을 위한 행정조직의 組織表上 또는 圖式的 計劃에 불과하다고 했다.

31) 『高麗史』地理志 全羅道 耽羅縣條.
肅宗十年 改毛羅爲耽羅郡 毅宗時爲縣令官.

32) 夫榮株(1992), 「고려시대 '탐라군' 설치에 관한 小考」, 『제주향토무크 : 제주·제주인』 2, 濟州歷史研究會.

『高麗史』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주는 해외의 巨鎮이며 송나라 상인들과 왜인들이 일정한 때가 없이 수시로 왕래하는 곳이니 특별히 방호별감을 파견하여 비상사태에 대처하여야 한다."³³⁾ 하는 곳이었다. 이는 바로 왜선과 중국 상선들이 빈번하게 제주 근해를 왕래했다는 단적인 예이다. 이와 유사한 내용이 17세기 초반의 자료인 『南槎錄』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³⁴⁾ 당시 제주도가 일본과 송의 해상 교통로의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두 나라 사이를 오가는 선박들의 중도 기항지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태풍을 만난 선박들의 표착지로 사용되었던 것이다.³⁵⁾

이처럼 제주에는 중국 상선(宋나라 商船)과 왜구가 빈번하게 왕래하기 때문에 고려 조정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고려 원종 원년(1260) 9월에 濟州副使·判禮賓省事 羅得璜에게 방호사를 겸하게 하였다.³⁶⁾ 중국사람이나 왜구들이 제주에 표류했을 경우에는 탐라인이 박해도 있었지만,³⁷⁾ 이들의 해적이 되어 살인·방화·약탈을 자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특히 고려말부터 조선초기까지 제주에는 왜구 침입이 잦았다.³⁸⁾ 더구나 고려시대 우왕때는 1·2차에 걸쳐 600여척·200여척의 대규모 왜구의 船團이 제주도 전역을 포위했다가 격퇴 당하는 사례도 있었다.³⁹⁾ 이렇게 왜구의 침입이 있으면, 탐라민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의든 타의든 자연스럽게 관방시설을 축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제주도에 남아 있는 고려시대의 관방시설은 삼별초와 관련된 것이다. 『高麗史』에 "적(三別抄)은 이미 제주도에 들어가 내·외성을 쌓았는데, 그 험고함을 믿고 날로 창궐하여 항상 나와서 노략질을 하니 연해 지방이 숙연하였다."⁴⁰⁾고 한 것처럼 삼별초는 제주

- 33) 『高麗史』, 元宗 元年 2月 庚子, 以濟州副使判禮賓省事羅得璜 兼防護使 朝議 濟州海外巨鎮 宋商島倭 無時往來 宜特遣防護別監 以備非常(後略).
- 34) 金尙憲, 『南槎錄』, 自楸子至濟州 火脫居半 西自兩火脫(中略) 三四月間清明日 登漢拏山 則南望水宗之外 隱隱見帆 檣 如千竿萬簇 接舳而過者 歲歲如此 今則 有登望者亦無 雖或時時登望而罕有見者 或慮此乃倭寇 曾是往來中原之路也. 즉 제주와 추자도 사이가 왜선이 중국을 왕래하는 통로였음을 알 수 있다.
- 35) 고창석, 「濟州道史誌上講座」11, 『관광제주』, p100.
- 36) 『高麗史』, 元宗 元年 二月 庚子條.
- 37) 濟州道(1993), 『濟州道誌』, 1권, pp.725~726.
- 38) 제주도교육연구원(1996), 『郷土史教育資料』, pp.111~112, pp.167~168에서 고려말 忠肅王 3년(1316)부터 朝鮮時代 明宗 11년(1556)까지 240여년 동안 30여 회에 걸쳐 왜구가 침입했다. 침입한 횟수는 고려시대에 7회, 조선시대에 23회에 대한 기록이 있다.
- 39) 金錫翼(1918), 『耽羅紀年』, 卷1, 禍王 二年 夏五月 萬戶金仲光 斬逆賊哈赤姜伯顏等 十三人 配妻子于光羅二州 是歲 倭賊六百餘艘 周回而入 星主高臣傑 盡心禦之 爲矢所中 奮氣益壯 終擊却之 朝廷嘉之 特拜戶曹典書 禍王 三年 夏 倭賊二百餘艘 入寇全羅水軍都萬戶鄭龍等 率兵船二艘 訶之獲賊一艘 盡殺之.
- 40) 『高麗史』, 元宗 13년 6월 乙卯條.

에 들어와 성곽을 험고하게 구축하였다. 이들이 축조한 성곽은 왕궁 및 관부 주위를 둘러싼 내성과 도시 전체를 둘러싼 외성이었다. 이는 바로 古土城·古長城·缸波頭古城·涯月木城⁴¹⁾ 등이다.

2. 조선시대 관방시설

조선시대는 중앙집권화의 체제를 정비하면서 방어 체제가 강화되었으며 관방시설도 체계적으로 정비되었다. 이 때의 관방의 기본방향은 북쪽 지방의 방어에 더욱 큰 비중을 두었다. 물론 남쪽 지방의 방어가 북쪽 지방의 방어에 비하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남쪽 지방에 있는 수군이 오랫동안 배의 위에 있어 외환을 막는(長在船上守禦) 전통 때문에 연해지역에 읍성이 축조된 후에 鎭堡의 축조가 이루어져 갔다.⁴²⁾

특히 성종 대에 이르러 해안지대의 선박이 있는 곳(船泊處)에는 본격적으로 城池와 木柵이 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海岸鎭堡의 축성은 성종 15년(1484)으로부터 성종 22년(1491)까지 대체로 慶尙右水營과 全羅左水營이 관할하는 구역 중에서 왜적이 다니는 길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⁴³⁾

기록상으로는, 제주도에도 예외 없이 고려말부터 왜구의 침입이 잦았으며 그 규모도 점점 커짐에⁴⁴⁾ 따라 이 무렵을 전후하여 관방시설도 체계적으로 정비·축조되기 시작하였다.

세종때 濟州都安撫使 韓承舜의 올린 狀啓 내용에 의하면, 당시 제주의 방어조직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1. 도내에 군인이 주둔한 곳은 本州의 동쪽은 김녕, 조천관이고, 서쪽은 도근천, 애월, 명월입니다. 대정현은 서쪽으로 차귀이고, 동쪽으로 동해입니다. 정의현은 서쪽으로 서귀이고, 동쪽으로 수산 등입니다. 이는 모두 왜구가 정박할 수 있는 요해처이므로 이전에도 모두 방호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위 방호소 외에 왜선이 정박할 염려가 있는 곳은 김녕부터 조천관까지 거리 18여리 내에 3개소, 조천관부터 卍의 읍성까지 거리 30여리 내에 7개소, 동해부터 서귀에 이르는 20여리 내에는 3개소, 서귀부터 정의에 이르는 거리 60여리 내에 3개소, 수산부터 김녕에 이르는 거리 40여리 내에는 5개소입니다. 公私 奴隸 및 각 소속 正軍·奉足 등 잡색군인을 그 다소에 따라 한 곳마다 50~60여명 혹은 100여명을 나누어 방어함이 편리하겠습니다.

1. 烽火·候望은 州의 동쪽 김녕부터 州의 서쪽 판포에 이르는 10개소와 대정현 서쪽 차귀부터

41) 『新增東國輿地勝覽』 濟州牧 古跡條.

古土城 [在州西南三十六里 三別抄所築 今皆頽圮], 古長城 [沿海環築 周三百餘里 高麗元宗時 三別抄叛據珍島 王遣侍郎高汝林等于耽羅 領兵一千以備之 因築長城], 缸波頭古城 [在州西四十里 城中有泉 大旱不涸(後略)], 涯月木城 [在州西四十二里 卽三別抄所築 以禦官軍處 今半頽落].

42) 車勇杰(1997), 「朝鮮 成宗代 海防築造論議와 그 樣相」, 『백산학보』 23, pp.241~249.

43) 車勇杰(1983), 註 2) 논문, p.46.

44) 濟州道(1993), 전계서, pp. 844~847.

동쪽 居玉에 이르는 5개소, 정의현 서쪽에서 북쪽 只末山에 이르는 7개소에 매 烽火마다 5명을 나누어 정합니다. 또 연대를 쌓았는데 높이와 너비가 각각 10척입니다(후략).

1. 여러 노인에게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정의현 동쪽 牛峯과 대정현 서쪽 竹島는 예로부터 예선 이 몰래 정박하니 가장 요해지가 된다.'고 합니다. '우도 인근의 水山과 竹島 인근인 西歸[遮歸]防護所⁴⁵⁾는 모두 성곽이 없으니, 홀연히 왜적이 밤에 침범한다면 군사들이 의지할 곳이 없어 응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컨대 적당한 곳을 헤아려 축성하고 적변에 응하게 하십시오.' 하니, 왕이 그대로 따랐다.⁴⁶⁾

위의 내용을 보면, 제주목에는 김녕·조천·도근천·애월·명월 등 5개소, 대정현에는 차귀와 동해 등 2개소, 정의현에는 서귀와 수산 등 2개소에 이미 방호소가 설치되어⁴⁷⁾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방호소에는 군사가 의지할 만한 성곽이 시설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가장 요해처인 수산과 차귀방호소에 축성을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조정에서는 築城을 허락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방호소 외에도 왜구가 침입하여 정박할 만한 곳으로 21개소를 들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도 관청과 양반들의 노예와 정군의 봉족 등으로 구성된 잡색군⁴⁸⁾을 파견하여 방어함이 좋다고 하였다. 또한 烽火와 墩望은 모두 22개소인데 제주목에 10개소, 대정현에 5개소, 정의현에 7개소가 있으며, 봉화마다 봉화군이 배치되었다. 또 연대를 축조하였는데 높이와 너비를 각각 10척으로 하였다.

방호소의 축성에 대해서는 세종 25년(1443) 제주 안무사의 馳啓에 잘 나타나 있다.

本州 동쪽 김녕방호소의 동쪽에 牛島가 있는데 육지와의 거리가 30여리이고, 또 본주 서쪽 명월 방호소의 서쪽에 竹島가 있는데 육지와의 거리가 20여리입니다. 모두 적선이 침입하는 곳입니다. 정의·대정현 사이에 있는 서귀방호소는 두 현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적선이 들어와서 정박할 두려움도 있습니다. 청컨대 이 3곳에 築城하여 守禦하게 하십시오.⁴⁹⁾

이에 의하면, 수산·차귀방호소에 이어 김녕·명월·서귀방호소에도 축성을 건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정에서는 “제주는 4면이 험하여 적선이 정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45) 여기서 竹島는 지금의 遮歸島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 인근의 방호소는 西歸防護所가 아니라 遮歸防護所이다. 따라서 「西歸」는 「遮歸」의 誤字이므로 앞으로 서술할 때는 遮歸라 한다.

46) 『世宗實錄』世宗 21년 閏2월 壬午條.

47) 『世宗實錄』世宗 16년 10월 戊午條.

병조에서 제주 안무사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제주·정의·대정 고을 관청의 방호소에 쓸 玄字鐵翎皮, 翎箭, 黃字鐵翎皮, 金鐵, 走火 등을 공급하기를 청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는 내용으로 보아도, 이미 이 시기에는 방호소가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8) 잡색군이란 유사시에 동원하기 위해 군역 부담자 외의 人丁으로 편성된 예비병력이다. 진관체제 속에서 전국 각지의 지방군은 留防에만 종사하고 있음으로 적의 내침 하였을 경우, 방비가 허술한 지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비의 부실함을 막기 위하여 잡색군이 편성된 것이다.

49) 『世宗實錄』世宗 25년 정월 丙寅條.

토지가 매마르고 백성들이 가난하여 성을 쌓기가 매우 어려우니 요해처만 엄하게 방어토록”⁵⁰⁾하면서 성곽의 축조를 후일로 미루고 있다.

이러한 관방 시설의 증축과 축성의 문제는 종종 때에도 계속 거론되고 있다. 종종 5년(1510)에 제주 도내에 왜구 침입이 예상되는 60포구(浦) 중에서 9개소의 방호소가 부족하다 하여, 김녕포·도의탄포·명월포·판울포·법환포·가내포·차귀포 등 7개의 포구에 權管⁵¹⁾과 助防將을 두어 방어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⁵²⁾

그리고 진성의 축성에 대해서는 종종 5년(1510)에 張琳 牧使가 올린 제주 방어에 관한 馳啓에 잘 나타나 있다.

1. (전략) 제주의 조천포·김녕포·도근천포·애월포·명월포와 정의현의 수산포·서귀포와 대정의 서귀포·동해포는 도적의 배가 머무를 수 있습니다. (중략) 수산과 차귀 두 포구는 옛날 성을 고쳐 쌓아서 함정과 말뚝을 설치하였습니다. 나머지 일곱 포구는 원래 성이 없으므로 지키는데 의지할 곳이 없어 매우 허술합니다. 그러므로 함경·평안도의 예에 따라 지금 성을 쌓게 하십시오. (중략)
1. (전략) 城頭에 둔 기계와 함정 등의 여러 일과 각소의 성을 쌓는 것을 일시에 모두 실시하느라고 백성들이 피곤하여 아마 급년 안에는 마치지 못할 것이다. (중략)
1. 연대를 둘 수 있는 곳에 城望을 가설하였습니다. 삼읍이 모두 해안가이므로 방어가 아주 긴박하지만 군사의 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후략)⁵³⁾

이에 의하면, 수산과 차귀방호소는 세종 21년(1439)에 韓承舜의 건의를 계기로 축성하였고, 종종 5년(1510)에 이를 수축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7개 방호소의 축성은 조정에서 의논한 결과 “성을 쌓는 일은 마땅히 급히 하여야 하나, 한 州의 백성으로 하여금 7개의 성을 쌓도록 하면 힘을 지탱하기가 어렵다.”⁵⁴⁾면서 순차적으로 축성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의 해안에는 연대가 증설됨에 따라 군사의 수가 부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종대에는 『新增東國輿地勝覽』 濟州 3邑 關防條에 의하면, 제주목 관내의 김녕방호소가 별방방호소로 이전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의현 관내에 오소포방호소, 대정현 관내에 색포·모슬포·범질포 방호소가 증설되어 도내에는 13개소의 방호소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수전소는 제주목에 7개소, 정의현에 2개소, 대정현에 4개소 등 모두 13개소이다. 더욱이 봉수는 제주목에 8개소, 정의현에 10개소, 대정현에 5개소 등 모두 23개소가 정비되었다.⁵⁵⁾

이와 더불어 제주목과 정의·대정현의 방호소의 축성은 차귀와 수산 방호소에 이어서

50) 『世宗實錄』 世宗 25년 5월 壬午條.

51) 權管은 鎭의 종 9품의 무신이다.

52) 『中宗實錄』 中宗 5년 7월 甲子條.

53) 『中宗實錄』 中宗 5년 9월 己巳條.

54) 『中宗實錄』 中宗 5년 9월 壬申條.

55) 『新增東國輿地勝覽』 濟州牧·旌義縣·大靜縣 關防條의 세부적인 내용은 後述코자 한다.

명월·별방·서귀·동해 방호소에도 성곽이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중종대에 제주도의 관방시설은 크게 확충되어 왜구의 침입에 대한 해안 방어의 시설이 어느 정도 정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 이후인 17세기에 이르기까지도 제주의 관방시설은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보수·정비되었다. 특히 숙종 대에 이르면 동해진성을 철폐하여 모슬진성으로 移築⁵⁶⁾과 더불어 화북진성도 축성하였다.⁵⁷⁾

그리고 18세기 후반기에 이르러서 3읍성과 9진성, 봉수 25개소와 연대 38개소가 구축되는 등 제주의 관방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완성단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56) 『肅宗實錄』肅宗 3年 5月 癸未條

57) 金錫益(1918), 『耽羅紀年』卷3, 肅宗 4年條

Ⅲ. 제주 관방시설의 현황

1. 읍 성

읍성은 거주주체가 왕이 아니고 군현의 주민으로, 이들을 통치하는 행정적인 기능과 군사적인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축조한 성이다. 도성과 읍성에 대한 구분은 “有宗廟先君之主 曰都, 無曰邑 邑曰築 築曰城 口其城郭也”라 하여 종묘와 사직이 있는 곳을 都라고 하고 없으면 邑이라 하며 이러한 곳에 방형으로 시설된 것을 성곽이라⁵⁸⁾고 하였으니, 곧 읍성은 읍에 축조된 성곽이다.

읍성의 기원은 중국의 夏왕조 때에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축조한 대규모의 版築土城으로 보고 있으나,⁵⁹⁾ 우리 나라 읍성의 기원은 분명하지 않다. 이는 바로 부족국가 시대 집단의 거주지를 둘러싼 성곽을 읍성의 형태로 볼 것인지, 삼국시대와 통일 신라때 유력한 지방에 축조한 성곽을 오늘날 읍성의 형태로 볼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⁶⁰⁾ 그러나 현재의 읍성의 성격을 갖춘 성곽은 고려말 조선 초에 이르러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연해에 축조한 성으로 보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⁶¹⁾

즉 우리 나라의 읍성은 행정적인 기능과 동시에 군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와 같은 읍성은 연해안 지역부터 축조되었으며 邑城의 立地도 평지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⁶²⁾

이와 같이 읍성의 축조는 전통적인 전술·전략인 山城立保制(평상시에 거주하던 평지를 정리하고 미리 준비된 산성에 들어가 지키는 것)가 평지 읍성으로 대체되면서 전략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즉, 세종 11년(1429) 2월 兵曹判書 崔閔德을 충청·전라·경상도의 도순무사로 城基를 審定할 때 올린 「各官城子築造條件」의 내용 중 읍성의 축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58) 孫永植(1987), 『韓國城郭의 研究』,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p.60.

59) 董夔泓 等編, 成周鏗 譯(1993), 『中國都城의 起源과 發達』, pp.16~20.

60) 沈正輔(1995), 『韓國 邑城의 研究』, pp.107~108.

백제의 22擔柵, 新羅의 52邑勒, 高구려의 176城 등은 王城 이외에 지방의 유력한 읍에 있었던 성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나, 다만 그 기능이 山城과 분명한 구분이 없다. 그리고 통일신라때 지방의 중심이 되었던 9州 5小京에 축조되었던 성곽도 도시를 방어할 목적과 保民用으로 축조되었으나, 중국식 읍성에 근접한 성곽으로 한국식 읍성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61) 孫永植(1987), 전계서, p.61.

沈正輔(1995), 전계서, p.36.

62) 沈正輔(1995), 전계서, p.36.

下三道 각 고을의 성 중에 그 방어가 긴요한 沿邊의 郡縣들은 山城을 없애고 모두 邑城을 쌓을 것이며, 그 읍성으로 소용이 없을 듯한 것은 이전대로 산성을 수축하게 할 것이며(후략)⁶³⁾

라 하여, 가장 긴요한 연해의 고을에는 산성 대신에 읍성을 축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바로 연해에서 왜구를 방어하겠다는 적극적인 방어책의 일환으로 축조되었다.

따라서 세종대에 이르러 읍성의 축조는 왜구의 피해가 많았던 충남·전라·경상도의 下三道로부터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⁶⁴⁾

이와 달리 제주도의 읍성은 제주목·정의현·대정현으로 분리되면서 축조·개축되었다. 물론 제주 3읍성은 왜적의 침입에 대비한 군사적인 기능과 행정적인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조되었다. 때문에 제주 3읍성이 위치한 곳은 당시 정치·행정·문화·군사의 중심지였다.

『太宗實錄』에 기록된 제주 都安撫使 吳滉과 前判官 張合 등이 올린 事宜에는 3읍성의 축조 배경이 되는 三邑 분리의 필요성이 잘 나타나 있다.

제주에 군을 설치할 초기에는 한라산의 4면에 모두 17현이 있었습니다. 북면의 대촌현에 성을 쌓아서 본읍으로 삼고, 동·서도에 靜海鎭을 두어서 군마를 모아 연변을 방어하였습니다. (중략) 그러나 땅이 넓고 백성은 조밀하여 소송이 번다합니다. 동·서도의 산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목사가 있는 본읍을 왕래하려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사철에 갔다가 오는 데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정해진의 직원들이 마을을 고찰한다는 핑계로 백성을 침해하며 폐단을 일으키고 아무 때나 사냥하여 백성들을 괴롭히지만, 목사와 판관은 그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⁶⁵⁾

이에 따라, 조정에서는 태종 16년(1416) 7월에 대정·정의 두 현을 신설하였다. 이 때부터 제주도는 1목 2현의 3읍 행정체제가 설치되었고, 신설된 2현에는 읍성을 축조하였다.

1) 제주읍성

(1) 읍성의 축조

제주읍성은 제주목의 중심지를 둘러싼 성이다. 제주목의 연혁과 경계에 대하여는

63) 『世宗實錄』 卷43, 世宗 11年 2月 丙戌條.

下三道各官城子內 防禦最緊沿邊郡縣 則削山城 皆築邑城 其無可用邑城者 仍修山城(後略).

64) 沈正輔(1995), 전계서, p.62.

65) 『太宗實錄』 太宗 16年 5月 丁酉條.

濟州都安撫使吳滉 前判官張合等 上其土事宜 啓曰 濟州置郡之初 漢拏山四面 凡十七縣 北面大村縣築城 以爲本邑東西道 置靜海鎭 聚軍馬沿邊防禦 (中略) 然地大民稠 訴訟煩多 東西道山南接人往來牧使所在本邑 非徒事難 農時往返 其幣不小 又靜海鎭軍馬 及牧場兼任數多職員 率其無知之輩 軍馬考察 依憑侵民作弊 或無時畋獵 搔擾殘民 牧使判官亦未知.

- ㉠ 제주목은 동쪽으로 정의현과 80리, 서쪽으로 대정현과 81리, 남쪽으로 바다와 120리, 북쪽으로 바다와 1리의 거리이다. (중략) 고려 숙종 10년에 毛羅를 耽羅郡으로 고쳤고, 의종때 현령관으로 강등하였다.⁶⁶⁾
- ㉡ 바라건대 지금부터 본 읍에는 동도의 신촌현·합덕현·김녕현과 서도의 귀일현·고내현·애월현·곽지현·귀덕현·명월현을 소속시키십시오.⁶⁷⁾

라고 하였다. ㉠의 기록을 통하여 제주목은 고려 숙종 10년(1105)에 고려의 지방조직인 군으로 편입되었으며, 의종때는 현으로 강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려시대에는 제주도 전체를 하나의 지방조직으로 통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은 조선 태종 16년(1416)에 삼읍으로 분리되면서 제주목의 행정범위가 산복 지역으로 한정되었다는 내용이다.

즉 제주목은 동쪽으로 정의현과 80리, 서쪽으로 대정현과 81리, 남쪽으로 바다와 120리, 북쪽으로 바다와 1리이다. 그리고 제주목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김녕현, 서쪽으로는 명월현까지 목에 포함되었다.

제주읍성에 대한 주요 문헌 기록은 다음과 같다.

- ㉠ 제주에 큰 비로 물이 제주성이 들어와 관사와 민가와 곡식 태반이 漂沒되거나 침수되었다.⁶⁸⁾
- ㉡ 제주성의 수축을 명하였다.⁶⁹⁾
- ㉢ (제주)읍성은 石城으로 그 둘레가 910보이다.⁷⁰⁾
- ㉣ (제주)읍성은 石築으로 그 둘레가 4,394자, 높이 11자이다. 성 내에는 샘이 없고, 성의 남쪽 큰 돌 아래에 큰 구멍에서 물이 솟아나니, 그 이름은 嘉樂貴이고 깊이는 한 장 정도이다. 물이 흐름을 끊어 별도로 중성을 쌓아 성안 사람에게 물을 대었다.⁷¹⁾
- ㉤ 山底川은 주성의 동쪽에 있고, 屏門川은 주성의 서쪽에 있다.⁷²⁾
- ㉥ 목사 成允文때에 지금의 성으로 개축하였다. 그 둘레가 6,120여자, 높이가 13자(布帛尺)이다. 격대, 초루, 樓子, 弔橋가 모두 갖추어졌다(중략). 성채는 북쪽을 바라보고 있지만, 단지 동·서·남 3문이 있는데, 문에는 모두 譙樓가 있다. 성 중에는 3개의 큰 물이 있는데 흘러서 개울이 되며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다.⁷³⁾

- 66) 『新增東國輿地勝覽』 濟州牧 建置沿革條, 濟州牧 東至旌義縣界八十里 西至大靜縣界八十一里 南至海一百二十里 北至海一里 (中略) 肅宗十年 改毛羅爲耽羅郡 毅宗時降爲縣令官.
- 67) 『太宗實錄』 太宗 16年 5月 丁酉條, 願自今 本邑則屬以 東道新村縣咸德縣金寧縣 西道貴日縣高內縣涯月縣郭支縣歸德縣明月縣.
- 68) 『太宗實錄』 太宗 8年 9月 甲午條, 濟州大雨 水入濟州城 漂溺官舍民居 禾穀殆半.
- 69) 『太宗實錄』 太宗 11年 정월 甲子 : 命修築濟州城.
- 70) 『世宗實錄』 「地理志」 卷151 : 邑城 石城 周回九百十步.
- 71)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8, 城郭條, 石築 周四千三百九十四尺 高十一尺 城內無水 城南大石下 有大穴水湧出 名嘉樂貴深可丈許 截流別築重城 城中人取汲.
- 72)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8, 山川條 : 山底川在州城東 屏門川在州城西
- 73) 金尙憲, 『南槎錄』, 牧使成允文時 改築今城 周六千一百二十餘尺 高十三尺(布帛尺) 擊臺砲樓樓子弔橋諸具 (中略) 城塞南面 一門 只有東西南三門 門皆有譙 城中有三大井 流而爲川 嘆旱不渴.

- ㉔ (전략) 嘉靖 乙丑年(1565)에 郭屹 목사때 동성을 물려 쌓아 지금의 가락천이 성 안에 있다. 또 산저천도 있다. 동·서·남 3문이 있으며, 남북으로 水口 2문과 격대 27개소, 타첩 404개가 있다. 원래 大村으로 고양부 3성이 살던 곳이다.⁷⁴⁾
- ㉕ 정조 4년에 목사 金永綬가 옛터로 인하여 간성을 축조하여 그 폐단(물의 범람)을 막았다. 헌종 1년 목사 李宜植이 간성을 증축하였고, 受福門 重仁門으로 개편하였다.⁷⁵⁾

제주읍성에 대한 최초의 문헌기록인 ㉔에 의하면, 태종 8년(1408)에 큰 홍수로 제주 성내가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㉕은 태종 11년(1411)에 수축하였다는 것이다. 즉 큰 홍수로 인하여 훼손된 제주읍성에 대한 정비가 3년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주읍성은 태종 8년(1408) 이전에 축조되었다. 그러나 처음 축조한 시기는 불분명하다.⁷⁶⁾ 다만 『太宗實錄』에 “(한라산) 북면인 대촌현에 축성하여 본읍으로 삼았다.”⁷⁷⁾는 내용이 있다. 물론 대촌현은 “3徙에 사는 곳을 합하여 大村이고, 지금의 州城으로 州人들이 성안을 大村”⁷⁸⁾이라고 한 것처럼 대촌현은 州城內를 가리키고 있지만, 제주읍성의 축조 시기는 불분명하다.

㉔은 제주읍성의 규모에 대한 최초의 기록으로 그 둘레가 910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㉔과 ㉕으로 보아 제주읍성은 산지천과 병문천 사이에 있고, 성내에 우물이 없으므로 성 남쪽 가락곶물에 별도의 重城을 축조하여 식수로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천 사이에 성곽을 축조하여 이를 해자로 사용하는 수법은 조선초기 축성의 일반적인 기법이다.⁷⁹⁾ ㉔, ㉕과 ㉕은 제주읍성의 정비 과정에 관한 내용이다. 즉 명종 20년(1565) 郭屹 목사가 동쪽으로 성을 확장하여 성안으로 가락천과 산지천을 끌어 당겨 물 문제를 해결하였고, 남북으로 두 개의 수구(南水關, 北水關), 격대와 타첩 등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격대·초루·해자와 문루 등을 정비하여 지금의 제주읍성으로 개축한 것은 成允文

74) 李元鎮, 『耽羅志』 濟州牧 城郭條.
 (前略) 嘉靖乙丑 郭屹爲牧使時 退築東城 嘉樂泉今在城內 又有山底泉 有東南西三門 又有南北水口二門 擊臺二十七 塚壘四百四 本大村三姓所居之地.

75) 談水契, 『增補耽羅誌』.
 正祖四年 牧使金永綬 因舊基築間城 以防其弊 憲宗十三年 牧使李宜植 間城加築 受福門 重仁門 改編.

76) 김봉옥·신석하(1996), 전계서, p.29에서 '제주성은 탐라국 首府의 성'으로 보고 있다. 김두봉, 『제주도실기』에서 '고려시대 관군은 동제원에 설진하고 李文京은 濟州城에 이르러 屋主 高仁묘에게 성문을 열어 통과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고인단은 이를 거절하여 성문을 굳게 지켰으므로 성을 우회하여 동제원에 이르렀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미 고려 元宗11년(1270)에는 제주 성이 축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두 기록 모두 근거 史料가 없다.

77) 『太宗實錄』 太宗 16年 5月 丁酉條 : 北面大村縣築城 以爲本邑.

78) 『新增東國輿地勝覽』 濟州牧 古跡條.
 合三徙居爲大村 卽今之州城 州人謂城內爲大村.

79) 金奉玉·金鴻植(1990), 『濟州城址 및 五賢壇 整備計劃(案)』, 濟州市, pp.42~43.

목사 재임시이다. 또한 정조 4년(1780)에 金永媛 목사가 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해 間城을 축조하였고, 현종 13년(1847)에 李宜植 목사가 북문을 受福門, 남문을 重仁門으로 개편하였다.

문헌에 기록된 제주읍성의 규모와 시설을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표 3-1> 제주읍성의 규모와 시설현황

책자명	주요내용
『世宗實錄地理誌』	周回 910步
『新增東國輿地勝覽』	周 4,394尺, 高 11尺, 城內無水, 南門樓 1개(定遠樓)
『耽羅誌』	周 5,489尺, 高 11尺, 城內 2川(가락천, 산저천), 동서남 3문, 水口 2門, 擊臺 27, 垛堞 404
『東國輿地志』	周 5,489尺, 3문, 水口 2門, 擊臺 27, 垛堞 404, 城內 2川(가락천과 산저천),
『濟州邑誌』	周 5,489尺, 高 11尺, 東西南 3門, 南北水口, 築間城 551步, 高 9尺
『濟州大靜旌義邑誌』	周 10里, 高 11尺, 垛堞 404, 東西南 3門, 水口 2門,
『耽羅誌草本』	周 5,489尺, 高 11尺, 擊臺 27, 垛堞 404, 東西南 3門, 水口 2門,
『增補文獻備考』	周 5,489尺, 高 11尺, 擊臺 27, 垛堞 404, 東西南 3門, 水口 2門,
『增補耽羅誌』	周 5,489尺, 高 11尺, 擊臺 27, 垛堞 404, 東西南 3門, 水口 2門

<표 3-1>에서 보듯이, 『世宗實錄地理志』에는 읍성의 둘레를 910보라고 했으나,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둘레를 4,394자라 했으니 이를 보로 환산하면⁸⁰⁾ 1,099보이다. 두 기록을 비교하면, 성곽의 둘레는 189보의 차이가 있다. 이처럼 성곽의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世宗實錄地理志』에 나타난 성곽과 현재의 읍성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⁸¹⁾ 그리고 『新增東國輿地勝覽』에 “州城(濟州邑城)의 서북쪽에 옛 성터가 있다.”⁸²⁾는 것으로 보

80) 이 척도표는 아래의 박흥수와 신영훈의 글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였다.

(단위 : Cm)

구분	세종 척도	경국대전	영조	순조	수표교	비원
周尺	20.81	21.04	20.83	20.81	20.18	20.68
營造尺	31.24	31.21	31.22	-	31.24	30.83
布帛尺	46.73	46.80	46.73	46.73	46.73	49.24
步	124.86	126.24	124.98	121.08	124.86	124.08
步/營造尺	3.9996	4.044	4.003		3.996	4.024

朴興秀(1967), 『李朝尺度에 관한 研究』, 『大東文化研究所』제4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신영훈(1987), 『농촌주거환경조사연구보고서』, 한국건축문화연구소, 한샘.

81) 金奉玉·金鴻植(1990), 전게서, pp. 42~43.

82) 『新增東國輿地勝覽』 濟州牧 古跡條:古城 州城西北有古城遺址.

아 이 옛 성터(古城)가 『世宗實錄地理志』에 나타난 성곽으로 보인다.

그리고 『耽羅志』에는 『新增東國輿地勝覽』보다 제주읍성의 둘레는 1,095자가 확장된 5,489자이다. 이것은 명종 21년(1566)에 제주읍성 성안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郭屹 목사가 동쪽으로 성곽을 退築함으로써 규모가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선조 32년(1599)에 成允文 목사가 현재 읍성의 모습으로 개축하였고, 정조 4년(1780)에 金永綬 목사가 길이 551보, 높이 9자의 間城을 축조하였다.

흔히 읍성의 성문은 4방면에 설치를 하나 지형 여건에 따라 1~3개소만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⁸³⁾ 축조 당시 제주읍성의 성문이 몇 개였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南槎錄』에 동·서문과 2개의 남문이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축조 당시부터 북문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門樓는 『新增東國輿地勝覽』에 “定遠樓는 남문의 謙樓이다.”⁸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남문의 문루가 처음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南槎錄』에는 3문의 門樓가 모두 설치되었고, 『東國輿地志』에 의하면 동문은 濟衆, 남문은 定遠, 서문은 百虎⁸⁵⁾임을 알 수 있다.

그 이후부터 동·서·남 3문과 수구 2문이 후대까지 유지되고 있다. 또한 현종 13년(1847)에 牧使 李宜植이 北水口城을 退築하여 天一亭을 성 위에 세웠으며, 受福門을 重仁門으로 개편하였다.

격대와 타첩에 대해서는 축조 당시뿐만 아니라 16세기까지도 기록이 없다가, 17세기의 문헌인 『南槎錄』과 『耽羅志』에 이르러 격대·타첩·포루가 설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로 보아 축성 당시는 물론 16세기 초까지도 제주읍성에는 격대와 타첩이 시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바로 세종 22년(1440) 崔閔德이 “野人과 倭人은 화포를 사용하지 못하니 웅성과 적대를 없애서 민력을 덜어 연해 군현마다 읍성을 빨리 축조하여 위용을 나타내도록”⁸⁶⁾한 上言에 따라 우선 성체만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성곽의 부대시설은 16세기~17세기에 이르러 축조되어, 이 시기의 城制임을 알 수 있다.⁸⁷⁾

그리고 제주읍성에는 해자가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⁸⁸⁾ 즉 『南槎錄』에 壕子和 弔橋의 설치와 “널다리를 해자 위에 걸쳐 人馬가 통과하였고, 양변의 나무인형에 쇠줄을 걸어 놓았다. 성에 오르면 줄을 당겨 다리가 들리게 하였다.”⁸⁹⁾는 기록으로 보아 제주 읍성에는

83) 孫永植(1987), 전계서, p.62.

84)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8, 濟州牧 樓亭條 : 定遠樓는 南門 初樓.

85) 『東國輿地志』 城郭條

立三門 東曰濟衆 南曰定遠 西曰百虎.

86) 『世宗實錄』 권88, 世宗 22년 3월 癸卯條.

87) 金奉玉·金鴻植(1990), 전계서, p.44.

88) 壕子는 성벽 주위에 인공적으로 땅을 파서 고랑을 내거나 자연 하천 등의 장애물을 이용하여 성의 방어력을 증진시키는 성곽시설의 하나이다.

89) 嶺山 金聖鐸, 『嶺山全集』· 板橋架壘通人馬 兩邊木偶鐵索鉤 登城引索柝開.

해자가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주읍성에는 “성문에 擧橋軍 37명”⁹⁰⁾이 있었다. 이 거교군들은 성문을 나와 해자를 건너는 데 필요한 釣橋를 들어 올리는 임무를 맡은 것으로 보인다.

(2) 유적 현황

제주읍성은 지금의 제주시내를 감싸고 있었다. 읍성의 추정도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면, 읍성은 동서를 장축으로 하는 부정형의 형태이다. 읍성의 성곽은 대부분 훼손되었다.⁹¹⁾ 이는 바로 시가지의 발달로 읍성의 남·서·북쪽으로는 현재 민가들이 밀집하여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읍성 중 보존, 정비가 잘 이루어진 곳은 오현단 남측의 경계적인 170m 정도이다. 이곳 읍성의 성벽의 외벽 높이가 지형에 따라 3.6m~4.3m이고, 내벽의 높이는 5.3m~6.9m이다. 성문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다.

제주읍성의 치성은 3개소가 보존되어 있으나, 산지천과 인접한 치성만 원형대로 남아 있고 나머지 2개소는 보수되었다. 원형대로 남아 있는 치성의 규모는 둘레가 27.5m, 높이 9m이고, 치성과 치성의 간격은 65~75m이다. 치성은 시굴조사를 통하여 T자형 건물지가 확인되었다.⁹²⁾

제주읍성의 축조 방법은 협축으로 잔돌 끼움을 한 허튼층 쌓기로 하부에서 상부로 갈수록 城石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다. 읍성 외벽의 기울기는 1.0~1.4:10⁹³⁾으로 직선형 성벽으로 단경사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치성은 성벽을 축조한 후에 성벽에 덧대어 축조하였다.

조선시대 숙종 28년(1702) 李衡祥 제주목사가 제주도내를 순력할 때 그린『耽羅巡歷圖』중 「濟州揀點」에 나타난 성곽의 형태는 귀 죽은 방형에 가깝다. 그리고 읍성 안에는 관덕정·객관·옥·향교·서원 건물과 동·서·남문과 각 성문에는 문루와 옹성이 묘사되어 있다.

최근에 제주목관아지 발굴조사를 통하여 제주목에 있었던 주요 건물지와 그 위치가 확인되었다. 뿐만아니라 청자·백자, 기와편들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⁹⁴⁾

90) 『濟州兵制烽臺摠錄』, 濟州牧條, 규장각도서 4481 : 城門擧橋軍三十七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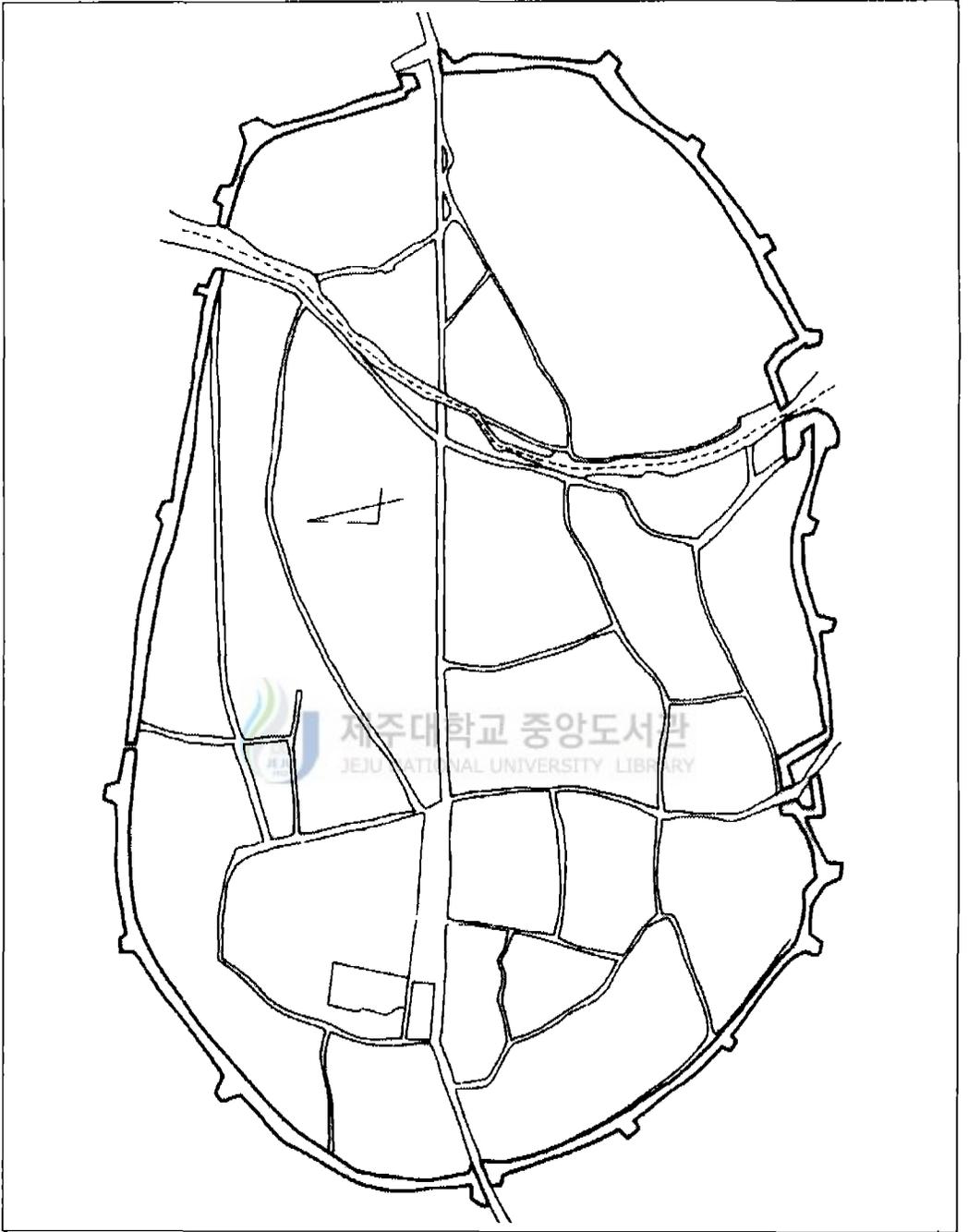
91) 金錫翼 『耽羅紀年』 부록에 의하면,

- 1913년, 북성문을 헐어버림.
- 1914년, 동성문루(延祥樓), 서성문루(鐵西樓), 간성문루(重仁樓)를 헐어버림.
- 1915년 : 북문(蘇民門)과 북성을 헐어버림.
- 1916년 : 布政司의 이 문루를 헐어버림.
- 1918년 : 남성문루(定遠樓)를 헐어버림.
- 1925~1928: 산지항 축항공사 과정에서 읍성을 이루던 대부분 성석들이 매립골재로 사용되면서 심하게 훼손됨.

92) 金奉玉·金鴻植(1990), 전계서, pp.31~35.

93) 金봉옥·신석하(1996), 전계서, pp.34~35.

94) 제주대학교박물관에서 1991년부터 1998년까지 4차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건물지의 규모와 위치가 확인되었고, 많은 양의 유물도 출토되었다 (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1998), 『濟州牧官衙址』).



〈제주읍성 추정도〉⁹⁵⁾

95) 제주읍성 추정도는 1990년도 축적이 다른 여러 장의 지적도를 합쳐서 작성함에 따라 축적을 표시하기가 곤란하여 생략하였다.

2) 정의읍성

(1) 읍성의 축조

정의읍성은 조선시대 정의현 관아를 둘러싸은 성이다. 정의현의 연혁과 경계에 대하여는

- ㉠ 정의현은 동쪽으로 제주 경계까지 26리, 북쪽으로 제주 경계까지 20리, 서쪽으로 대정현 경계까지 37리, 남쪽으로 바다까지 7리이다.
정의현은 본래 제주의 東道이다. 조선 태종 16년에 안무사 吳滉의 제청에 의하여 한라산 남쪽 너비 90여리의 땅을 갈라 동쪽은 정의로 하고, 현감을 두었다.⁹⁶⁾
- ㉡ 동도의 현감은 정의현을 본읍으로 삼고 토산현·호아현·홍로현 등 3현을 소속시키며(후략).⁹⁷⁾

라고 하였다. 즉 ㉠은 정의현의 연혁과 사방 경계에 관한 내용이다. 정의현은 조선 태종 16년(1416)에 안무사 吳滉의 건의에 따라 한라산 남쪽의 동쪽 지역에 설치되었다. 그리고 ㉠과 ㉡을 종합하면, 정의현은 동쪽으로 제주 경계까지 26리, 북쪽으로 제주 경계까지 20리, 서쪽으로 대정현 경계까지 37리, 남쪽으로 바다까지 7리이다. 그리고 토산현·홍로현·호아현 등 3현이 정의현에 포함되었다.

정의현의 당초 위치는 현재의 성산읍 고성리였으나, 정의현의 소재 지역이 동쪽으로 치우치는 등 현의 위치로써 적당하지 않아서, 移設의 논의가 제기되었다. 이설에 대한 주요한 사유는 다음 두 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다.

- ㉢ 전라도 도관찰사가 사의를 올려 “정의 현감 李貽의 보고에 의하면 ‘정의현을 본 읍으로 삼으라는 教旨가 있었다.’고 하나, 그 곳에 합속된 4현이 한라산 남쪽에 연달아 배치되어 있어, 만약 정의현을 본읍으로 삼는다면 호아현, 홍로현은 서로의 거리가 3息(90里)이 넘습니다. 그곳 백성의 왕래, 공사로 인한 접대, 목장을 고찰하는 등의 일에 폐단이 실로 적지 아니합니다. 마땅히 정의땅 중앙인 西村·쑤솔·兎山 중에서 지리가 적당한 곳에 읍성을 배치하고, 만약에 그곳을 방어할 경우라면 현감이 순풍인 때 군대를 거느리고 旌義鎭을 방어하게 하십시오.”⁹⁸⁾라고 하였다.
- ㉣ 옛 정의현은 현의 동쪽 27리에 있다. 원나라 목자 哈赤이 本州의 만호를 살해하였다. 吳滉이 삼읍을 나눌 때 현을 두었는데, 지경이 우도에 가까워 아침 저녁으로 鼓角 소리가 돌리고, 大

96) 『新增東國輿地勝覽』 旌義縣 建治沿革條,

旌義縣 東至濟州界二十六里 北至同州界二十里 西至大靜縣界三十七里 南至海七里

本濟州東道本朝 太宗十六年 用濟州按撫使吳滉之啓 議析漢孛山南 幅員九十餘里之地 東爲旌義 西爲大靜 俱置縣監.

97) 『太宗實錄』太宗 十六年 五月 丁酉條,

東道縣監以旌義縣爲本邑 屬以兎山縣狐兒縣洪爐縣等三縣(後略).

98) 『太宗實錄』太宗 十七年 五月 甲辰條,

全羅道都觀察使 上濟州事宜 據旌義縣監李貽呈 以旌義爲本邑 曾有教旨 然其合屬四縣 連排于漢孛山南面 若以旌義縣爲本邑 則狐兒縣洪爐縣 相去三息有餘 其人民往來 公事支待 及牧場考察等事 弊實不諱 宜於中央地西村眞舍及兎山地中地理可當處 邑城排置 若其防禦 則縣監於順風時 領軍到旌義鎭 固守防禦 從之.

風이 자주 몰아쳐 농작물이 여물지 않았다. 왜구가 자주 침범하니 세종 5년 안무사 鄭幹이 조정에 건의하여 재가를 받아 진사로 현을 옮기니, 곧 지금의 治所이다.⁹⁹⁾

위의 두 기록은, 현재의 성산읍 고성리에 있던 정의현의 위치가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즉 정의현이 동쪽으로 치우쳐 있어 발생하는 행정상의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B에서는 해풍에 의한 농사의 흉년, 우도가 가까이 있음으로 인한 왜구의 잦은 침입 등 농작물의 피해와 국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설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정의현은 현 위치인 팝숨리(지금의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1리 성읍민속마을)로 옮겨 읍성을 축성하였다.¹⁰⁰⁾ 그 후에도 정의현의 성 내에는 샘과 지형적인 이점이 없다¹⁰¹⁾는 이유로 이설이 건의되어 조정에서도 충분한 논의¹⁰²⁾가 진행되었지만, 결국에는 논의 자체로 끝나고 말았다.

정의읍성에 대한 주요 문헌 기록은 다음과 같다.

- ㉠. 지금 도안무사 鄭幹이 순시하여 팝숨에 이르러 말하기를 '여기에 현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태수 宋濶 공이 백성들에게 물어보니 백성들이 모두 기뻐서 따랐다. 이에 임금께 아뢰어 병부의 공문에 의해서 세 고을 백성들을 사역시켰고, 州牧의 판관 崔致廉에게 명하여 감독하게 하였다. (중략) 궁가를 높이고 삼문을 세우니 성터는 2,520자이고 높이는 13자이다. 계묘(세종 5년) 정월 초 9일에 시작하여 13일에 끝났으니 공정이 매우 신속하였다.¹⁰⁰⁾

99) 李元鎮, 『耽羅志』 旌義縣 古蹟條.

古旌義縣 在縣東二十七里元牧子哈赤殺本州萬戶于此 吳混分三邑時因置縣 地近牛島 農昏敵角大風 屢作禾稼不登 倭賊迭侵 我世宗五年 鄭幹建議 以聞移縣于晉舍 卽今治也.

100) 『世宗實錄』 世宗 4年 12月 乙巳條.

101) 『世宗實錄』 3卷 世宗 12年 6月 癸酉條.

世宗 12年(1430), 제주 경차관 司僕侍小尹 朴好門의 장계에 "정의·대정 두 현은 성내에 샘이 없기 때문에 정의현에서는 15리 밖에서 물을 길어 오고 대정현에서도 5리 밖에서 물을 길어 옵니다. 만일 왜구가 여러 날 성을 포위한다면 해중의 孤島에서 목숨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정의는 토산, 대정은 감산으로 옮기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中宗實錄』 中宗 12年 9月 甲申條.

中宗 12年(1525), 제주목사 金欽祖의 장계에서 "지금 정의, 대정의 활을 보니 모두 平原에 설치되어 지형의 利點이 없다. 양쪽 성의 주위는 천 여보가 되고 광대, 공히하여 保守하기가 어렵고, 두 현성 밖에는 멀리까지 평야가 있고 인가가 적어 20리 사이에서 연기를 볼 수 없으니 변고를 당해도 서로 구할 수가 없어 人和가 없다. 또한 두 성안에는 수원이 없으므로 정의현은 서쪽으로 50리쯤에 있는 영천관으로, 대정현은 남쪽으로 5리에 있는 把古山[簾山 : 지금의 안덕면 사계리]으로 이설 하는 것이 옳다."고 건의하였다.

102) 『中宗實錄』 中宗 20年 10月 壬辰條.

中宗 20年(1525)에, "정의현과 대정현을 설치할 때는 우도와 加乙波知島[가파도]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지금 대정현을 把古山[簾山] 밑으로 옮기는 것은 옛 현과 거리가 5리가 되어 옮기는 것이 타당하나, 정의현을 영천관으로 옮기는 것은 거리가 50리가 되어 목재 운반, 우도의 保守와 제주와의 거리가 120리 되어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民情의 형세를 살핀 뒤에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103) 李元鎮, 『耽羅志』 旌義縣 城郭條.

〔襄樞記〕今都安撫使鄭相國幹 巡至晉舍曰 宜立縣于此 太守宋公濶詢于小民 而事皆悅從於是 轉聞于上因兵部之文役 三邑之民 乃命牧判官崔公致廉監督之 崔公度厚薄 高恒低計徒庸量期嚴以施 令勳以規事 峻弓家峙三門 其城基二千五百二十尺 高十三尺也 始于癸卯正月初九日 訖于十三日功甚神矣.

㉠. (정의)현성은 석축으로 둘레가 2,986자, 높이가 24자이다. 동·서·남 3문이 있고, 성 중에는 우물 2개소가 있는데, 생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물)이 마를 때는 성의 남쪽 2리에 있는 大川水에서 물을 얻었다.¹⁰⁴⁾

이상의 기록을 살펴보면, ㉠에서 정의읍성의 축조는 현재 성산읍 고성리에서 진사리로 옮긴 이후 세종 5년(1423) 정월 9일에 제주판관 최치렴을 감독으로 하여 삼읍의 주민을 동원하여 5일 만에 그 둘레가 2,520자, 높이 13자, 3문이 있는 성이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렇게 짧은 기간에 성을 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많은 주민이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의 기록에 의하면, 읍성 내에 생수가 없어서 성 남쪽 2리 밖에서 물을 길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읍성의 이설이 자주 논의되었다.

정의읍성의 규모와 시설의 변천을 문헌 기록에 의해 정리하면 <표 3-2>와 같다.

<표 3-2> 정의읍성의 규모와 시설현황

책자명	주요내용
『襄樞記』	周 2,520尺, 高 13尺, 3門
『新增東國輿地勝覽』	周 2,986尺, 高 24尺
『南槎錄』	周 3,013餘尺, 高 8尺, 동서남 3문, 門上譙樓 城內1井
『耽羅誌』	周 2,986尺, 高 13尺
『東國輿地志』	周 2,980尺, 城中 2井
『濟州邑誌』	周 2,986尺, 高 13尺, 동서남 3문, 城中 2井
『濟州大靜旌義邑誌』	周 1,990步, 高 13尺, 女堞 180, 동서남 3문
『耽羅誌草本』	周 1,593步, 高 13尺, 女堞 180, 동서남 3문
『旌義郡邑誌』	周 2,986尺, 高 13尺, 동서남 3문, 城中 2井
『增補文獻備考』	周 2,980尺, 高 13尺, 城內 2井

<표 3-2>에서 보듯이, 성곽의 둘레는 축조 당시 기록인 『襄樞記』에는 2,520자, 『新增東國輿地勝覽』 이후의 문헌기록에는 2,980~2,986자로 기록되어 있다. 성곽둘레의 차이는 460~466자이다. 이는 바로 성곽의 둘레가 증축되었다기 보다는 用尺의 기준치 차이로 보인다.

이와 관련 『濟州大靜旌義邑誌』에는 1,990보, 『耽羅誌草本』에는 1,593보로 기록하였다. 정의읍성 성곽의 높이는 축조 당시의 13자가 후대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24자로 11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성문은 축조 당시부터 東·西·南 3문이 설치되어 후대까지 변화가 없었다.

정의읍성을 축성하기 위하여 지역을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우물은 축조

104) 『濟州邑誌』.

縣城石築 周二千九百八十六尺 高二十四尺 有東西南三門 城中有二井 非生水 旱則取汲於城南二里許大川水.

당시에는 없었으나 17세기초에 편찬된 『南槎錄』에는 1개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18세기에는 2개소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우물은 生水가 아니라 빗물을 담아두고 사용하므로 마을 경우에는 읍성의 남쪽 2리쯤에 있는 大川水를 이용하였다.

정의읍성의 女堞은 축조 당시에 뿐만 아니라 16~17세기까지도 없었던 것 같다. 그후 18세기 후반의 기록인 『濟州大靜旌義邑誌』에 180개소가 축조되어 후대까지 유지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성곽의 부대시설은 제주읍성이 17세기에 이르러 시설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의읍성도 17세기 이후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유적 현황

현재 정의읍성은 성읍민속마을을 둘러싸고 있다. 정의읍성의 지적도와 현지 조사에 의하면, 읍성의 규모는 동서 160m 남북 140m로 둘레가 약 1,200m이며, 전체적인 형태는 귀족은 방형이다. 성문은 동·서·남 3문이 있고, 남문과 서문에는 웅성 터가 있다. 치성은 9개소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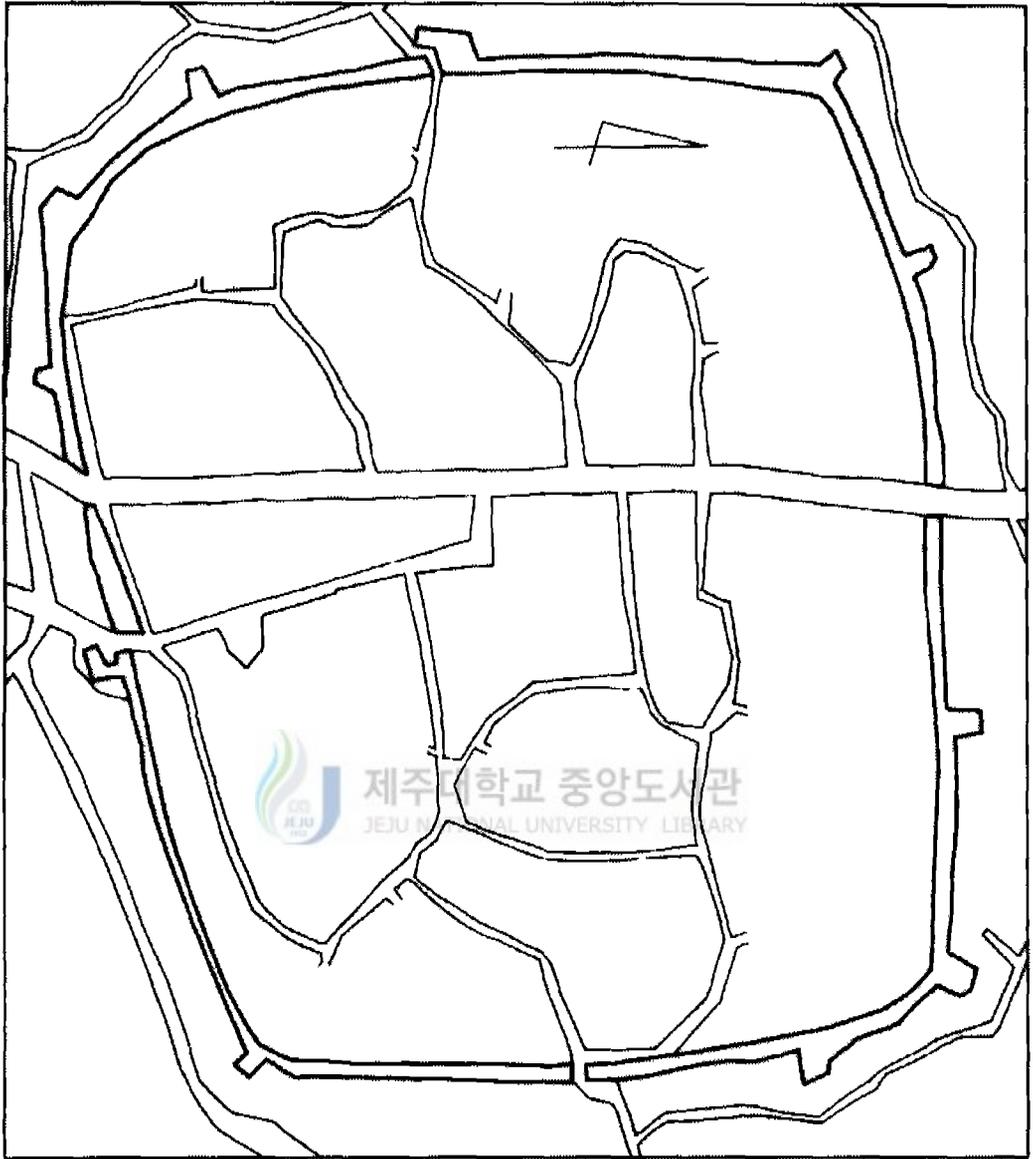
정의읍성의 성곽의 보존상태는 대부분 양호하나, 그 중에서도 동측과 서측의 성벽이 가장 양호하게 남아 있다. 읍성 성벽의 높이는 외벽이 3.1m~3.6m, 내벽이 2.5m이다. 치성의 둘레는 10.6m~25m이고, 높이는 성벽의 외벽 높이와 유사하다. 서문과 남문에는 최근에 문루가 복원되었다. 동문지는 민가로 그 형태를 확인할 수 없지만, 주초석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성벽의 상부에는 미석과 여장이 최근에 일부 복원되었다.

정의읍성은 현무암을 거칠게 장방형과 정방형으로 다듬질하여 가로 쌓기와 모쌓기를 병행하여 外面을 맞추어서 축조하였다. 그리고 읍성의 동측 성벽 하부와 상부 城石은 크기가 거의 비슷하지만, 서측 성벽은 하부 1~3단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잔돌 쌓기를 하여 축조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벽은 석축으로 협축하였고, 외벽의 기울기는 직선형 성벽으로 단경사를 이루고 있다. 치성은 성벽을 축조한 후 성벽에 덧대어 축조하였다.

조선시대 숙종 28년(1702) 李衡祥 목사가 제주 도내를 순력할 때 그린 『耽羅巡歷圖』중 「旌義操點」에는 정의읍성의 성내에 관아·객사·창고·문묘 등 주요 건물과 3개의 성문의 위치가 잘 나타나 있다.

최근 발굴조사를 통하여 정의읍성의 객사터가 확인되었고, 그 외에 다수의 건물 터가 조사되었다. 그리고 다수의 명분기와와 청자·분청사기·백자편 등이 출토되었다.¹⁰⁵⁾

105) 南濟州郡·濟州大學校博物館(1995), 『旌義縣 客舍址』.



0 50m

〈정의읍성 지적도〉

3) 대정읍성

(1) 읍성의 축조

대정읍성은 조선시대 대정현의 관아를 둘러싼 성이다. 대정현의 연혁과 경계에 대해서는

- ㉠. 대정현은 동쪽으로 정의현 경계까지 57리, 남쪽으로 바다까지 10리, 서쪽으로 제주 경계까지 37리, 북쪽으로 제주 경계까지 32리이다.
대정현은 본래 제주의 西道이다. 조선 태종 16년에 현감을 두었다.¹⁰⁶⁾
- ㉡. 西道の 현감은 대정현으로 본 읍을 삼고 예래현·차귀현 등 2현을 소속시키며(후략).¹⁰⁷⁾

라고 하였다. ㉠에 의하면 대정현은 조선 태종 16년(1416) 안무사 吳滌의 건의에 따라 한라산 남쪽의 서쪽 지역에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기록을 종합하면 대정현의 경계는 동쪽으로 정의현과 57리, 남쪽으로 바다와 10리, 서쪽으로 제주목과 37리, 북쪽으로 제주와 32리이다. 그리고 예래현·차귀현 등 2현이 대정현에 포함되어 있다.

대정읍성에 관한 주요 문헌기록은 다음과 같다.

- ㉢. 河澮의 기에 “무술년 여름 5월에 용무가 있어 이 현에 왔더니 현감 俞信군이 술을 내어 위로 하며 말하기를 ‘당신은 이 현이 설치된 유래를 아십니까. 인녕부윤 안무사 오식 공이 섬을 안무할 때 산 남쪽이 멀고 도적에 대한 방어가 허술함을 (중략) 조정에 아뢰니 왕께서 깊이 그 령다 하여 곧 명하여 병부에 나누었습니다.(중략) 지금의 안무사 분성 이간 공이 뒤를 이어 통첩하기를 성을 단단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한 두 유지와 함께 이 언덕을 두루 돌아보며 땅을 헤아리고 위치를 정하니 고을의 장정들이 자식처럼 와서 일을 하여 한 달이 채 못되어 성이 이루어졌습니다.’”고 하였다.¹⁰⁸⁾
- ㉣. (대정)읍성은 石築으로 그 둘레가 1,179보이다.¹⁰⁹⁾
- ㉤. 성 내외를 빙 둘러서 濠(해자)를 너비가 10자, 깊이가 7자로 파고, 밖에는 탕자나무를 심었다.¹¹⁰⁾

㉠의 기록은 대정읍성의 축조과정에 관한 내용이다. 태종 18년(1418) 4월에 현감 俞信

106) 『新增東國輿地勝覽』大靜縣 建治沿革條.

東至旌義界五十七里 南至海十里 西至濟州界三十七里 北至同州界三十二里 本濟州西道本朝 太宗十六年始置縣監.

107) 『太宗實錄』太宗 16年 5月 丁酉條.

西道縣監 以大靜縣爲本邑 屬以狹來縣遮歸縣等三縣(後略).

108) 李元鏞, 『耽羅志』大靜縣 城郭條.

河澮記 戊戌夏五月 以事來茲縣 縣宰俞信君置酒以慰之 曰子知縣所由談乎 今仁寧府尹吳公湜安撫是島也 乃念山陽道途之遐阻禦寇之(中略)聞于朝 上深然之即命分符余始至也(中略)今按撫盆城李公味繼至爰曰 城郭不可不固 於是與一二父老周巡于斯 原度土卜地民之爲丁者 子來赴功不月而城成(後略).

109) 『世宗實錄』地理志, 卷151:邑城石築 周回一千一百七十九步.

110) 『濟州邑誌』.

城樣表裡如削 環城有濠 濠十尺深七尺 外有枳樹.

이 마을 유지와 함께 현재의 인성·안성·보성 등 3개 마을에 걸친 지역을 택하여, 읍성을 축성하였다. 축조 당시 성곽의 규모는 둘레가 1,179보임을 ㉠의 기록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에서는 대정읍성을 빙 둘러서 너비 10자, 깊이 7자 규모의濠를 축조하고, 성밖에는 탕자나무를 심었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대정읍성에 해자를 설치했음을 의미한다. 대정읍성의 규모와 시설의 변천을 문헌 기록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3-3>과 같다.

<표 3-3> 대정읍성의 규모와 시설현황

책자명	주요내용
『世宗實錄地理誌』	周 1,179步
『新增東國輿地勝覽』	周 2,647尺, 高 28尺
『南槎錄』	周 2,800餘尺, 高 10尺, 4門, 門上譙樓, 城內1井
『耽羅志』	周 4,890尺, 高 17尺4寸
『東國輿地志』	周 4,890尺, 有門
『濟州邑誌』	周 4,090尺, 高 17尺4寸, 女堞 240개, 濠(해자)濶 10척·深 7척, 연못 周 22丈·深 4尺, 우물 周 4丈·深 6丈8尺
『濟州大靜旌義邑誌』	周 3,200餘步, 高 17尺4寸, 女堞 240, 동서남 3문
『耽羅誌草本』	周 4,890尺, 高 17尺4寸, 女堞 180, 동서남 3문
『大靜郡邑誌』	周 4,890尺, 高 17尺4寸, 女堞 155, 동서남 3문
『增補文獻備考』	周 4910尺, 高 17尺4寸, 堞 214, 瓮城 4, 雉堞 4, 연못·우물 각 1개소

<표 3-3>에서 보듯이, 대정읍성 성곽의 규모는 문헌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世宗實錄地理誌』에 나타난 대정읍성의 둘레 1,179보를 자로 환산하면¹¹¹⁾ 4,700자이다. 따라서 대부분 읍성 성곽의 둘레가 4,700자~4,910자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新增東國輿地勝覽』과 『南槎錄』에 기록된 읍성의 둘레는 2,600자~2,800자로 2,000자의 오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바로 用尺의 기준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濟州大靜旌義邑誌』에 나타난 대정읍성의 둘레 3,200보도 用尺이 달랐기 때문에 차이가 생긴 것이다. 이와 같이 문헌별로 대정읍성의 성곽 둘레의 차이는 용척과 그 기준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대정읍성의 높이는 대부분 기록이 17자 4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읍성의 높이는 『新增東國輿地勝覽』에 28자, 『南槎錄』에 10자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성곽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은 것은 성곽 높이를 측량하는 기준과 用尺의 기준치 차이인지 분명하지 않다.

대정읍성의 성문은 축조 당시의 기록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南槎錄』에는 4개소로 되어 있다가 그 이후의 기록인 『濟州大靜旌義邑誌』에는 3개소로 되어 있다. 이는 바로

111) 註80) 참조.

축조 당시에 성문을 4문을 축조하였다가 18세기 이후에 북문을 폐쇄하여 3문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정읍성을 축조할 지역을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우물은 축조 당시에는 없었으나, 17세기 초에 편찬된 『南槎錄』에는 1개소가 있다고 하였다. 이 우물은 가물면 말라버리므로 대정현 관아의 남쪽 5리쯤에 있는 杷古泉에서 물을 길어왔다.¹¹²⁾ 이러한 이유로 대정읍성의 이설이 자주 논의되었다.¹¹³⁾

대정읍성의 女塼도 축조 당시에는 기록이 없다가 18세기 중엽에는 155개소가 축조되어 최대 240개소까지 증설되고 있다. 이는 바로 제주, 정의읍성과 마찬가지로 대정읍성의 성곽을 먼저 축조한 후에 시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정읍성 성곽의 대표적인 부속 시설인 해자와 웅성, 雉堞은 19세기 이전에 모두 설치되었다. 읍성의 웅성은 성문을 보호하는 시설로 4개소가 축조되어 있으나, 이 당시에 성문이 3개소임을 감안한다면 설치된 웅성의 수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유적 현황

대정읍성은 현재 남제주군 대정읍 보성리·안성리·인성리 등 3개 마을에 걸쳐 있다. 대정읍성의 지적도와 현지 조사에 의하면, 읍성의 성곽은 동서를 장축으로 하는 장방형에 가까운 형태로 그 둘레는 약 1,260m이다. 성문은 동·서·남에 3문이 있고, 6개의 치성이 있다. 성내 도로망은 우리 나라 읍성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T”자형 主道路를 만들어 여기에 보조도로를 활꼴 수법으로 축조하여, 막힌 골목을 만들어 街區分割하였다.¹¹⁴⁾

대정읍성 성곽의 보존 상태는 대부분 원형대로 남아 있으며, 그 중에서도 북측 성벽은 전체적으로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읍성의 북측 성벽의 외벽은 높이가 2.8m~3.7m, 내벽은 2.7m~3.6m이고, 폭은 2.7m~3.1m이다. 그리고 미석의 일부가 남아 있다. 치성은 상부가 대부분 훼손되어 높이는 알 수 없지만, 그 둘레가 34.6m~42.8m이다. 그리고 동·서·남쪽의 문지와 웅성은 심하게 훼손되어 그 형태를 확인할 수 없으나, 동문의 웅성은 기초석이 3~4단 정도 남아 있다.

대정읍성의 축조방식은 현무암을 거칠게 장방형과 정방형으로 다듬길하여 가로 쌓기와 모쌓기를 병행하여 外面을 맞추어 축조하였다. 그리고 치성은 성벽을 축조한 후 성벽에 덧대어 축조하였다. 성벽은 石築으로 협축하였고, 외벽의 기울기는 직선형 성벽으로 단경사를 이루고 있다.

조선시대 숙종 28년(1702) 李衡祥 목사가 제주도를 순력할 때 그린 『耽羅巡歷圖』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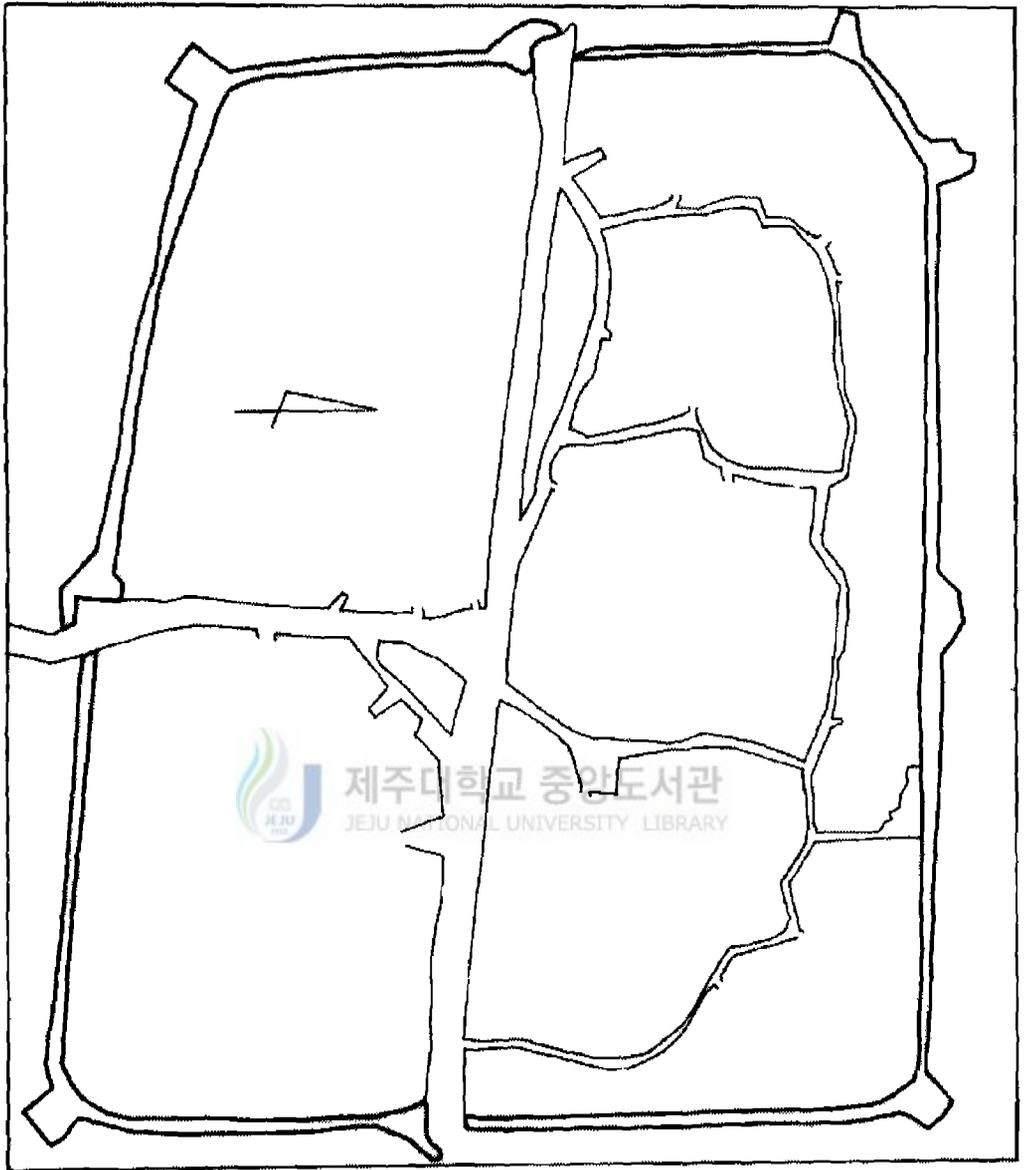
112) 金尙憲, 『南槎錄』,

中有一井 旱即枯 縣南有杷古泉(距城五里) 若遇旱 城中人 皆取汲于此云.

113) 『世宗實錄』 世宗 12년 6월 癸酉條.

『中宗實錄』 中宗 12년 9월 甲申條.

114) 김봉옥·신석하(1996), 전계서, pp.56~64.



〈대정읍성 지적도〉

「大靜操點」에는 대정읍성의 성중에 관아·객사·군기고·향청·질청 등 주요 건물과 3개 성문의 위치가 잘 나타나 있으나, 지금은 당시의 건물의 원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2. 진 성

鎭은 삼국시대 말기부터 조선시대까지 설치되어 屯田兵이 주둔하던 무장성곽 도시 또는 군사적 지방행정 구역이다. 시기별로 鎭의 설치 목적이 다소 다르지만, 북방의 변경과 해안지대에 구축되었다. 즉 鎭은 신라 말기 상업상 필요에 의하여 처음 설치되었고, 고려 시대에는 무장성곽 도시 또는 지방행정 구역으로 존재하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순수한 군사적 거점지역의 성격으로 설치되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북방의 변경에 못지 않게 남방 연변에도 많이 設鎭되어 築城되었다. 이는 바로 鎭이 왜구의 침입을 방어할 목적으로 설진되었기 때문이다.¹¹⁵⁾

제주도에는 왜구의 침입을 방어할 목적으로 防護所(鎭)¹¹⁶⁾가 설치되었다. 제주 3읍체제가 정비되면서 읍성이 축조·개축됨과 더불어 9방호소와 22봉수도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¹¹⁷⁾ 그리고 세종 21년(1439) 제주 도안무사 韓承舜의 건의로 방어시설이 대대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에 수산·차귀방호소에 진성이 축조되었다. 그리고 중종 5년(1510)에 장림 목사는 성곽이 없던 제주목의 조천관포·김녕포·애월포·명월포, 정의현의 서귀포, 대정현의 동해포에도 진성을 축조할 것을 건의하였고,¹¹⁸⁾ 이에 따라 일부의 방호소에는 진성이 축조되었다. 또한 삼포왜란·을묘왜변, 임진왜란을 겪는 동안 해안의 방어가 강화됨에 따라 제주도에도 진성이 계속 축조·정비되었다.

1) 화북진성

(1) 진성의 축조

화북진성에 관한 주요 문헌기록에는

- ㉠. 화북포에는 판옥전선이 중부, 좌부, 우부에 각각 1척씩 있다. 비상양곡이 6석, 격군 180명, 사포 87명이 있다(후략).¹¹⁹⁾
- ㉡. 화북진은 州의 동쪽 10리에 있고, 숙종 무오년에 崔寬 목사가 화북진을 창설하였다. 성의 둘레는 303보, 높이 10자, 동서 양문이 있다. 성내에는 객사, 군기고가 있으며 조방장 1인이 있다(후략).¹²⁰⁾

1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1권, p.395.

116) 김상욱(1997), 전개서, p.67에서, 제주도에서 「鎭」과 「防護所」가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고 하였다. 읍지류와 제주지방 관련 문서에는 鎭으로 표기되어 있고, 褒貶의 啓聞에는 반드시 防護所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濟州啓錄』에는 혼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117) 『世宗實錄』 世宗 21년 閏2월 壬午條.

118) 『中宗實錄』 中宗 5년 9월 己巳條.

119) 李元鎭, 『耽羅志』 濟州牧 水戰所條.

禾北浦 有板屋戰船 中部左部右部各一隻 待變糧六石 格軍一百八十名 射砲八十七名(後略).

120) 李源祚, 『耽羅誌草本』 卷2, 鎭堡條.

禾北鎭 在州東十里 肅廟戊午牧使崔寬創設 城周三百三步 高十尺 東西兩門 城內有客舍 軍器庫 助防將 一人(後略).

㉔. 왜적이 화북포에 침입하여 제주성을 3일 동안 포위하였다. 金秀文 등이 힘껏 항거하다가 적의 퇴각을 기다려 輕銳를 거느려 추격하여 대파하고(후략).¹²¹⁾

라고 하였다. 화북포는 조선시대 제주의 대표적인 수전소로 방어의 요새였다. ㉔에는 화북 수전소에 있던 판옥전선, 비상양곡과 병력의 현황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㉔의 기록으로 보아 제주성을 침입하기 위한 주된 통로가 화북 포구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제주성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있는 화북 수전소에 축성이 필요했다. 따라서 ㉔의 기록에 의하면, 화북진성은 숙종 4년(1678)에 崔寬 목사에 의해 둘레 303보, 높이 10자로 축조되었고, 조방장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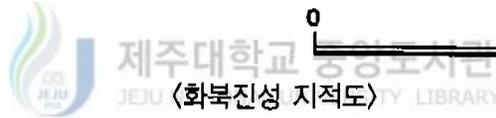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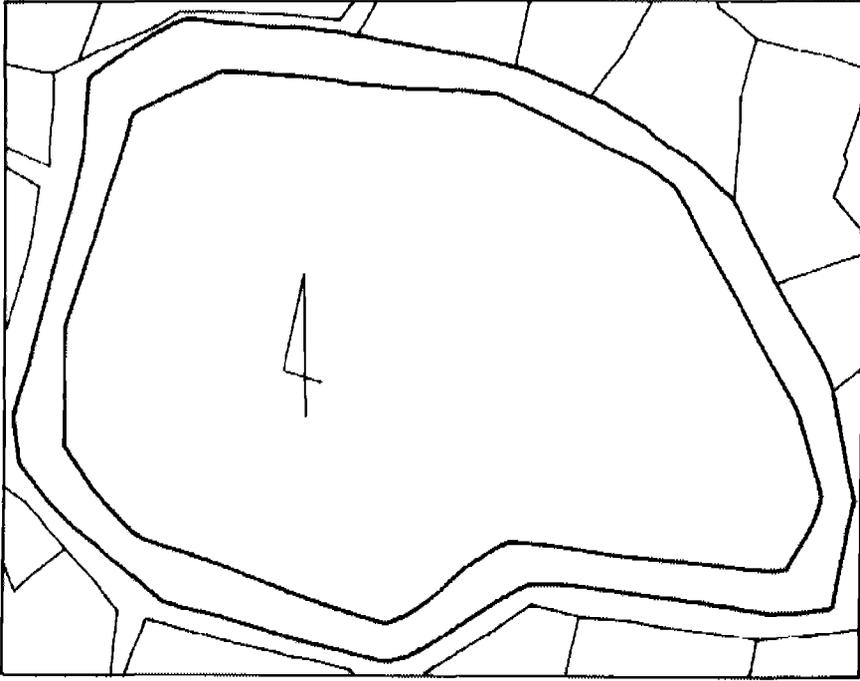
진성의 규모와 시설을 주요 문헌별로 정리하면 <표 3-4>와 같다.

<표 3-4> 화북진성의 규모와 시설현황

책자명	주요내용
『濟州邑誌』	周 606尺, 高 12尺, 東西兩門
『濟州大靜旌義邑誌』	周 303步
『耽羅誌草本』	周 303步, 高 10尺, 東西兩門

<표 3-4>에서 보듯이, 『濟州邑誌』에는 진성의 둘레가 606자, 높이가 12자이다. 『濟州大靜旌義邑誌』와 『耽羅誌草本』에는 둘레가 303보, 높이 10자로 되어 있다. 이는 바로 진성의 규모가 축소된 것이 아니라, 用尺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성문은 축조 당시부터 있던 동문과 서문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21) 金錫翼(1915), 『耽羅紀年』 明宗 10年 夏6月條.
倭賊來侵 金秀文等 擊破之時 (中略) 因來犯禾北浦 (州東) 圃州城三日 金秀文等 力拒之竣 其退率輕銳 追擊大破(後略).



(2) 遺蹟現況

화북진성은 해발 1~4m의 완만한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화북진성의 지적도와 현지 조사에 의하면, 진성의 규모는 동서 120m, 남북 75m로 그 둘레가 187m인 타원형의 형태이다. 성문은 동문과 서문이 있었지만, 지금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화북진성의 보존상태는 축성 당시의 성곽이 187m정도 현존하고 있으며 그 높이는 1.5m~3.8m이고, 城上의 폭은 0.7~1.5m정도다. 1926년 화북국민학교 개설 당시에 진성의 성곽을 학교의 울타리로 이용하면서 대부분 보수하였지만 부분적으로는 축성 당시의 원형이 남아 있다. 진성의 성곽 북쪽은 폭 5m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해안과 접해 있다. 이는 바다를 매립하여 도로를 개설하였기 때문이다. 진성을 축성할 당시에는 북쪽의 성곽은 해안과 접해 있었다.

화북진성의 축조 방법은 제주산 현무암을 거칠게 다듬어 허튼층 쌓기로 협축에 잡석채움을 하고 있다. 외벽의 기울기는 弓形¹²²⁾에 가까운 직선형 성벽으로 단경사를 이루고 있다.

122) 孫永植(1987), 전계서, pp.178~184에서 “弓形은 성벽의 외측으로 배가 부른 형태이다. 즉 성벽 하단은 급경사이고, 상단은 완경사 형태인 성벽으로 언뜻보아 활처럼 휘어지게 보여 붙여진 이름이다. 궁형은 축조 당시의 형태라기 보다는 오랜 기간 성 내부의 土壓으로 인하여 변형된 모습”으로 보고 있다.

조선시대 숙종 28년(1702) 제주목사 李衡祥이 화북진성을 순력할 때 그린 『耽羅巡歷圖』의 「禾北城操」에는 진성의 북측 성벽이 해안과 접해 있으며 건물도 8채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시 건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진성 내에서 건물의 주초석 11점이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와편·분청사기·백자·청화백자 등이 발견되었다.¹²³⁾

2) 조천진성

(1) 진성의 축조

조천진성에 관한 주요 문헌기록에는

- ㉠ 도내에 군이 주둔하는 곳은 본주의 동쪽은 김녕, 조천관이고(후략).¹²⁴⁾
- ㉡ 조천관 방호소는 州의 동쪽 26리에 있고, 조천관 포구에 수전소가 있다.¹²⁵⁾
- ㉢ 교수 郭期壽의 「重創記」에 “館은 타라의 동쪽 25리의 포구에 있는데, 육지로 나가는 사람들이 풍향을 관측하는 곳이다. 조천이라는 이름도 이러한 까닭이다. 절제사 李沃 候가 부임한 다음 해인 경인년에 막부 제공과 협의한 후, 아전과 주민에게 ‘조천에 관을 둔 것은 이 곳이 실로 도적들이 왕래하는 길목을 지키는 요충지이며, 왕명을 받는 곳이기 때문인데, 이같이 성이 좁고 집은 노후 할 수 있는가. 농사 짓는 틈틈이 개축하여 화려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자 모두 옳다고 하였다. 이에 휘하에 있는 전 부장 徐萬鎰이 주관하여 애를 쓰니 10월에 착공하여 설달에 마쳤다. 성은 동북쪽으로 물러서 쌓고 그 위에 다락을 안치하여 쌓벽이라 하였다(후략).¹²⁶⁾
- ㉣ 사면이 바다에 둘러 海潮가 물러가면 한쪽은 육지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擧橋를 만들어 이것으로 성문을 통했다. 그리고 맑고 적은 사람들이 항해하여 왕래할 때 待風하는 곳이다. 그래서 방호소가 설치되었고, 조방장을 두었다. 성의 둘레는 428자, 높이가 9자이다.¹²⁷⁾

라고 하였다. ㉠과 ㉡의 기록을 보면, 조천진은 조선 초기부터 조천 방호소와 조천포 수전소가 있던 방어의 요충지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육지에서 온 경래관의 출입이 잦

123) 이청규·강창언(1988), 「禾北城址 地表調査報告」, 「禾北浦口地表調査報告」, 제주시·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24) 『世宗實錄』世宗 21年 閏2月 壬午條, 濟州都安撫使韓承舜啓曰(中略) 道內軍人屯戍之處 則本州東則 金寧·朝天館(後略).

125) 『新增東國輿地勝覽』濟州牧 關防條, 朝天館防護所 在州東二十六里, 朝天館浦口水戰所.

126) 李元鎰, 『耽羅志』濟州牧 防護所條, 教授郭期壽重創記 館在毛羅之東二十五里許 海口乃出陸人 候風之所也 命名曰朝天以此也 節制使李候沃 剖符之明年 卽庚寅歲也 李塚謀於幕府 諸公問于吏民曰 朝天之爲館 實賊路之要衝 使命之所舍而若是乎 城子迫隘 屋宇凋殘 蓋於農隙 改搆而壯麗焉 皆曰諾於是 命麾下前部將徐萬鎰主其事舉動幹也 遂掄詳才 役子來經始於良月 告訖於季冬城子 則退築東北上 安謙樓 其名雙碧(後略).

127) 李益泰, 『知瀛錄』, 四面環海 海潮退則 一方連陸 因作擧橋 以通城門此乃 大小人員 航海往來時待風所也 設防護所 置助防將 城周四百二十八尺 高九尺.

있던 포구이므로 진성을 개축하게 되었다.

㉠은 조천의 유래 및 조천 진성의 축조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즉 朝天은 天子의 나라에 조회하러 나간다는 의미로 왕명을 받는 곳이다. 그리고 육지로 나가는 사람들이 풍향을 관측하는 곳에서 유래된 것 같다.

또한 조천진성은 절제사 李沃 候가 부임한 다음 해인 선조 23년(1590) 여러 공들과 협의하여 개축하였다. 그 일은 전 부장 徐萬鎰이 맡아 10월에 착공하여 겨울에 마쳤는데, 성곽을 동북쪽으로 퇴축하고 초루를 축조하였다. 결국 조천진성은 선조 23년(1590) 이전에 축조되었고, 이 때 성곽을 동북쪽으로 확장하면서 성 내의 건물을 축조하는 등 재정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진성에 攀橋가 시설되어 있었다는 것을 D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성 주위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 이를 건너기 위한 교량 시설이 필요하였다.

조천진성의 규모 및 시설에 대한 각종 문헌에 기록된 내용을 정리하면 <표 3-5>와 같다.

<표 3-5> 조천진성의 규모와 시설현황

책자명	주요내용
『南槎錄』	周 430餘尺, 高 10尺, 東 1門
『耽羅志』	周 428尺7寸, 高 9尺1寸, 東 1門
『濟州邑誌』	周 428尺, 高 7尺, 南置 1門
『濟州大靜旌義邑誌』	周 240步
『耽羅誌』	周 428尺7寸, 高 9尺1寸, 東門 1門
『濟州郡邑誌』	周 428尺7寸, 高 9尺1寸, 東門 1門
『耽羅誌草本』	周 240步, 高 9尺, 1門

조천진성이 개축된 후에 가장 빠른 기록인 『南槎錄』에 나타난 진성의 규모는 둘레가 430자, 높이가 10자로 되어 있다. 그 후에 진성의 규모는 큰 변화가 없다. 다만 『濟州大靜旌義邑誌』와 『耽羅誌草本』에는 성곽의 둘레가 240보, 높이가 9자로 되어 있다. 이것은 용척의 차이이지 규모의 차이가 아니다.

조천진성의 성문도 東門 1門만 축조된 것으로 보이며, 『濟州邑誌』에 '남쪽에 1문을 설치하였다. (南置一門)' 라고 한 것은 동문을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2) 유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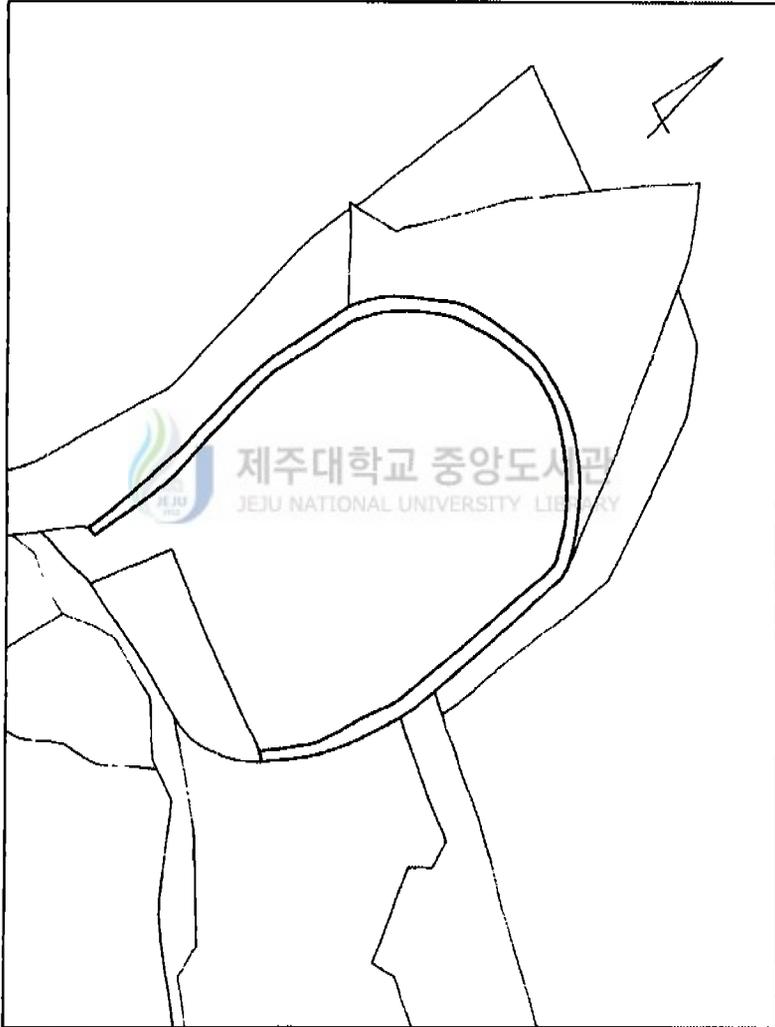
조천진성은 해발 1~2m의 완만한 경사면에 南高北低의 지형 위에 위치하여 있으며, 진성의 북측은 해안에 접해 있다. 조천진성의 지적도와 현지 조사에 의하면, 진성의 평면 형태는 남북을 장축으로 한 타원형이며 그 둘레는 128m정도이다.

조천진성은 대부분이 원형대로 남아 있다. 이 진성의 남측 성벽 위에는 북녘의 한양을 바라보며 임금의 정을 사모한다는 戀北亭이 있다. 성문은 축조 당시에 동문 1문으로 되어 있었으며 지금도 동문지가 남아 있다. 성곽은 외벽 높이가 2.2~4.3m, 상부 폭이 1.6~

3.1m이다.

조천진성의 축조방식은 제주도 현무암을 거칠게 다듬어 허튼층 쌓기로 협축으로 축조하였으며, 외벽의 기울기는 거의 직선형 성벽으로 단경사를 이루고 있다.

조선시대 숙종 28년(1702) 제주목사 李衡祥이 조천진성을 순력할 때 그린 『耽羅巡歷圖』의 「朝天操點」에는 진성 가운데에 연복정, 군기고 등 5동의 건물이 있었으나 지금은 연복정을 제외한 당시 건물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없다. 그리고 『耽羅巡歷圖』의 「朝天操點」에는 진성의 堞堞도 확인되지만, 이와 관련된 문헌 기록과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0 50m

〈조천진성 지적도〉

3) 별방진성

(1) 진성의 축조

별방진성에 관한 문헌 기록에는

- ㉠ 도내에 군이 주둔하는 곳으로 본주의 동쪽에는 김녕, 조천관이 있고(후략).¹²⁸⁾
- ㉡ 김녕포 방호소는 주의 동쪽으로 51리에 있고, (중략) 김녕포 수전소는番禺을 나누어 지켰다.¹²⁹⁾
- ㉢ 북쪽 성벽에 待變廳이 있으며, 중앙에 객사·別倉·군기고가 있다. 正德 景오년에 張琳 목사가 이곳은 우도의 왜선이 가까이 댈 수 있는 곳이라 하여 축성하였고, 김녕 방호소를 이리로 옮겨 별방이라고 불렀다.¹³⁰⁾
- ㉣ 성은 모래 자갈이 깔린 바닷가에 있는데, 둘레는 2,390자, 높이가 7자, 堞가 139개소, 격대가 7개소, 동서남 3개의 문이 있다. 복수구로는 조수가 드나들어 객관 뒤에 작은 못을 뚫어 놓았다. (중략) 城池와 器械가 所(진성)중에서는 가장 크다.¹³¹⁾

라고 하였다. 즉 조선 초기의 기록인 ㉠, ㉡과 ㉢을 종합하면, 주의 동쪽 51리에 김녕방호소와 김녕수전소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그 후 중종 5년(1510)에 張琳 목사가 우도에 왜선이 자주 정박하므로 이를 경계하기 위하여 김녕방호소를 별방으로 옮겨 진성을 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은 별방진성의 위치와 성곽의 부대시설에 대한 내용이다. 즉 별방진성의 북측은 해안과 접해 있어 성내로 해수가 드나들었고, 성곽의 부대 시설인 타첩이 139개소, 격대가 7개소, 동·서·남 3문이 있었다. 또한 도내 진성 중에서는 성의 규모가 가장 크고 무기류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별방진성의 규모와 시설에 대하여 각종 문헌에 기록된 내용을 정리하면 <표 3-6>과 같다.

128) 『世宗實錄』 世宗 21年 閏2月 壬午條.

濟州都安撫使韓承舜啓曰(中略)道內軍人屯戍之處 則本州東則 金寧·朝天館(後略).

129) 『新增東國輿地勝覽』 濟州牧 關防條.

金寧浦防護所 在州東五十一里(中略)金寧浦口水戰所 分番守戍.

130) 李元鎮, 『耽羅志』 濟州牧 防護所條.

北城有待變廳 中有客舍別倉軍器庫 正德庚午 牧使張琳 以此地爲牛島倭船泊近處 築城移金寧防護所于此 號別防.

131) 李益泰, 『知瀛錄』.

城在於沙碇之邊 周二千三百九十尺高七尺堞一百三十九 擊臺七 東西南三門 北水口潮水出入 仍鑿小也 於客館後(中略)城池器械 所中最巨鎮也.

〈표 3-6〉 별방진성의 규모와 시설현황

책 자 명	주 요 내 용
『新增東國輿地勝覽』	周 2,390尺, 高 7尺, 東北 2門
『南槎錄』	周 2,390尺, 高 7尺, 東南北 3門
『耽羅志』	周 2,390尺, 高 7尺, 東南西 3門
『知瀛錄』	周 2,390尺, 高 7尺, 壕 139, 擊臺 7, 東西南 3門
『濟州邑誌』	周 2,890尺, 東南西 3門, 城中 2泉
『濟州大靜旌義邑誌』	周 1,081步
『耽羅誌草本』	周 1,081步, 高 7尺, 東南西 3門
『耽羅誌』	周 2,390尺, 高 7尺, 東南西 3門, 有泉
『濟州郡邑誌』	周 2,390尺, 東南西 3門, 城中 2泉

〈표 3-6〉에서 보듯이,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진성의 규모는 둘레 2,390자, 높이 7자로 축조되었다. 그 후에도 진성의 규모는 커다란 변화가 없다. 다만, 『濟州邑誌』에 진성의 둘레가 2,890자라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濟州大靜旌義邑誌』와 『耽羅誌草本』에 진성의 둘레가 1,081보로 기록된 것은 성곽 규모의 차이가 아니라 用尺의 차이로 보인다.

별방진성의 성문은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동문·북문, 『南槎錄』에 동문·남문·북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진성의 성문은 『耽羅志』부터 동문·서문·남문으로 되어 있다. 다만 성문은 동·서·남·북으로 4문을 개설한다는 점¹³²⁾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3문이 개설된 것 같다. 그리고 성문은 『耽羅志』이후부터 북문이 폐쇄되고 서문이 신설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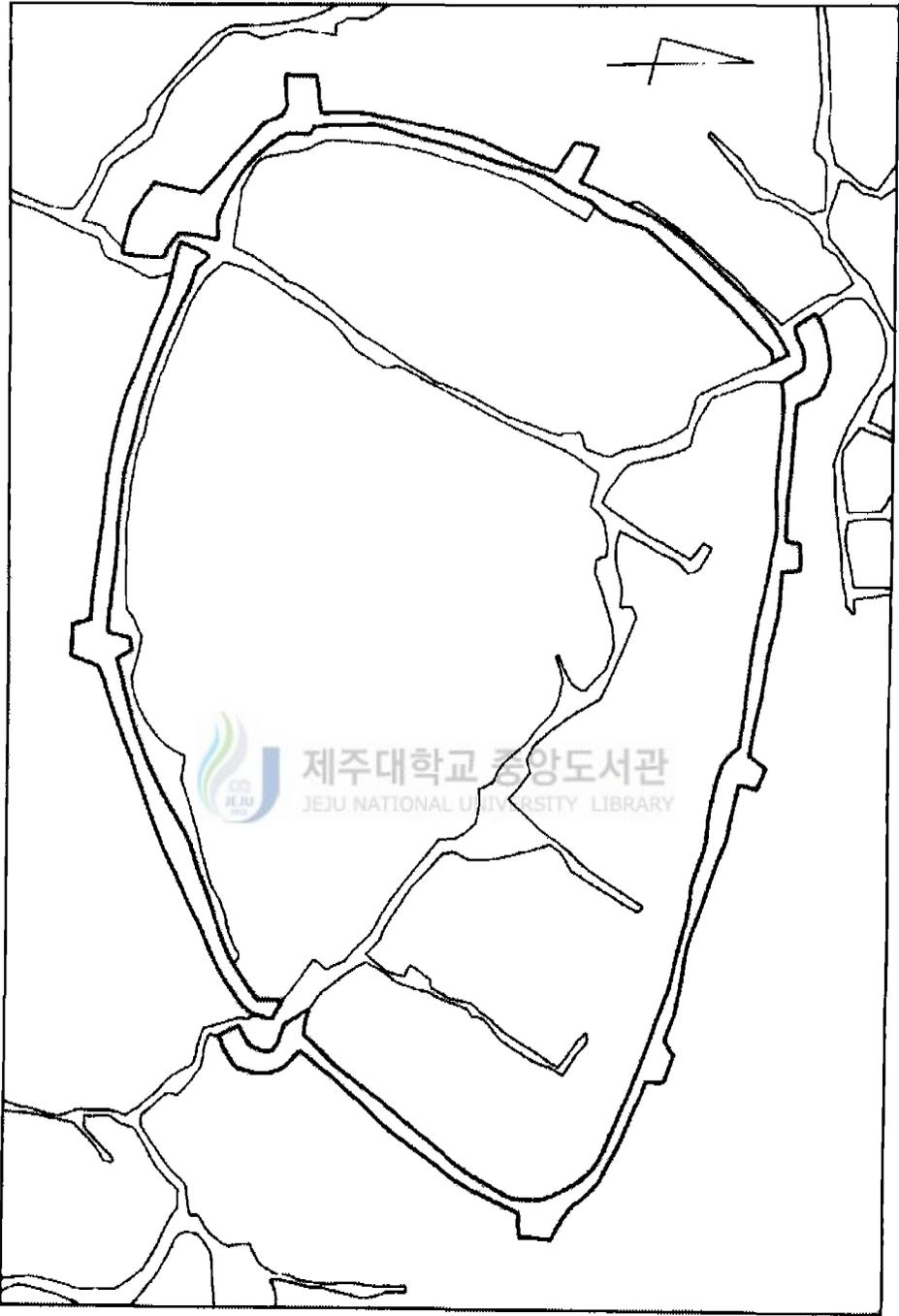
별방진성에 성곽의 부속시설인 타첩 139개소, 격대 7개소가 설치된 시기는 제주 도내의 읍성과 유사하게 17세기 무렵이다. 그리고 18세기 중엽에는 진성의 성내에 2개의 샘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2) 유적현황

별방진성은 전체적으로 보아 南高北低의 지형에 위치하여 있고, 진성의 북측은 해안과 접해 있다. 별방진성의 지적도와 현지 조사에 의하면, 진성의 둘레는 960m 정도이며 타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다. 그리고 동·서·남 3문에는 웅성이 있으며 치성은 7개소가 있다.

동문지와 서문지를 잇는 북측의 성벽은 대부분 허물어져 없어지거나 변형되었지만 남문지에서 서문지를 잇는 성벽 일부는 원형대로 보존되고 있다. 왜냐하면 동문지와 서문지에는 민가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다만 남문지는 웅성만 훼손된 상태로 남아 있다. 7개의 치성 중 동문과 서문 사이에 있는 2개소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나머지 5개소는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성벽의 상부는 대부분 훼손되어 높이를 알 수는 없지만, 성벽하단의 內壁警備路 높이가 1.5~1.8m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성곽의 높이는 3~4m 정

132) 孫永植(1987), 전계서, p.120.



0 100m

〈별방진성 지적도〉

도로 추정된다.

별방진성의 축조방식은 제주도 현무암을 거칠게 다듬어 허튼층 쌓기로 협축하였다. 외벽의 기틀기는 직선형 성벽으로 단경사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옹성의 축조는 성벽과 일체식으로 하였고, 치성은 성벽을 축조한 후 덧쌓는 방법으로 축조하였다.

조선시대 숙종 28년(1702) 李衡祥 제주목사가 별방진을 순력할 때 그린 『耽羅巡歷圖』의 「別防操點」에 진성의 가운데에 客舍, 東倉 등 건물과 堞堞이 그려져 있다. 지금은 당시 건물의 위치와 타첩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마을 원로들이 “미석과 타첩이 있었다.”고 증언¹³³⁾하는 것으로 보아 최근에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별방진성의 성내와 그 주변지역에서 기와편, 분청사기·백자·청화백자 등이 발견되고 있다.

4) 애월진성

(1) 진성의 축조

애월진성에 관한 주요 문헌기록에는

- ㉠ 도내에 군이 주둔하는 곳은 본 주의 서쪽은 도근천, 애월, 명월입니다(후략).¹³⁴⁾
- ㉡ 애월목성은 주의 서쪽 42리에 있고, 삼별초가 축성하였으나 지금은 반이 퇴락 하였다.¹³⁵⁾
- ㉢ 애월포 방호소는 주의 서쪽 42리에 있고, 애월포구에 수전소가 있다.¹³⁶⁾
- ㉣ 북면은 바다에 접해 있고, 포구에 배를 정박하는 곳은 가장 평온하고 장애 되는 것이 없다 (중략). 성 안이 낮고 좁으며 우물과 저장할 양식이 없어서 왜적이 침입하면 방어하기가 어렵다.¹³⁷⁾
- ㉤ 애월진은 州의 서쪽 40리에 있다. 예전에 목성이 있었는데, 본래 삼별초가 쌓아서 관군(여·몽 연합군)을 방어하던 곳이다. 선조 14년에 金泰廷 목사가 석성으로 개축하였다(후략).¹³⁸⁾

라고 하였다. 애월진은 고려 원종때 삼별초가 관군을 방어하기 위하여 축조한 애월목성이 있던 곳이다. ㉠과 ㉡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초기에 애월에는 방호소와 수전소를 설치하여 군인을 주둔시켰다. ㉢과 ㉣에서는 선조 14년(1581)에 金泰廷 목사가 목성을 석성으로 개축하였지만, 성안이 좁고 우물이 없어서 방어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3) 복제주군(1993), 『別防鎮 地表調査 報告書』, p.26.

134) 『世宗實錄』世宗 21年 閏2月 壬午條, 濟州都安撫使韓承舜啓曰(中略)道內軍人屯戍之處 則本州西則 都近川·涯月·明月(後略).

135) 『新增東國輿地勝覽』濟州牧 古跡條, 涯月木城 在州西四十二里 卽三別抄所築 今半頽落.

136) 『新增東國輿地勝覽』濟州牧 關防條, 涯月浦防護所 在州西四十二里, 涯月浦口水戰所.

137) 朴天衡, 『濟州巡撫御使書啓』, 『書啓輯錄』, 권4, 규장각 15083-4, 涯月防護所 在濟州西四十里 北面臨海 浦口船泊處 最爲平穩無碍(中略)而城內湫隘 又無泉井 糧儲 外寇雖來 恐難守城是白齊.

138) 李源祚, 『耽羅誌草本』, 鎮堡條, 涯月鎮 在州西四十里 古有木城 本三別抄所築 以禦官軍處 宣廟辛巳 牧使金泰廷改築石城(後略).

애월진성의 규모와 시설에 대하여 각종 문헌에 기록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 <표 3-7>이다.

<표 3-7> 애월진성의 규모와 시설현황

책 자 명	주 요 내 용
『耽羅志』	周 549尺, 高 8尺, 南西 2門
『濟州邑誌』	周 549尺, 南西 2門
『濟州大靜旌義邑誌』	周 255步
『耽羅誌草本』	周 255步, 高 16尺, 西南 2門
『耽羅誌』	周 549尺, 高 8尺, 南西 2門
『濟州郡邑誌』	周 549尺, 高 8尺, 南西 2門

애월목성의 규모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선조 14년(1581)에 석성으로 개축한 후의 기록인 『耽羅志』를 보면 성곽의 규모는 둘레가 549자, 높이가 8자였다. 그 이후에는 성곽의 규모는 변화가 없다. 그리고 『濟州大靜旌義邑誌』와 『耽羅誌草本』에 둘레가 255보, 높이가 16자인 것은 用尺의 차이이지 성곽의 규모가 증축된 것이 아니다. 성문도 축조 당시부터 남서 2문이 개설되었는데, 후에도 변화가 없다.

그리고 성지를 擇定할 때 중요한 요소인 우물은 축조 당시부터 후대까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유적현황

전체적으로 南高北低의 지형 위에 위치한 애월진성은 지형이 낮은 북측에 바다를 매립하여 개설한 폭 5m도로를 사이에 두고 해안과 접해 있다.

애월진성의 지적도와 현지 조사에 의하면, 진성의 동서 75m, 남북 95m로 그 둘레가 245m 정도인 타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으나 자연지형에 적합하도록 축조되어 부정형에 가깝다.

애월진성의 서측과 동측은 민가와 학교 운동장의 개설로 훼손되었고, 남측 성벽은 1973년에 복원되었다.

북측 성벽 60m 정도는 원형대로 남아 있는데, 이곳에는 廻廊道, 미석, 타첩의 일부와 銃眼으로 보이는 시설 2개소가 남아 있다. 그리고 진성의 외벽높이는 4.8~6.1m, 내벽은 1.8m이고, 회곽도 폭은 1.9~2.4m이다.



0 50m

〈애월진성 지적도〉

애월진성의 서문지는 학교 정문으로 이용되고 있어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지만, 남문지에는 문지에 사용되었던 원형 초석이 남아 있다.

애월진성의 축조방식은 제주도 현무암을 거칠게 다듬어 허튼층 쌓기로 협축하였다. 외벽의 경사는 0.8~1.2:10의 기울기로 성벽 가운데가 볼록한 弓形에 가깝도록 축조하였다.¹³⁹⁾

조선시대 숙종 28년(1702) 李衡祥 제주목사가 애월진성을 순력할 때 그린 『耽羅巡歷圖』의 「涯月操點」에 진성의 가운데에 客舍, 東倉 등 건물이 있으나, 지금은 당시 건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5) 명월진성

(1) 진성의 축조

명월진성에 관한 문헌기록에는

- ㉠ 최영이 군사를 이끌고 탐라의 명월포에 이르니, 적 1천여 명이 기병으로 항거하였다.¹⁴⁰⁾
- ㉡ 도내에 군사가 주둔하는 곳은 본주의 서쪽은 도근천·애월·명월입니다(후략).¹⁴¹⁾
- ㉢ 고려 때 탐라가 원나라로 사신을 보낼 때 명월포에서 순풍을 만나 직로로 7주야 동안에 白海를 지나 대양을 건넜다. 또 地誌를 보면 삼별초가 진도에 웅거하면서 먼저 僞將 李文京을 파견하여 여기에 정박하였고, 또 金方廉이 삼별초를 공격할 때도 좌군이 비양도로 들어가니 바로 이 포구다. 胡宗旦도 역시 이곳으로 들어왔다.¹⁴²⁾
- ㉣ 명월포 방호소는 州의 서쪽 60리에 있고, 명월포구에 수전소가 있다.¹⁴³⁾
- ㉤ 옛날에는 성이 없었으나, 중종 5년에 張琳목사가 이곳을 비양도가 가까이 있어 왜선이 자주 정박하므로 이 곳에 축성하였다.¹⁴⁴⁾
- ㉥ 성의 둘레는 3,020자, 높이 8자, 타 123개소, 격대 7개소, 정군 463명, 봉수 2개소, 연대 3개소가 있다. 북성 안에 샘이 있어, 물이 돌구멍에서 솟아나는데 맑고 차며 주위에 돌로 제방을 쌓으니 못처럼 가득 찼다.¹⁴⁵⁾

139) 김봉옥·신석하(1996), 전계서, p.93.

140) 『高麗史節要』 恭愍王 23년 8월條.
崔瑩領諸軍 至耽羅明月浦 賊以三千餘騎拒之.

141) 『世宗實錄』 世宗 21年 閏2月 壬午條.
濟州都安撫使韓承舜啓曰(中略) 道內軍人屯戍之處 則本州西則 都近川·涯月·明月(後略).

142) 金尙憲, 『南槎錄』,
漂海錄 高麗時 耽羅朝大元 自明月浦 遇便風 得直路七晝夜間 過白海渡大洋云 又按地誌 三別抄據 珍島 先遣僞將李文京 到泊于此 又金方慶討三別抄時 左軍入飛揚島 卽此浦也 胡宗旦亦到迫于此.

143) 『新增東國輿地勝覽』 濟州牧 關防條.
明月浦防護所 在州西六十里, 明月浦口水戰所.

144) 李元鎮, 『耽羅志』 濟州牧 城郭條.
(前略) 古無城 正德庚午 牧使張琳 以此地爲飛揚島 僞船泊近處 築之.

145) 李益泰, 『知瀛錄』,
城周三千二十尺 高八尺 諷百二十三 擊臺七 丁軍四百六十三 烽燧二 煙臺七 北城內 有源泉水湧 巖穴清冽滔滔 周築石堤盈滿如池.

㉔. 중종 5년 목사 張琳이 목성을 축조하였고, 선조 25년에 李慶祿 목사가 석성으로 개축하였다.¹⁴⁶⁾

라고 하였다. 즉 ㉑, ㉒, ㉓과 ㉔의 기록을 종합하면, 명월포는 고려시대부터 자주 이용되는 포구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초기에 명월에는 방호소와 수전소를 설치하여 군사를 주둔시켰다. 그리고 ㉓과 ㉔은 중종 5년(1510)에 張琳 목사가 비양도에 왜선이 자주 정박하므로 이를 경계하기 위해서 木城을 축조하였고, 선조 25년(1592)에 李慶祿 목사가 이를 石城으로 개축하였다는 기록이다. ㉓에서는 성곽의 부대시설인 타첩 123개소, 격대 7개소가 있었고, 성내에는 커다란 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주도내 다른 진성의 鎭將을 助防將으로 임명하였던 것과는 달리 萬戶를 진장으로 임명하기도 하였다.¹⁴⁷⁾

명월진성의 규모와 시설에 대하여 각종 문헌에 기록된 내용을 정리하면 <표3-8>과 같다.

<표 3-8> 명월진성의 규모와 시설현황

책 자 명	주 요 내 용
『新增東國輿地勝覽』	周 3,020尺, 高 8尺, 東西南 3門, 城中有泉
『南槎錄』	周 3,050餘尺, 高 9尺, 3門, 1泉
『耽羅志』	周 3,020尺, 高 8尺, 城中有泉
『知瀛錄』	周 3,020尺, 高 8尺, 東西南3門, 城中有泉, 堞 123, 擊臺 7개소
『濟州邑誌』	周 3,020尺, 高 8尺, 東西南 3門, 城中有泉
『濟州大靜旌義邑誌』	周 715步
『耽羅誌草本』	周 715步, 高 11尺, 東西南 3門
『耽羅誌』	周 3,020尺, 高 8尺, 東西南 3門, 城中有泉
『濟州郡邑誌』	周 3,020尺, 高 8尺, 東西南 3門, 城中有泉

<표 3-8>에서 보듯이, 진성의 규모는 축성 이후 큰 변화가 없다. 즉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나타난 진성의 규모는 둘레가 3,020자, 높이가 8자로 후대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만, 『南槎錄』에는 진성의 둘레가 3,050여자, 높이가 9자로 되어 있다. 그리고 『濟州大靜旌義邑誌』와 『耽羅誌草本』에 둘레가 715보로 기록된 것은 用尺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명월진성은 축조된 후 후대까지 증축 없이 유지되고 있다.

명월진성의 성문도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나타나는 동·서·남 3문이 후대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진성의 부속 시설인 타첩 123개소, 격대 7개소는 제주도내의 읍성처럼 축조 당시보다는 17세기 경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내의 샘물은 축조 당시부터

146) 李源祚, 『耽羅誌草本』 濟州牧 鎭堡條.
 明月鎭 在州西六十里 中廟庚午 牧使張琳築木城 宣廟壬辰 李慶祿築石城.

147) 李源祚, 『耽羅誌草本』 濟州牧 鎭堡條.
 英祖甲申 御使李壽鳳啓請 助防將陞爲萬戶 以本營出身申 備三望自雙受點.

있었던 것 같다.

(2) 유적현황

南高北低의 지형에 위치한 명월진성은 지적도와 현지 조사에 의하면, 타원형의 형태로 둘레가 1,360m정도이며 동·서·남문지와 각 문에는 옹성이 있고 치성 7개소가 있다.

진성의 상부는 대부분 훼손되어 성곽만 확인되고 있으며 남문지를 중심으로 동서로 350m 정도는 원형으로 잘 보존되어 있다.

이 곳의 진성 높이는 지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외벽 높이가 3~4m 정도이다. 그리고 남문지와 동문지 사이를 잇는 성벽에서는 여장으로 추정되는 시설물이 남아 있다.

명월진성의 門址는 훼손되어 그 형태를 확인할 수 없지만, 남문지에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2개의 주초석이 남아 있다.

옹성도 심하게 훼손되었으나 동문지 옹성의 외벽 일부만은 남아 있다. 7개소의 치성은 비록 상부가 훼손되었으나 그 형태는 남아 있다.

명월진성의 상부와 하부의 축조방식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제주도 현무암을 거칠게 다듬어 허튼층 쌓기로 협축하였다. 진성의 외벽의 경사는 0.08~0.12:10의 기울기¹⁴⁸⁾인 직선형 성벽으로 단경사를 이루고 있다.

조선시대 숙종 28년(1702) 李衡祥 제주 목사가 명월진성을 순력할 때 그린 『耽羅巡歷圖』의 「明月操點」에 명월진성의 가운데에는 西別倉, 兵庫 등 건물과 큰 샘물이 있으며 성곽의 상부에는 여장이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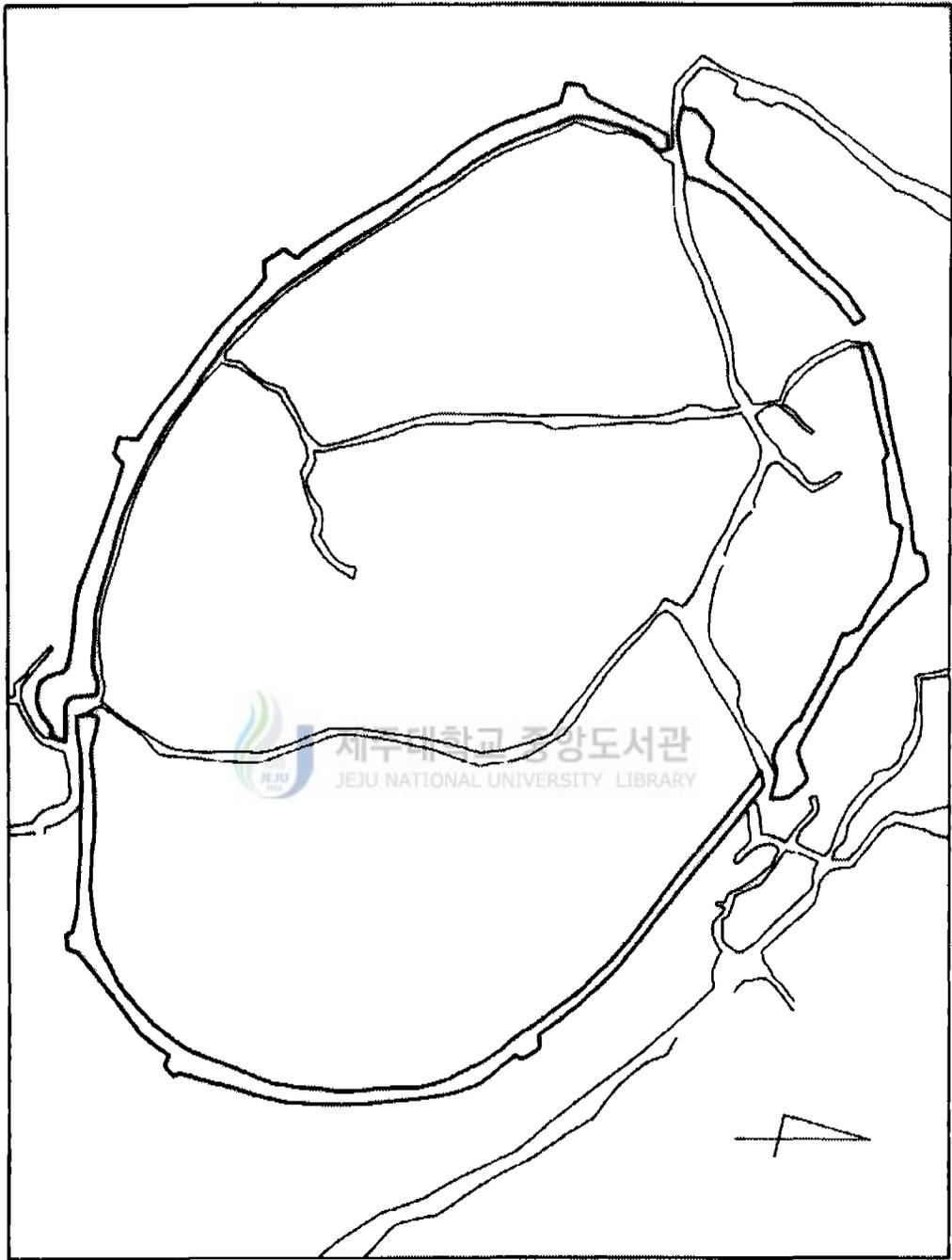
지금은 당시 건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장의 흔적도 확인할 수가 없다. 다만 지역 원로들의 증언에 의하면, “미석과 銃眼 등의 시설이 있었으나, 지역 주민들이 디딤돌과 물팡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城石을 가져갔고, 포구 매립 시에도 많은 성곽 돌을 사용했다.”¹⁴⁹⁾고 한다.

명월진성의 성내와 그 주변지역에서는 기와편, 분청사기·백자·청화백자 등이 발견되고 있다.

148) 김봉옥·신석하(1996), 전계서, p.102.

복제주군(1993), 『明月鎭 地表調査 報告書』.

149) 복제주군(1993), 전계서, p.27.



0 100 m

〈명월진성 지적도〉

6) 수산진성

(1) 진성의 축조

수산진성은 고려 충렬왕 때 원나라 塔羅赤이 소·말·약대·노새·당나귀·양을 싣고 와서 수산평에 방목하던 곳에 있다.¹⁵⁰⁾

수산진성에 관한 주요 문헌 기록에는

- ㉠. 정의현 동쪽 牛峯과 대정현 서쪽 竹島는 예로부터 왜선이 몰래 정박하니 가장 요해지입니다. 우도 인근의 수산과 죽도 인근의 차귀방호소는 모두 성곽이 없으니, 왜적이 밤에 침범하여 들입한다면 군사들이 의지할 곳이 없어 응전하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적당히 헤아려 축성하고 적변에 응하게 하십시오.¹⁵¹⁾
- ㉡. 성과 마주보고 있는 건너편 평지에는 수산방호소의 폐성이 있다(중략). 성산진성은 돌로 쌓았는데, 길이는 가히 2천 자가 되고, 높이는 9자이다. 그 가운데는 수 만 명을 수용할 만하다. 다만 우물이 없어 성밖 1리쯤 되는 곳에서 길어 온다. 이곳은 목사 李慶祿 때에 축성하였다.¹⁵²⁾
- ㉢. 선조대 목사 李慶祿이 성산으로 이설하였는데, 선조 32년에는 成允文 목사가 수산으로 환원하였고, 숙종 때에는 萬戶鎭으로 승격했다가 助防將鎭으로 환원되었다.¹⁵³⁾

라고 하였다. ㉠의 기록은, 세종 21년(1439) 제주도안무사 韓承舜 목사가 수산은 牛島 인근으로 왜선이 몰래 정박할 수 있는 요해처이므로 오래 전부터 방호소가 설치되었으나, 성곽이 없어 위험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진성의 축조를 건의한 내용이다.

그리고 ㉡와 ㉢의 기록에 의하면, 선조 30년(1597)에 李慶祿 牧使가 방호소를 성산으로 옮김에 따라 수산진은 폐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성산진성의 규모는 둘레가 2,000 자, 높이가 9자이고, 성내에 우물은 없었다. 그리고 성산진성을 방어하는 것은 적에게 스스로 포로가 되는 최악의 계략이라면서, 2년 후인 선조 32년(1599) 成允文 목사가 성산진에서 다시 수산진으로 환원하고 있다.

숙종 4년(1678)에 李度遠 御使가 “수산진은 바다와 10리나 떨어져 있어서 방어에 어려우므로 성산·오조·고성 등으로 옮길 것을 건의”¹⁵⁴⁾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150) 金尙憲, 『南槎錄』.

151) 『世宗實錄』 世宗 21년 閏二月 壬午條.

濟州都安撫使韓承舜啓(前略) 詢諸古老皆云 旌義縣東牛峯 大靜縣西竹島 自古倭船隱泊 最爲要害之地 右牛島隣近水山 竹島隣近西歸防護所 竝無城郭 惜倭賊犯夜突入 卽軍士無所依據 應敵勢難 請量 宜築城 以應敵變(後略).

152) 金尙憲, 『南槎錄』.

對城越坪 有水山防護所廢城(中略) 築石城 延可二千尺 高九尺 其中可容數萬人 但無井水 汲於城外一里許 此乃牧使李慶祿時所築也.

153) 李源祚, 『耽羅誌草本』 卷4, 鎭堡條.

宣廟壬辰倭寇註攘 牧使李慶祿移設于城山 已亥成允文罷城山 還鎭於此 肅廟乙酉陞爲萬戶 戊戌還設助防將.

154) 李源祚, 『耽羅誌草本』.

肅廟戊午 御使李度遠啓曰 水山在海口十里之外 控禦爲難 請移城山吾照古城等地 未果.

숙종 31년(1705)에는 수산진의 鎭將이 萬戶로 승격되었다가 다시 助防將으로 환원되고 있다.

수산진성의 규모와 시설에 대하여 문헌에 나타난 내용을 정리한 <표3-9>에서 보듯이, 축성할 당시 성곽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만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진성의 둘레가 1,264자, 높이가 26자인 것으로 보아 축성 당시의 규모로 추정된다.

그 후 선조 30년(1597)에 성산진으로 옮긴 후 다시 환원한 선조 32년(1599) 당시 수산진성의 규모는 『耽羅志』에 둘레가 1,164자, 높이가 16자, 좌우에 각 1문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둘레가 100자로 축소되고 있다. 이는 바로 수산진성이 축성 당시와 환원 후 진성의 규모가 차이가 있는 것인지, 기록자에 따른 오차인지 분명하지 않다. 어쨌든 『耽羅志』이후부터 성곽의 둘레가 1,164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濟州大靜旌義邑誌』에 진성의 둘레가 582보라고 한 것은 用尺이 차이일 뿐이다.

<표 3-9> 수산진성의 규모와 시설현황

책자명	주요내용
『新增東國輿地勝覽』	周 1,264尺, 高 26尺,
『耽羅志』	周 1,164尺, 高 16尺, 左右 2門
『濟州邑誌』	周 1,164尺, 高 16尺, 東西 2門, 城中 1泉
『濟州大靜旌義邑誌』	周 582步
『耽羅誌草本』	周 1,164尺, 高 16尺, 東西 2門
『耽羅誌』	周 1,164尺, 高 16尺, 左右 2門
『旌義郡邑誌』	周 1,164尺, 高 16尺, 東西 2門, 城中 1泉

성문도 축성 당시에는 기록이 없어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성산진에서 수산진으로 환원한 이후부터는 東·西 2門이 후대까지 유지되고 있다. 또한 『濟州邑誌』에는 성내에 샘이 1개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유적현황

수산진성은 해발 50~57m의 완만한 경사면의 北高南低 지형에 위치하고 있다. 수산진성의 지적도와 현지 조사에 의하면, 진성의 규모는 동서 134m, 남북 138m으로 둘레가 544m이며 정방형의 형태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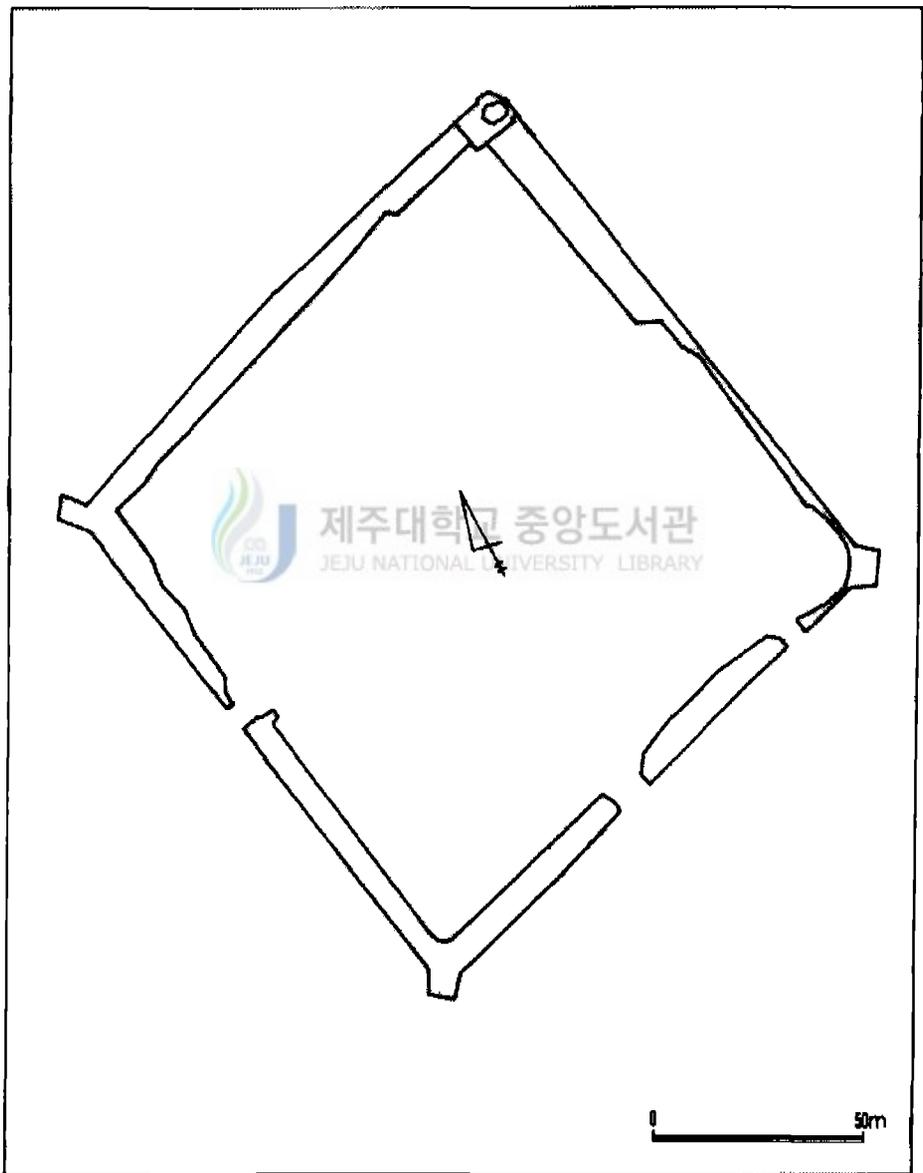
수산진성의 보존상태는 대부분 양호한 편으로, 그 규모는 외벽 높이가 3.5~5.3m이고, 내벽은 2단으로 축조되었다. 성곽의 상부 폭은 3.3~5.7m정도이다. 북측 성벽에서 여장과 미석 시설 일부가 남아 있다.

수산진성의 동문지와 서문지는 심하게 훼손되어 형태를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치성은 3개소가 발견되고 있는데, 그 중에 동남쪽 모퉁이에 있는 것은 훼손되었으나, 나머지 2개소는 비록 부분적으로 훼손되었지만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수산진성의 축조방식은 제주도 현무암을 거칠게 다듬어 허튼층 쌓기로 협축하였고, 외

벽의 기울기는 직선형 성벽으로 단경사를 이루고 있다. 치성은 성벽을 축조한 후 덧대어 축조하였다.

조선시대 숙종 28년(1702) 李衡祥 제주 목사가 수산진성을 순려할 때 그린 『耽羅巡歷圖』중 「首山操點」에 진성의 가운데에는 몇 동의 건물과 샘이 있으며 성벽에는 여장이 있다. 지금은 당시의 건물 위치를 확인할 수 없으나, 진성의 성 내와 그 주변지역에서 기와편, 분청사기·백자·청화백자 등이 발견되고 있다.



〈수산진성 지적도〉

7) 서귀진성

(1) 진성의 축조

서귀진성에 관한 주요 문헌 기록에는

- ㉠. 서귀포 방호소는 현의 서쪽 7리에 있고 서귀포구에는 수전소가 있다.¹⁵⁵⁾
- ㉡. 서귀포(서귀방호소)는 현의 서쪽 홍로천의 하류에 있고, 원나라때에는 候風하던 곳이다. 옛날에는 바닷가 홍로천 위에 있었으나, 목사 李沃이 현재의 위치로 이설하여 (진성을) 축조하였다. 성의 둘레는 5백자, 높이는 6자이고 서쪽과 남쪽에 문이 있다.¹⁵⁶⁾
- ㉢. (전략) 정방연의 상류를 동성 안으로 끌어들여 자그마한 저수지를 만들고 물을 저장한 다음 서성 밖으로 흘려 보냈다.¹⁵⁷⁾

라고 하였다. 즉 ㉠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 초기부터 서귀포에는 방호소와 수전소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에는 서귀방호소가 원나라 때에는 候風하던 곳이었다. 당초에 서귀진성은 홍로천 상류에 있다가 선조 23년(1590)에 李沃 목사에 의해 홍로천 하류인 현재의 터로 옮겨 축성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홍로천 하류로 移築한 진성의 규모는 둘레가 500자, 높이가 6자이고, 서쪽과 남쪽에 문이 있었다. 또한 ㉢의 기록에 의하면, 정방연의 물로 관개농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귀진성의 규모와 시설에 대하여 문헌에 나타난 내용을 정리하면 <표3-10>과 같다.

<표 3-10> 서귀진성의 규모와 시설현황

책자명	주요내용
『新增東國輿地勝覽』	周 161尺, 高 5尺,
『南槎錄』	周 500餘尺, 高 6尺, 西南 2門
『耽羅志』	周 825尺5寸, 高 12尺
『濟州邑誌』	周 825尺, 高 12尺, 東西 2門, 城中 1泉
『濟州大靜旌義邑誌』	周 415步
『旌義郡邑誌』	周 825尺, 高 12尺, 東西 2門, 城中 1泉
『耽羅誌草本』	周 825尺, 高 12尺, 西南 2門

서귀진성은 선조 23년(1590)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록된 진성의 규모는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기 이전의 규모이다. 즉 홍로천 상류에 있던 서귀진성의 규모로 둘레가 161자, 높이가 5자인 소규모 진성이었다.

155) 『新增東國輿地勝覽』, 旌義縣 關防條 : 西歸浦防護所 在縣西七十一里, 西歸浦水戰所.

156) 金尙憲, 『南槎錄』,

按地誌 西歸浦卽縣西烘爐川下流 耽羅朝大元時 候風處云 舊在海濱烘爐川上 牧使李沃時 移築于今所 城周五百尺 高六尺 有西南二門.

157) 李元鎮, 『耽羅志』, 旌義縣 防護所條,

引正方淵上流穿入 東城內作小水池貯水後 放出西城外.

선조 23년(1590)에 현 위치로 이전하여 축성한 서귀진성의 축성 당시 기록은 없다. 다만 10년 후 기록인 『南槎錄』을 보면 진성의 규모는 둘레가 500여자, 높이가 6자이며 西·南 2문이 있었다. 그러나 『耽羅志』에는 진성의 둘레가 825자 5치, 높이가 12자로 325자 5치가 확장되고 있다. 이것은 선조때 정방연의 상류를 서귀진성의 안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하여 동쪽으로 성곽을 확충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史料가 없다. 그 후 성곽의 규모는 변화가 없다. 그리고 『濟州大靜旌義邑誌』에 기록된 성곽의 규모가 다른 것은 用尺이 차이일 뿐이다.

성문은 『南槎錄』과 『耽羅誌草本』에는 서문과 남문으로 기록되었고, 이외의 문헌자료에는 동문과 서문으로 되어 있다. 『耽羅巡歷圖』를 참조하면 동문과 서문으로 묘사된 점으로 보아 『南槎錄』과 『耽羅誌草』의 남문은 동문을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서귀진성의 성내 샘은 축조 당시의 기록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18세기 중엽에 편찬된 『濟州邑誌』에는 1개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선조 22년(1590)에 李沃 목사가 서귀진성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할 때부터 샘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유적현황

서귀진성은 대부분 훼손되어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서귀포 제일교회의 담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의 일부가 성곽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선시대 숙종 28년(1702) 李衡祥 제주 목사가 서귀진성을 순력할 때 그린 『耽羅巡歷圖』중 『西歸操點』에 의하면 진성에는 동문과 서문 그리고 8동의 건물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8) 모슬진성

(1) 진성의 축조

모슬진성에 관한 문헌 기록에는

- ㉠. 도내에 군이 주둔하는 곳은 대정현은 서쪽은 차귀요, 동쪽은 동해입니다.¹⁵⁸⁾
- ㉡. 제주목사 張琳이 제주 방어 절목을 조목별로 나누어 급히 아꼈는데, (중략) 서귀포, 동해포에는 원래 성이 없으므로 지키는 데 매우 허술합니다. 따라서 지금 성을 쌓게 하십시오.¹⁵⁹⁾
- ㉢. 동해 방호소는 대정현의 경계에 있다. 성의 둘레는 280여 자이다. 서쪽과 남쪽에 문이 있고, 성중에 우물이 1개소 있다. 옛 성이 낡고 허물어져 목사 成允文이 개축하였다.¹⁶⁰⁾
- ㉣. 동해성은 현의 동쪽 45리에 있고, 석축으로 둘레가 500자, 높이가 8자이고 성중에 샘이 있다.¹⁶¹⁾

158) 『世宗實錄』 世宗 21年 閏2月 壬午條,

濟州都安撫使韓承舜啓曰 (中略) 道內軍人屯戍之處 (中略) 大靜縣西則遮謫 東則東海(後略).

159) 『中宗實錄』 中宗 5年 9月 己巳條.

160) 金尙憲, 『南槎錄』,

東海防護所 大靜界 城二百八十餘尺 有西南二門 中有一井 舊城類篇 牧使成允文時改築.

161) 李元鎮, 『耽羅志』 大靜縣 城郭條,

東海城 在縣東四十五里 石築周五百尺 高八尺 城中有泉.

- ㉔. 동해성 내에는 재사, 군기고가 있고, 종종 5년에 加來防讎所를 이곳으로 이설 하였다.¹⁶²⁾
- ㉕. 모슬방호소를 새로 설치하였는데, 암초 중에 돌을 보태어 성을 쌓아 마치斗통과 같다. 밀물이 들어오면 사면이 바다로 이어져 버려서, 돌을 쌓아 다리를 만들어야 겨우 왕래하게 되었다. 작으나 실로 요해처이다.¹⁶³⁾
- ㉖. 모슬진은 현의 남쪽 10리에 있고, 옛날에는 수전소가 있었다. 숙종 원년에 어사 李選이 (축성 을) 건의하였고, 4년이 지난 후에 목사 尹昌亨이 동해성을 철거하고 이곳으로 이설하였다.¹⁶⁴⁾

라고 하였다. 즉 ㉔의 기록에 의하면, 동해방호소는 대정현의 동쪽에 위치하여, 조선초기 부터 군인이 주둔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㉔, ㉕과 ㉖에는 종종 5년(1510) 張琳 목사가 가래방호소를 동해방호소로 옮겨 동해진성을 축성한 것과 진성의 규모가 기록되어 있다. 즉 동해방호소는 대정현의 동쪽 45리에 있고, 진성의 규모는 둘레가 500자, 높이가 8자이었다. 그리고 ㉕에서는 옛성(동해진성)이 허물어지자 成允文 목사가 개축하였는데, 그 규모가 280여 자로 220자가 축소되고 있다.

㉔과 ㉖에 의하면, 모슬진은 옛날 수전소가 있었던 곳으로 숙종 원년(1675)에 御使 李選이 이설을 건의한 후, 숙종 4년(1678)에 尹昌亨 목사가 동해방호소를 철폐하여 모슬진으로 이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슬진성은 바다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밀물에는 돌다리를 이용하여 출입했다. 따라서 모슬진은 가래방호소에서 동해방호소를 거쳐 모슬방호소로 이전되었다.

모슬진성의 규모와 시설에 대하여 문헌에 나타난 내용을 정리하면 <표 3-11>과 같다.

<표 3-11> 모슬진성의 규모와 시설현황

책 자 명	주 요 내 용
『濟州邑誌』	周 315尺, 高 12尺, 北門
『濟州大靜旌義邑誌』	周 210步
『耽羅誌草本』	周 335尺, 高 12尺, 塔礎 22개소, 東 1門
『大靜郡邑誌』	周 335尺, 高 12尺, 東 1門, 城中無泉

숙종 4년(1678)에 축조한 모슬진성의 축조 당시 규모는 알 수 없다. 『濟州邑誌』에 의하면, 진성의 둘레는 315자, 높이가 12자이고, 북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후의 문헌기록에는 성곽의 둘레가 335자, 높이가 12자이고, 동문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濟州邑誌』이후 진성의 규모가 20자 확장되고 있다. 이는 바로 진성의 증축되었다기보다는 용척의 기준치 차이 혹은 기록자의 착오로 추정된다. 즉 성곽의 증축에 관한

162) 李元鎮, 『耽羅志』 大靜縣 防讎所條.
東海城內 有客舍軍器庫 正德庚午 移加來防讎所.

163) 李益泰, 『知瀛錄』,
所是新設 補石磯草中築城如斗 潮生則四面連海積石作橋僅往來雖小實要衝地也.

164) 李源祚, 『耽羅誌草本』 鎮堡條.
寧憲鎮 在縣南十里 古爲水戰所 肅廟乙卯 御使李選建議 越四半戊午 牧使尹昌亨撤東海所移設.

기록이 없다.

그리고 모슬진성의 성문도 『濟州邑誌』에는 북문, 『大靜郡邑誌』와 『耽羅誌草本』에는 동문으로 기록되고 있으나, 『耽羅巡歷圖』와 현재의 지형을 고려한다면 동문보다는 북문이 옳은 듯하다.

(2) 유적현황

모슬진성은 훼손되어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현재 모슬포 항구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숙종 28년(1702) 李衡祥 제주 목사가 모슬진성을 순력할 때 그린 『耽羅巡歷圖』중 「纂瑟點簿」에는 북문 1개소가 있으며 삼면은 바다로 에워 싸여있고, 성내에는 4동의 건물이 있다. 그리고 모슬진성에는 타점이 묘사되어 있는데, 『耽羅誌草本』에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지형적인 조건으로 볼 때 모슬진성은 조천진성과 유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고, 성문 또한 1개소인 점도 같다.

9) 차귀진성

(1) 진성의 축조

차귀진성에 관한 문헌 기록에는

- ㉠. 정의현 동쪽 牛嶽과 대정현 서쪽 竹島는 예로부터 왜선이 몰래 정박하니 가장 요해지입니다. 우도 인근의 수산과 죽도 인근 차귀방호소는 모두 성곽이 없으니, 왜적이 밤에 침범하여 돌입한다면 군사들이 의지할 곳이 없어 응전하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적당히 헤아려 축성하고 적변에 응하게 하십시오.¹⁶⁵⁾
- ㉡. 차귀진은 주의 동쪽[서쪽의 誤子] 26리에 있고, 고려말 원나라 哈赤이 말을 양육하기 위하여 축성하였다. 哈赤이 패망한 후 李元鑣 목사가 설진하여 旅帥를 두었고, 숙종 원년(1675)에 旅帥를 혁파하고 조방장을 두었는데, 숙종 32년에 宋廷奎 牧使가 조방장을 萬戶를 승격시켰고, 숙종 42년에 黃龜河 御使가 만호를 다시 조방장으로 환원시켰다.¹⁶⁶⁾

라고 하였다. 두 기록에 의하면 차귀진성은 본래 원나라 哈赤이 말을 사육하기 위하여 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차귀진성은 군사적인 목적보다는 말의 사육을 위하여 축성하였다. 그리고 진성은 고려말부터 조선 초기까지 竹島에 왜선이 자주 정박하는 요해처이므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축하게 되었다.

그리고 차귀진은 효종 3년(1652)에 李元鑣 목사가 진을 설치하여 시기별로 鑣將을 旅

165) 『世宗實錄』 世宗 21年 閏2月 壬午條

166) 李源祚, 『耽羅誌草本』 大靜縣 鑣堡條

遼歸鑣 在縣東(西의 착오)二十六里 高麗末元哈赤築城 以爲養馬之所 哈赤敗亡後 牧使李元鑣狀請設鑣 置旅帥 其後肅廟乙卯罷旅帥差助防將 丙戌宋廷奎陞爲萬戶 丙申御使黃龜河革萬戶復置助防將.

帥, 助防將, 萬戶 등으로 자주 교체되었다.

차귀진성의 규모와 시설에 대하여 문헌에 나타난 내용을 정리하면 <표3-12>와 같다.

<표 3-12> 차귀진성의 규모와 시설현황

책 자 명	주 요 내 용
『新增東國輿地勝覽』	周 1,466尺, 高 33尺
『南槎錄』	周 1,190餘尺, 高 10尺, 2門, 城中 1井
『耽羅志』	周 2,466尺, 高 22尺
『濟州邑誌』	周 2,466尺, 高 22尺, 東西 2門, 城中有泉
『濟州大靜旌義邑誌』	周 1,644步
『耽羅誌草本』	周 1,190餘尺, 高 10尺, 堞堞 73, 東西 2門
『耽羅誌』	周 2,466尺, 高 22尺, 左右 2門, 東西 2門
『大靜群邑誌』	周 2,466尺, 高 22尺, 東西 2門

고려시대에 축성된 차귀진성의 규모는 알 수 없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진성의 둘레가 1,466자, 높이가 33자라고 한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 개축될 당시의 규모로 보인다.

그리고 『耽羅志』부터 성곽의 규모는 둘레 2,466자, 높이 22자를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濟州大靜旌義邑誌』에 성곽의 둘레를 1,644보라고 한 것은 용척의 차이일 뿐이다. 다만 『南槎錄』과 『耽羅誌草本』에 나타난 성곽의 둘레를 1,190여 자라고 한 것은 기록자의 잘못으로 추정되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차귀진성의 성문은 축성 당시에는 기록이 없어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濟州邑誌』이후부터는 동·서 양문이 유지되고 있다. 19세기 중반 기록인 『耽羅誌草本』에는 차귀진성의 타첩이 73개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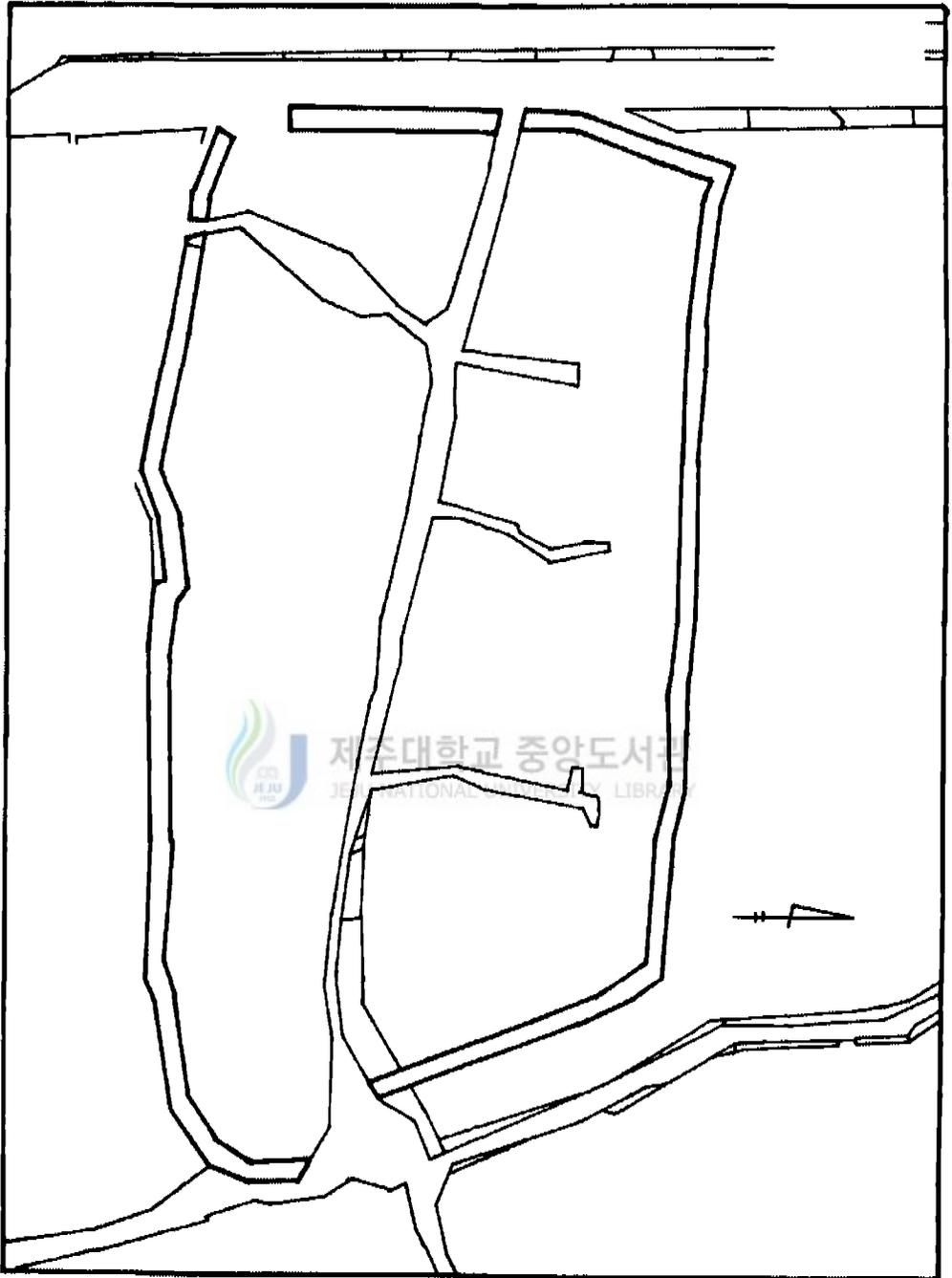
(2) 유적현황

東高西底의 지형에 위치한 차귀진성은 지적도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면, 진성은 동서가 190m, 남북이 110m, 둘레가 620m로 모가 죽은 방형의 형태를 하고 있다.

차귀진성의 성곽은 대부분 훼손되어 그 윤곽을 알 수는 없지만, 개인집 울타리에 1단 정도인 15m가량 남아 있다. 성문지도 알 수 없다.

차귀진성의 축조방식은 성곽의 원형대로 남아 있지 않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제주도 현무암을 거칠게 다듬어 허튼층 쌓기로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숙종 28년(1702) 李衡祥 제주 목사가 순력할 때 그린 『耽羅巡歷圖』중 「遮歸操點」에 차귀진성의 가운데에 3동의 건물과 동서로 양문이 있다. 지금은 당시 건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0 50m

〈차귀진성 지적도〉

3. 봉수와 연대

봉수는 횃불(烽)과 연기(燧)로써 급한 소식을 전하던 전통시대의 통신제도이었다. 이는 바로 『經國大典』의 註釋에 의하면 “烽은 불을 피워서 통보하는 것을 뜻하고, 燧는 숲 나무에 불을 질러서 그 연기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 하여, 낮에는 연기, 밤에는 횃불을 들어 통보하는 제도를 말한다.”¹⁶⁷⁾라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특히 봉수는 높은 산이나 해안 구릉에 올라가서 불을 피워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신호하였다. 따라서 봉수제는 郵驛制와 더불어 신식 우편과 전기 통신이 창시되기 이전의 근대 국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군사용 통신이었다.

봉수는 驛馬나 人便보다는 시간적으로 단축되었다. 신속한 효용성을 발휘하여 지방의 급변한 민정상황, 국경지방 적의 동태를 상급기관인 중앙의 병조에 연락하였던 봉수제는 국가의 정치·군사적인 정보를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이 봉수제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周나라에서 유래된¹⁶⁸⁾ 봉수제는 우리 나라에서는 삼국시대 초기부터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삼국시대 초기의 기록에 봉화와 관련된 지명과 봉화를 올렸다는¹⁶⁹⁾ 기록으로 보아 이미 삼국시대에는 봉수가 활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봉수제가 처음으로 법제화된 것은 고려 의종 3년(1149) 8월에 西北面兵馬使 曹晉若이 올린 글에 나타나고 있다.

烽燧式을 정하여 평상시 밤에는 불, 낮에는 연기를 각각 하나로 하고, 二急 (2급 비상)이면 둘, 三急 (3급 비상)이면 셋, 四急 (4급 비상)이면 넷을 올리도록 하고, 각 烽燧臺에는 防丁 2명과 白丁 28명을 배치하되 그들에게 平田 1결씩을 지급토록 하고 있었다.¹⁷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려 중기에는 봉수제가 군사적인 통신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조선시대의 봉수제는 고려시대의 봉수제를 답습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松嶽山 烽燧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봉수제가 조선시대 태종 3년(1394)에 漢陽으로 천도하면서 木覓山[南山]을 중심으로 하는 봉수 조직으로 개편하였던¹⁷¹⁾ 것이다.

167) 『經國大典』 註釋.

168) 『史記』 권4, 周本紀4, 幽王 3년,

“周의 幽王이 寵姬 포사를 기쁘게 해주려고 봉화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다.

169) 『三國史記』 권2, 미추이사금 5년 8월條 : 신라의 지방중 “烽山, 烽山城” 등 지명이 있다.

『三國史記』 권23, 백제본기1, 온조왕 10년 10월에 “고구려 安藏王때 봉화를 올린” 기록이 있다.

170) 『高麗史』 권81, 志35, 兵1, 五軍 毅宗 3年 8月條,

西北面兵馬使曹晉若奏 定烽燧式 平時夜火燹烟各一 二急二 三急三 四急四 每所防丁二 白丁二十八 各例給平田一結.

171) 南都泳(1997), 『韓國馬政史』,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p.523에서 “조선 초기에 남산을 중심으로 전국의 봉수망을 새로이 결정한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太祖 3년 한양으로 천도한 이후부터 시작하여 太宗 5년 再遷을 결행하면서 정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시대 세종 1년(1419)에 이르러 종래에 계승되어온 고려의 봉수제를 바탕으로 唐의 제도를 참고하여 擧火炬數 등 관계규정을 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러 道 연변의 봉수와 연대를 새로이 축조하고, 나아가 봉수의 線路를 일제히 획정하였다. 별일이 없을 때에는 그대로 1擧로 하고, 적이 海中에 나타나면 再擧, 海岸에 가까이 오면 3擧, 우리 병선과 接戰시에는 4擧, 下陸하면 5擧¹⁷²⁾하도록 거화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세종 4년(1459)에는 여러 道の 봉화처에 연대를 높이 쌓고, 그 위에 화기 등 병기를 설치하여 주야로 간망하도록 하는 등¹⁷³⁾ 봉수제가 법제화되었다.

그리고 세종 28년(1446)에는 전국의 봉수를 京·內地·沿邊 봉수로 구분하고 있다.¹⁷⁴⁾ 즉 경봉수는 전국의 모든 봉수가 집결하는 중앙봉수로서 목덕산(남산)에 위치하여 목덕산봉수 또는 남산봉수라고 하였다. 내지봉수는 연변봉수와 경봉수를 연결하는 중간봉수이고, 연변봉수는 해안변경인 최전방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임무 수행이 가장 힘들었다. 이어서 세종 29년(1447)에 봉수의 시설 기준을 확정하고 있다.¹⁷⁵⁾ 그 가운데에서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변경 연변의 각 곳에는 연대를 축조하되 앞서 世宗 20년 1월에 布帛尺으로 정한 축조 규식¹⁷⁶⁾을 개정하였다. 營造尺으로 높이 25자, 둘레 70자로 하며, 연대의 밑 사방은 30자로 하고, 그 바깥에는 깊이와 너비 각 10자의 참호를 둘러서 파도록 하였다. 또한 참호 바깥쪽에는 나무껍질을 깎아 위를 뾰족하게 다듬은 길이 3자의 말뚝지대를 너비 10자에 이르는 땅에 박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대 위에는 假家를 짓고 兵點과 아침, 저녁으로 쓸 물, 불을 다루는 용기 등 물건을 간수토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식량이 떨어질 때에는 해당 고을 관원과 監司와 節制使가 적당히 보충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연대는 擧火·信號·防護 시설 및 생활 용기를 갖추어 봉수와 일선 요새로서의 기능을 다하게 되었다.

둘째, 내륙에 위치한 내지 봉수는 변경 연변지방의 봉수대에 비하여 위험성이 낮으므로, 연대를 쌓지 않고 산봉우리에 연기를 내는 烟籠만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험한 곳에는 연대를 쌓기도 하였다. 연조는 위쪽이 뾰족하고, 밑은 네모 혹은 둥글게 아궁이를 쌓아 올리고, 그 높이는 10자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그 둘레에 담장을 쌓아

172) 『世宗實錄』 卷4 世宗 1年 5月條.

兵曹啓 前日各道烽火 令無事則一擧 有事則再擧 乞自令 倭賊在 海中則再擧 近境則三擧 兵船與戰則四擧 下陸則五擧 如陸地賊變在 境外則再擧 近境則三擧 犯境則四擧 與戰則五擧 晝則代以煙氣 其不用心觀望烽火干及所在官司 依律科罪 上王從之.

173) 『世宗實錄』 卷17 世宗 4年 8月 癸卯條.

慶尙道水軍都安撫處置使啓 烽燧之處 無堡壁可據 因此或爲賊所掠 法令雖嚴 人皆疑畏 不肯用心瞭望 請高築煙臺 上設弓家置火砲 晝夜常在其上 看望賊變 從之 命諸道皆築煙臺.

174) 『世宗實錄』 卷111, 世宗 28年 10月 庚子條.

175) 『世宗實錄』 卷115, 世宗 29年 3月 丙寅條.

176) 『世宗實錄』 卷80, 世宗 20年, 1월 庚子條.

이 규식은 연대의 네면의 아래 너비는 매 면을 20자로 하고, 높이는 30자로 하되 모두 布帛尺을 쓰도록 하였다. 즉 布帛尺에서 1자 당 46.73cm임으로 아래 너비는 9.3m, 높이는 20m로 하고 있음

사나운 짐승을 막도록 하였다.¹⁷⁷⁾

성종 2년(1471)에 『經國大典』의 공포로 이러한 봉수의 시설 기준을 토대한 봉수제가 법제화되기에 이르렀다.

1) 봉수와 연대 축조

제주도의 봉수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東史綱目』에 “전라도에 鎭邊萬戶府를 설치하여 우리 나라와 원나라의 군대를 찾아내고, 合浦, 東萊 등 좁은 바다 어귀와 탐라 등지에 경계를 구획하여 봉수를 설치하고 배와 무기를 몰래 간직해 놓고 밤낮으로 감시하며 순찰하였다.”¹⁷⁸⁾라고 했다. 이에 의하면, 탐라에도 봉수가 설치되어 있음은 알 수 있으나 구체적인 실태는 알 수 없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세종 21년(1439)에 “봉화를 올리고 망보는 곳은 제주목은 동쪽 김녕에서 서쪽 판포까지 10곳이고, 대정현은 서쪽 차귀에서 동쪽 居玉까지 5곳이고, 정의현은 현의 서쪽에서 북쪽 只末山까지 7곳이다. 봉화가 있는 곳마다 5인씩 나누어 배정하고, 또 연대를 쌓았는데, 높이와 너비가 각 10자입니다. 망보는 사람에게 兵器, 旗, 角을 가지고 올라가게 하며, 만일 적변이 있을 때는 봉화에 올라가서 角을 불어서 서로 통보하게 하였습니다.”¹⁷⁹⁾라고 보고하고 있다. 즉, 도내에 설치된 봉수는 제주목에 10개소, 대정현에 5개소, 정의현에 7개소로 모두 22개소이고, 설치된 연대의 규모는 높이와 너비를 각 10자였다. 뿐만 아니라 봉화군은 봉화마다 5명씩 배치하고 있다.

그 후 세조 8년(1462)에 병조에서 제주의 도절제사로 하여금 제주의 연대를 정비토록 하였다.¹⁸⁰⁾ 또한, 『中宗實錄』에는 “연대를 두어야 할 곳에 墩望을 가설하였습니다. 제주 3읍이 모두 해안가이므로 방어가 아주 긴박하지만, 군사的人数은 한정되었습니다.”¹⁸¹⁾라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봉수의 현황을

제주목 봉수(8개소) : 紗羅岳, 別刀, 元堂, 笠山, 道道里, 水山岳, 高內岳, 板乙浦
정의현 봉수(10개소) : 南山, 呑呑沙只岳, 餘乙溫, 小水山, 只末山, 達山, 兎山, 전月論, 狐兒村, 三每陽

177) 南都泳(1997), 전게서, p.539에서 『經國大典』과 『續大典』권4, 兵典 烽燧의 내용을 정리한 것 중 봉수 시설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였다.

178) 『東史綱目』, 辛巳(忠烈王) 7年, 冬十月條.
又於全羅道 置鎭邊萬戶府摘撥 本國軍及元軍 於合浦加德 東萊蔚州 (中略) 等隘口及耽羅等處 分依設烽燧 暗藏船兵 日夜看望巡緝.

179) 『世宗實錄』世宗 21年 閏2월 壬午條 : 濟州 都安撫使 韓承舜의 啓.

180) 『世祖實錄』世祖 8年 4月 癸巳條.
兵曹에서 아뢰기를 “煙臺는 본래 변방의 急變을 알리기 위한 것이나, 諸道の 연대는 혹은 낮고, 적어서 멀리 바라보아 통하지 못하니 都節制使로 하여금 실패 마감토록 하라.”는 내용이다.

181) 『中宗實錄』中宗 5年 9月 己巳條.
濟州牧使張琳 以防禦節目 遂條馳啓 (中略) 煙臺可置處 加設墩望 而三邑皆沿邊 防禦至緊 軍額有數.

대정현 봉수 (5개소) : 松岳, 毛瑟, 遮歸岳, 堀山, 居玉岳¹⁸²⁾

라 하였다. 제주 도내 봉수는 제주목에 8개소, 정의현에 10개소, 대정현에 5개소로 모두 23개소가 설치되어 서로 응하는 봉수였다. 그런데 이들 봉수는 모두가 높은 산정에 위치하여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의 후기에 이르러 봉수와 연대로 구분에서 봉수로 보인다. 이는 바로 조선시대의 후기에 봉수의 정비 과정에서 해안에 연대가 설치되었다. 이로부터 산악을 중심으로 하는 봉수, 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연대로 구분하게 되었다.

문헌에 기록된 제주지방 봉수와 연대의 변천 과정을 정리하면 <표 3-13>과 같다.

<표 3-13> 봉수와 연대의 변천과정

소 속	『新增東國輿地勝覽』	『耽羅志』	『耽羅防管總攬』	『濟州邑誌』	『濟州旌義大靜邑誌』	『濟州兵制烽臺總錄』	『耽羅誌草本』
제주목	紗羅岳	紗羅	紗羅烽				
	元堂岳	元堂	元堂烽				
	* 笠山岳	西山	西山烽				
	* 道里岳	笠山	笠山烽		王哥	往哥	道頭
	水道岳	往可	往可烽				
	高山岳	道圓	道圓烽				
	* 板乙浦岳	水山	水山烽				
	別刀	內岳	高內烽				
		道板	道內烽				
			晚早烽				
			別刀煙				
			朝天煙				
			倭浦煙				(공란)
			咸德煙				
			無注煙	佐可煙	左哥	無住可	(공란)
		佐哥煙					
		笠頭煙					
		修近煙					
		藻腐煙					
		南頭煙					
		涯月煙					
		歸德煙				(공란)	
		牛池煙					
		竹島煙					
		馬頭煙				(공란)	

182) 『新增東國輿地勝覽』烽燧條.

소 속	『新增東國 輿地勝覽』	『耽羅志』	『耽羅防營 總攬』	『濟州邑誌』	『濟州旌義 大靜邑誌』	『濟州兵制 烽臺總錄』	『耽羅誌 草本』
			孟令煙 大浦煙 頭毛煙				
정의 현관 내	南 山 五音沙只岳 達 山 兔 山 小 水 餘 乙 只 未 錢 月 狐 兒 三 每	南 山 獨 子 達 山 兔 山 小 水 城 * 指 山 紫 尾 狐 浦 三 村 梅 陽	南 山 烽 獨 子 烽 達 山 烽 兔 山 烽 (공란) (공란) 城 山 烽 地 尾 烽 紫 孟 烽 狐 村 烽 三 每 陽 烽 末 等 浦 烟 川 尾 烟 所 尔 路 烟 伐 浦 烟 俠 才 烟 吾 照 烟 金 露 浦 烟 又 尾 烟 甫 木 烟 淵 洞 烟	水 山 烽 * 指 尾 烽 終 達 烟	首 山 挾 子 金 祿 浦 爲 美 木 浦 木	水 山 俠 子 金 路 浦 又 美 木	首 山 挾 子 (공란) (공란) 金 祿 浦 爲 美
대정 현관 내	居 玉 岳 堀 山 松 岳 毛 瑟 遮 歸 岳	龜 山 嶸 岳 松 瑟 遮 歸	龜 山 烽 伊 頭 烽 貯 別 烽 幕 瑟 烽 堂 山 烽 邊 水 烟 尔 希 川 烟 大 浦 烟 別 老 川 烟 唐 浦 烟 山 房 烟 無 水 烟 西 林 烟 牛 頭 烟	嶸 山 烽	尔 希 別 老 無 首	尔 希 川 別 老 川 茂 首	嶸 山 (공란) (공란) (공란) (공란) 無 首

〈표 3-13〉에서 보듯이,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봉수가 23개소, 『耽羅志』에는 봉수가 25개소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18세기 중반에 편찬된 『耽羅防營摠覽』에 비로소 봉수와 연대가 구분되어 있고, 봉수 24개소와 연대 37개소가 시설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정조 연간에 편찬된 『濟州邑誌』에 와서 정의현의 수산봉수와 종달연대가 설치됨에 따라 이 무렵에 도내 봉수 25개소, 연대 38개소가 정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봉수와 연대의 명칭만 다를 뿐, 25봉수와 38연대가 유지되다가 순조 11년(1811)에 3읍의 연대 중 8개소가 폐쇄되었다¹⁸³⁾고 되어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폐쇄된 연대를 알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耽羅誌草本』의 봉수와 연대는 제주목의 함덕·좌가·귀덕·마두연대, 정의현의 소마로·종달연대, 대정현의 모슬봉수와 마회천·별로천연대 등이 폐쇄되고 있다. 이로 보건대 제주지방에는 봉수 1개소와 연대 8개소가 폐쇄됨에 따라 24봉수와 30연대가 유지된 것 같다.

이와는 별도로 『南甯博物』에는 “도내에 봉수, 연대가 63개소가 된다. 그러나 옛날에는 한라산 허리에 봉수대가 있어 해남의 白梁(白梁烽燧)과 연락하였으나 海霧가 항상 자욱하여 철폐하였다.”¹⁸⁴⁾고 하였다. 이로 보건대, 제주와 전남 지방을 연결하는 봉수가 있었으나 해무로 철폐된 것으로 보인다.

2) 봉수와 연대 현황

(1) 봉수 현황

제주 도내에는 봉수가 25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오름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봉수는 멀리서 적선이 바다를 지나는 것을 살피고, 연변의 급한 보고를 경봉수에 전하는 내지봉수의 기능을 담당했다.¹⁸⁵⁾ 즉 해안 연변에 있는 연변 봉수에서 전달된 급한 보고를 서로 응하는 봉수에 연락하면서 끝으로 사라봉수에 도달케 하고 있다. 따라서 도내에서 사라봉수는 중앙의 경봉수의 기능을 담당하여 각 봉수에서 전달된 급한 보고를 제주목에 전하고 있다.

이들 25개 봉수의 위치, 相應 봉수와 형태를 정리하면 〈표 3-14〉¹⁸⁶⁾와 같다.

183) 『備邊司牒錄』, 純祖 11년 9月 7日條.

以爲三邑煙臺 凡爲三十八處 其中三十處 皆是要衝當存之處 其外八處無甚緊關 置之無用 (中略) 竝令革罷之意 分付如何 答曰允.

184) 李衡祥, 『南甯博物誌』.

185) 朴天衡, 『濟州巡撫御使書啓』, 『書啓輯錄』卷4.

186) 김봉옥·신석하(1996), 전계서, pp.150~201.

〈표 3-14〉 봉수대의 현황과 형태

소 속	봉수명	위 치 (해발)	상 응 봉 수 (거 리)		형 태
濟州牧	紗 羅	사라봉 (148m)	동:원당 (5.1Km)	서:제주성 (2Km)	형태확인불가
	元 堂	원당봉 (170m)	동:서산 (7.8Km)	서:사라 (5.1Km)	2중의 원형 토축 외단 직경 : 27m, 내단 직경:22m
	道 圓	도두봉 (65m)	동:제주성 (5.5Km)	서:수산 (8.6Km)	형태확인불가
	水 山	수산봉 (121m)	북동:도원 (8.7Km)	남서:고내 (4.5Km)	원형의 토축 직경 : 21m, 높이1.5m
	西 山	서우봉 (86m)	동:입산 (8.1Km)	서:원당 (7.8Km)	형태 확인 불가
	笠 山	입산봉 (82m)	동:왕가 (7.1Km)	서:서산 (8.1Km)	형태 확인 불가
	往 可	낮은언덕	동:지미 (6.9Km)	서:입산 (7.1Km)	모래 기반 위에 원형 으로 축조 하부직경:11m 상부직경 :3m
	高 內	고내봉 (175m)	북동:수산 (4.5Km)	남서:도내 (5.6Km)	외벽의 원형 토축 직경18m, 지하굴착 직경: 17.6m
	道 內	어도오름 (143m)	북동:고내 (5.6Km)	남서:만조 (6.4Km)	원형 토축 직경42m, 높이1.7m
	晚 早	느지오름 (225m)	동북:도내 (6.4Km)	남서:당산 (10.9Km)	2중 원형 토축 외단 직경:36m, 내단 직경:30m
大靜縣	龜 山	구산봉 (170m)	동:삼매양 (8.9Km)	서:호산 (10.7Km)	2중 원형 토석축 외단 직경 : 9.4m 내단 직경 : 5.4m
	蟻 山	월라봉 (201m)	남서:저별 (6.8Km)	동:구산 (10.7Km)	원형 석축, 직경:19m 석축외벽높이1.9m, 내벽높이1.1m, 폭2.1m
	貯 別	송악산 (80m)	동북:호산 (6.8Km)	북서:모슬 (5.7Km)	원형 토축 직경 : 24.4m, 둑 보강석 있음
	堂 山	당산봉 (148m)	북동:만조 (10.9Km)	남동:모슬 (14.5Km)	형태 확인 불가
	臺 瑟	모슬봉 (180m)	북서:당산 (14.5Km)	남:저별 (5.7Km)	형태 확인 불가
	南 山	남산봉 (179m)	동:독자 (3.9Km)	남:달산 (4.5Km)	2중 원형 토축 외단 직경 : 32m 내단 직경 : 28.6m

소 속	봉수명	위 치 (해발)	상 응 봉 수 (거 리)		형 태
旌義縣	獨子	독자봉 (159m)	서:남산 (3.9Km)	북동:수산 (7.3Km)	2중 원형 토축 외단 직경 : 28m, 내단 직경 : 19m
	達山	달산봉 (136.5m)	남서:토산 (6.1Km)	서:남산 (4.5Km)	2중 원형 토축 외단 직경 : 24m 내단 직경 : 21.6m
	兎山	토산오름 (157m)	서:자배 (9.3Km)	동:달산 (6.1Km)	2중 원형 토축 외단 직경 : 30m 내단 직경 : 28m
	水山	수산봉 (137m)	남서:독자 (7.3Km)	북동:성산 (4.2Km)	2중 원형 토축 외단 직경 : 45m 내단 직경 : 29.6m
	城山	성산일출봉 (182m)	남서:수산 (4.2Km)	북서:지미 (5.4Km)	형태 확인 불가
	指尾	지미봉 (165m)	남동:성산 (5.4Km)	북서:왕가 (8.3Km)	2중 원형 토축 외단 직경 : 42.8m 내단 직경 : 24m
	資盃	자배봉 (211m)	남서:호촌 (6.7Km)	북동:토산 (9.3Km)	2중 원형 석축 외단 : 확인 곤란 내단 직경 : 11m
	狐村	예촌봉 (68m)	북동:자배 (6.7Km)	서:삼매양 (8Km)	형태 확인 불가
	三每陽	삼매봉 (153m)	동:호촌 (8Km)	서:구산 (8.9Km)	형태 확인 불가

〈표 3-14〉에서 보듯이, 제주목에 소속된 봉수는 10개소로 사라·원당·도원·수산·서산·입산·왕가·고내·도내·만조 봉수이고, 정의현에 소속된 봉수는 10개소로 남산·독자·달산·토산·수산·성산·지미·자배·호촌·삼매양 봉수이다. 그리고 대정현에 소속된 봉수는 5개소로 구산·호산·저별·당산·모슬 봉수이다. 이 봉수들은 서로 응하는 봉수에 연락을 취하여 중앙의 경봉수의 기능을 하고 있는 사라봉수에 도달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사라봉수에서는 제주목에 급한 보고를 전하였다.

(2) 연대 현황

제주 도내에 연대가 38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해안 구릉에 위치하고 있다. 연대는 가까이서 적국의 배가 어떤 곳에 와서 정박하는가를 자세히 관찰하는 동시에 해안 변경인 최전방에 위치한 연변봉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¹⁸⁷⁾ 그러기에 연변봉수의 임무 수행이 가장 힘들었다. 따라서 연변봉수의 기능을 돕기 위하여 요새적인 시설인 연대가 구축되었다.

187) 朴天衡, 「濟州巡撫御使書啓」, 『書啓輯錄』 권4 : 煙臺所以近察賊船之來泊也.

해안 구릉에 위치한 연대는 급한 소식을 서로 상응하는 연대에 전하는 동시에 가까이 있는 봉수에도 연락을 취하고 있다.

제주 도내의 연대 중 제주목에 소속된 연대는 18개소이고, 정의현에 소속된 봉수는 11개소, 대정현에 소속된 봉수는 9개소로 모두 38연대가 있다. 이들 38개 연대의 위치, 상응하는 연대와 형태를 정리하면 <표 3-15>¹⁸⁸⁾

<표 3-15> 연대의 현황과 형태

소 속	연대 명	위 치 (해안이격거리)	상 응 봉 수 (거 리)		형 태
제주목	修近	제주시 용담동 (25m)	동:별도 (6.5km)	서:조부 (6.9km)	1978년 복원
	藻腐	제주시 외도동 (30m)	동:수근 (6.9km)	서:남두 (6.9km)	상부6.5m×4.7m, 하부6.6m×5.1m 높이 2.3m, 거친돌 허튼층 쌓기
	別刀	제주시 화북동 (해안선과 접함)	동:조천 (6.7km)	서:수근 (6.5km)	지대석 규모 : 가로 26m, 세로 3.1m 높이 2.5m
	朝天	조천읍 조천리 (50m)	동:왜포 (1.8km)	서:별도 (6.7km)	1975년 복원
	倭浦	조천읍 신흥리 (100m)	동:함덕 (0.7km)	서:조천 (1.7km)	외부직경 7.6m, 내부직경 2.4m 외벽과 내벽 폭 1.8m 타원형으로 내·외벽의 2중 벽체 외벽높이 2.7m 내벽높이 1.2m
	威德	조천읍 함덕리 (해안과 접함)	동:무주 (13.1km)	서:왜포 (0.7km)	상부훼손, 하부폭 7.9m×8.1m 가로쌓기와 모쌓기 병행 축조
	無注	구좌읍 월정리 (30m)	동:좌가 (4.5km)	서:함덕 (13.1km)	형태 확인 불가
	佐可	구좌읍 한동리 (230m)	동:입두 (2.3km)	서:무주 (3.2km)	상부 훼손, 하부폭 7.6m×8.4m 거친돌 허튼층쌓기,
	笠頭	구좌읍 평대리 (260m)	동:종달 (6.7km)	서:좌가 (2.3km)	모래지반만 남아 있음
	南頭	애월읍 신엄리 (40m)	동:조부 (6.9km)	서:애월 (4.2km)	1977년 개축, 큰사다리꼴 상부 6.3m×6.4m, 하부7.9m×7.6m 높이 3.9m, 난간벽 폭1.7m, 높이0.6m 사선의 거친돌 허튼층쌓기, 테두리는 바른층쌓기

188) 김봉옥·신석하(1996), 전계서, pp.200~273.

소 속	연대명	위 치 (해안이격거리)	상 응 봉 수 (거 리)		형 태
제주목	涯月	애월읍 애월리 (450m)	동:남두 (4.2km)	서:귀덕 (3.2km)	상부 8.3m×8.2m, 하부 9.3m×9.4m 높이 4.8m인 사다리꼴 난간벽 폭 1.1m, 높이 0.7m 거친돌 허튼층 쌓기
	歸德	한림읍 귀덕리 (90m)	동:애월 (3.3km)	서:우지 (1.3km)	모래 언덕 위에 축조 지대석 일부만 남아 있음
	牛池	한림읍 귀덕2리 (300m)	동:귀덕 (1.3km)	서:죽도	1976년 복원 상부 8.5m×8.5, 하부 8.9m×8.7m 높이 2.3m인 사다리꼴 난간벽폭2m, 높이1.4m, 입구폭 1.1m 거친돌 허튼층 쌓기
	竹島	한림읍 한수리	동:우지	서:마두	위치 확인 불가
	馬頭	한림읍 한림리	동:죽도	서:배령	위치 확인 불가
	盃令	한림읍 금능리 (100m)	동:마두	서:대포 (4.1km)	하부직경 4.9m 상부직경 1.6, 높이 1.9m인 원형, 화덕자리 직경 1.6m, 잡석쌓기로 축조
	大浦	한림읍 금능리 (180m)	동:배령	서:두모	형태 확인 불가
	頭毛	한경면 두모리 (해안과 접함)	동:대포 (1.2km)	서:우지 (3.7km)	상부훼손, 하부 6.7m×4.7m의 방형 막돌을 이용한 허튼층 쌓기
정의현	伐浦	남원읍 태흥2리 (300m)	동:소마로 (6.7km)	서:금로포 (5.2km)	형태 확인 불가
	所尔路	표선면 표선리 (400m)	동:천미 (5.3m)	서:벌포 (6.7km)	상부 7.4m×7.6, 하부 7.6m×7.9m 높이 2.6m인 사다리꼴 거친돌 허튼층쌓기
	川尾	성산읍 신천리 (400m)	동:말등포 (6.9km)	서:소마로 (5.3km)	상부7.2m×7.4m, 하부7.8m×7.9m 높이 3.6m인 사다리꼴 난간벽 폭1.1m, 높이0.7m 거친돌 허튼층 쌓기
	末等浦	성산읍 은평리 (550m)	동:협자 (5.3km)	서:천미 (6.9km)	상부 9.9m×9.4m 하부10.4m×10.5m 높이 3.6m인 사다리꼴 연대 상부에는 화덕자리 직경 1.9m 거친돌 허튼층 쌓기

소 속	연대명	위 치 (해안이격거리)	상 응 봉 수 (거 리)		형 태
정의현	俠子	성산읍 고성리 (50m)	북:오소포	서:말등포 (5.3km)	상부 8.6m×8.6m, 하부9m×8.9m 높이 3.1m인 사다리꼴 연대 상부에는 화덕자리 직경 4.2m 거친돌 허튼층쌓기
	吾召浦	성산읍 오소리 (20m)	남:협자	북:종달 (9.2km)	기단석만 남아 있음 가로 8.4m, 세로 6m
	終達	구좌읍 종달리 (70m)	남:오소포 (9.2km)		서:입두 기단석 일부만 남아 있음
	淵洞	서귀포시 서호동 (100m)	동:보목	서:변수 (2.9km)	하부직경 9.5m, 상부직경 6.3m, 높이 2.4m인 원형에 유사한 형태
	甫木	서귀포시 보목동 (70m)	동:우미 (7.6m)	서:연동 (7.4km)	형태 확인 불가
	又美	남원읍 위미리 (200m)	동:금로포 (2.3km)	서:보목 (6.5km)	기단부만 남아 있음 하부폭 8.5m×9.3m
	金路浦	남원읍 남원리 (280m)	동:별포 (5.2km)	서:우미 (2.3km)	형태 확인 불가
대정현	邊水	서귀포시 강정동 (300m)	동:연동 (2.9km)	서:마회천 (1.8km)	형태 확인 불가
	ㄱ希川	서귀포시 강정동 (130m)	동:변수 (1.8km)	서:대포 (4.5km)	형태 확인 불가
	大浦	서귀포시 대포동 (25m)	동:마회천 (4.5km)	서:별로천 (2.6km)	바다쪽의 벽체의 일부만 남아 있음
	別老川	서귀포시 색달동 (70m)	동:대포 (2.6km)	서:당포 (2.3km)	형태 확인 불가
	唐浦	서귀포시 하예동 (150m)	동:별로천 (2.3km)	서:산방 (5.7km)	기단부 1단만 남아 있음 가로8.6m, 세로7.1m의 방형
	山房	안덕면 사계리 (100m)	동:당포 (5.7km)	서:무수 (6km)	기초석만 남음
	西林	대정읍 일과리 (30m)	동:무수 (3.2km)	서:우두	1977년 복원 상부 8.5m×8.6m, 하부9.4m×9.8m 높이3.9m인 사다리꼴 난간벽 폭1.5m, 높이0.4m 해변의 석재를 이용한 허튼층쌓기
	茂首	대정읍 하모리 (170m)	동:산방 (6km)	서:서림 (3.2km)	형태 확인 불가
	牛頭	한경면 용수리 (20m)	동:서림 (11.9km)	서:두모 (3.7km)	일부 벽체만 남아 있음

IV. 관방시설 분석과 특징

1. 읍성과 진성

1) 축조시기

제주도의 방어시설의 주축을 이루는 邑城과 鎭城은 시기를 달리하여 축조·개축되었다. 읍성과 진성의 初築과 현재의 형태로 개축된 시기를 정리하면 <표 4-1>과 같다.

<표 4-1> 읍성과 진성의 축조

구분	성곽명	初 築		改 築	
		시 기	축 조 자	시 기	축 조 자
3성	제주읍성	태종 8년(1408) 이전에 축조됨	?	중종 25년(1530) 이전	-
	정의읍성	세종 5년(1423)	판관 최치렴		
	대정읍성	태종 17년(1417)	현감 유신		
9진	화북진성	숙종 4년(1678)	목사 최관		
	조천진성	고려시대 ~ 조선 시대 초기	?	선조 23년(1590)	목사 이육
	별방진성	중종 5년(1510) ~ 중종 25년(1530)	목사 장립		
	애월진성	고려시대	삼 별 초	선조 14년(1581)	목사 김태정
	명월진성	중종 5년(1510) ~ 중종 25년(1530)	목사 장립	선조 24년(1592)	목사 이경록
	수산진성	세종 21(1439) ~ 세종25년(1443)	?	선조 32년(1599)	목사 성윤문
	서귀진성	중종 5년(1510) ~ 중종 25년(1530)	?	선조 23년(1590)	목사 이육
	모슬진성	숙종 2년(1676)	목사 윤창형		
	차귀진성	세종 21(1439) ~ 세종25년(1443)	?	효종 3년(1652)	목사 이원진

제주의 3읍성 중 제주 읍성은 태종 8년(1408) 이전에 축조되었으나,¹⁸⁹⁾ 당초의 축조 시

189) 『太宗實錄』太宗 8年 9月 甲午條

기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제주읍성의 규모는 『新增東國輿地勝覽』이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同書가 편찬된 1530년 이전에 현재의 읍성으로 개축된 것으로 보인다.

정의·대정읍성은 태종 16년(1416)에 3읍으로 분리되면서 축조되었으나, 정의읍성은 당초 고성리에 축조되었다. 그러나 정의읍성의 위치가 행정적인 불편을 초래하고, 왜구의 잦은 침해를 입을 뿐 아니라, 주민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세종 5년(1423)에 팍숨리로 移築되었다.

진성의 축조는 세종 21년(1439)에 濟州 都安撫使 韓承舜이 竹島 인근에 있는 차귀방호소와 牛島 인근에 있는 수산방호소에 대한 축조를 건의함으로써 비롯되었다.¹⁹⁰⁾ 그 후 세종 25년(1443)에는 수산·차귀진성에 이어 김녕·명월·서귀방호소에도 진성의 축조를 건의하였다.¹⁹¹⁾ 또한 중종 5년(1510)에 장림 목사가 7개의 진성에 대한 축조를 건의하였고,¹⁹²⁾ 이 무렵에 4개의 진성이 축조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新增東國輿地勝覽』 제주 3읍의 관방조에 수산·차귀 외에도 명월·별방·서귀·동해진성이 축성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처음 쌓은 시기가 확실하지 않은 조천진성은 선조 23년(1590)에 증창된 것으로 보아 16세기에 이미 축조되었다. 따라서 고려시대에 삼별초군이 축조한 애월목성을 포함하여 9개소의 진성 중 8개소는 이미 16세기초에 축조·개축되었다.

다만 모슬진성은 숙종 2년(1676)에 동해진성에서 移築되었고, 화북진성은 숙종 4년(1678)에 축조되었다.

이와 같이 제주도의 방어시설 중 읍성은 15세기초에 3읍으로 분리되면서 축조·개축되었다. 그리고 진성 중 차귀·수산진성은 15세기에 축조되었고, 모슬진성과 화북진성을 제외한 6개 진성은 16세기에 축조되었다. 그리고 17세기에 동해진성이 모슬진성으로 移築됨과 더불어 화북진성의 축조로 현재의 3읍성과 9진성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진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은 18세기에 발행된 『濟州邑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성곽의 규모와 문헌에 사용한 용척

읍성과 진성의 규모는 문헌과 시기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성곽의 증축, 용척의 차이 혹은 기록자의 오차로 인하여 성곽의 규모에 차이가 있다. 읍성과 진성의 둘레를 정리해 보면 <표 4-2>와 같다.

각종 문헌에는 읍성과 진성에 사용한 용척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성곽의 규모는 지적도 및 현지 조사의 결과에서 추정된 둘레를 중심으로 용척별로 환산하여 성곽 둘레의 차이를 검토해 보았다.

190) 『世宗實錄』世宗 21년 閏2월 壬午條

191) 『世宗實錄』世宗 25년 正月 丙寅條

192) 『中宗實錄』中宗 5년 9월 己巳條

〈표 4- 2〉 읍성과 진성의 규모

성곽명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현재
	『新增東國輿地勝覽』	『南槎錄』	『耽羅志』	『濟州邑誌』	『濟州大靜旌義邑誌』	『耽羅誌草本』	지적도 및 실측에 의한 추정치
제주읍성	4,394자	-	5,489자	5,489자	10리	5,489자	-
정의읍성	2,986자	3,013자	2,986자	2,986자	1,990보	1,593보	1,200m
대정읍성	2,647자	2,800자	4,890자	4,090자	3,200보	4,890자	1,260m
화북진성	-	-	-	606자	303보	303보	187m
조천진성	-	430자	428자 7치	428자	240보	240보	128m
별방진성	2,390자	2,390자	2,390자	2,890자	1,081보	1,081보	960m
애월진성	-	-	549자	549자	255보	255보	245m
명월진성	3,020자	3,050자	3,020자	3,020자	715보	715보	1,360m
수산진성	1,264자	-	1,164자	1,164자	582보	1,164자	544m
서귀진성	161자	500자	825자 5치	825자	415보	825자	-
모슬진성	-	-	-	315자	210보	335자	-
차귀진성	1,466자	1,190여 자	2,466자	2,466자	1,644보	1,190여 자	620m

먼저 16세기에 편찬된 『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록된 성곽 둘레와 현재의 둘레를 비교하여 용척 별로 환산한¹⁹³⁾바, 포백자로 하면 대부분 현재 성곽의 둘레와 유사하다. 다만 정의읍성은 195m, 별방진성은 156m이 오차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50m 내외이다. 따라서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사용된 용척은 포백자로 보인다. 이것은 충남지방의 읍성 둘레를 분석한 사용하는 자의 예와 유사하다.¹⁹⁴⁾

193) 『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록된 성곽 중 후대에 증축(개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의읍성, 대정읍성, 별방진성, 명월진성, 차귀진성의 둘레를 용척별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m)

용척	기준치	정의읍성 (2,986척)	대정읍성 (2,647척)	별방진성 (2,390척)	명월진성 (3,020척)	차귀진성 (1,466척)
주척	21.04Cm	628.3	556.9	502.8	635.4	308.4
영조척	31.21Cm	931.9	826.1	745.9	942.5	457.5
포백척	46.80Cm	1,375.9	1,238.8	1,118.5	1,413.4	686.1
현재길이		1,200	1,260	960	1,360	620

194) 심정보(1996), 전계서, p.347.

『南槎錄』은 성곽 둘레의 단위를 포백자로 사용하고 있으나, 〇〇여 자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기록자가 오차를 인정하여 「여 자(餘尺)」로 기록한 것 같다. 이와 같이 성곽의 규모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검토하는 것을 후일로 미루고자 한다.

17세기의 중요한 邑誌인 『耽羅志』에 나타난 읍성과 진성에 사용한 용척은 후대의 기록에 기준이 되고 있다. 물론 『新增東國輿地勝覽』과 비교하면, 정의읍성, 별방진과 명월진성은 성곽의 둘레가 같다. 그러나 제주읍성·대정읍성·서귀진성·수산진성·차귀진성의 규모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耽羅志』의 제주읍성은 『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록된 성곽의 규모 보다 1,095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바로 명종 21년(1566)에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郭屹 목사가 동쪽으로 성을 확장함¹⁹⁵⁾으로써 성곽 둘레가 증가되었다.

그리고 『耽羅志』의 대정읍성은 증축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2,243자가 증가한 4,890자이다. 즉 지적도에 의한 추정치 성곽의 둘레인 1,200m를 용척별로 환산한¹⁹⁶⁾ 바, 비록 232m의 오차는 있지만 가장 근사치인 1,018m가 되는 周尺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귀진성은 당초 161자에서 825자 5치로 664자 5치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바로 선조 23년(1590)에 李沃 목사가 홍로천 상류에서 하류로 진성을 옮기면서¹⁹⁷⁾ 증축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수산 진성의 규모는 100자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이는 바로 수산 진성을 선조 30년(1597)에 성산으로 이축한 후, 선조 32년(1599)에 환원하면서¹⁹⁸⁾ 100자의 규모를 축소하여 정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의 수산진성의 규모는 1,164자를 포백자로 환산하면 현재의 성곽 길이인 544m가 된다.

차귀진성은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비해 1,000자가 증가하고 있다. 『耽羅志』에는 증축 또는 移築에 대한 기록이 없으나 『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록된 차귀진성보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정읍성의 예와 같이 용척의 차이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따라서 周尺으로 환산하면 513m로 현재의 길이와 107m의 오차가 있으나 가장 근사치이다.

따라서 『耽羅志』에 사용하는 용척은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사용된 포백자와 주척을 혼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의 邑誌인 『濟州邑誌』에 나타난 성곽의 둘레는 대부분 『耽羅志』의 기록과 유사하다. 다만 별방진성이 500자가 증가한 것은 기록자의 오차인지 용척의 차이인지 분명하지 않다.

195)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8, 濟州牧 城郭條.

196) 대정읍성의 둘레인 4,890尺을 用尺별로 환산하면, 布帛尺은 2,285m, 周尺은 1,018m, 營造尺은 1,527m이다. 따라서 현재의 성곽 둘레가 약 1,200m임을 감안한다면 가장 근사치는 周尺으로 환산한 1,018m이다.

197) 金尙憲, 『南槎錄』.

198) 李源祚, 『耽羅誌草本』 卷4, 鎮堡條.

『濟州大靜旌義邑誌』에는 성곽의 둘레를 步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성곽의 규모를 검토한 결과 1步當 4.5~6.6자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1보를 6자의 비율을 적용한¹⁹⁹⁾ 것과 유사하다.

『耽羅誌草本』에는 보와 자를 혼용하여 성곽의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성곽의 규모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차귀진성으로 『南槎錄』에 기록된 바와 같이 1,190여 자이다. 이는 바로 기록자가 성곽의 둘레를「여 자(餘尺)」로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곽 둘레의 차이에 대하여는 후일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읍성과 진성의 규모는 축성 목적과 지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18세기 읍지인 『濟州邑誌』를 중심으로 보면, 읍성의 둘레는 제주읍성·대정읍성·정의읍성이 순으로 규모가 크며, 그 둘레는 5,500자로부터 3,000자까지다.

진성의 둘레는 명월진성이 3,020자 별방진성이 2,890자, 차귀진성이 2,466자, 수산진성이 1,264자로 다른 것에 비하여 규모가 큰 것으로 보아 그 중요도가 매우 높은 것 같다. 즉 왜침을 많이 받는 요충지에 위치한 진성은 그 규모가 다른 것에 비하여 컸으며 鎭將도 萬戶로 임명하기도 하였다. 이외에 화북·조천·애월·서귀·모슬진성은 그 둘레가 1,000자 미만이다.

3) 입지여건

읍성은 행정적인 기능과 군사적인 기능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하여 축성된 되었다. 반면에 진성은 군사적인 기능을 위주로 하여 축성하였다. 따라서 읍성과 진성의 입지 여건은 다를 수가 있다. 즉 제주에 부임하는 守令마다 읍성과 진성이 입지적 여건의 좋지 못하여 자주 이설에 관하여 논의되었다.

- ㉠. 전라도 도관찰사가 사의를 올려 “정의 현감 李貽의 보고에 의하면 …… ‘정의현을 본 읍으로 삼으라는 敎旨가 있었다.’고 하나, 그 곳에 합속된 4현이 한라산 남쪽에 연달아 배치되어 있어, 만약 정의현을 본 읍으로 삼는다면 호아현·홍로현은 서로의 거리가 3惠(90里)이 넘습니다. 그곳 백성의 왕래, 공사로 인한 접대, 목장을 고찰하는 등의 일에 폐단이 실로 적지 않습니다. 마땅히 정의땅 중앙인 西村·眞舍·兎山 중에서 지리가 적당한 곳에 읍성을 배치하고, 만약에 그곳을 방어할 경우라면 현감이 순풍인 때 군대를 거느리고 정의진을 방어하게 하십시오.”²⁰⁰⁾
- ㉡. 옛 정의현은 현 동쪽 27리에 있다. 원나라 목자 哈赤이 여기서 고을 만호를 살해하였다. 吳湜이 삼읍을 나눌 때 현을 두었는데 지경이 우도에 가까워 아침저녁으로 鼓角 소리가 들리고, 大風이 자주 몰아쳐 농작물이 여물지 않았다. 왜구가 자주 침범하니 세종 5년(1423) 안무사 정간이 조정에 건의하여 재가를 받아 진사에 현을 옮기니 지금의 治所이다.²⁰¹⁾
- ㉢. 정의·대정의 두 현은 성내에 샘물이 없기 때문에, 정의현에서는 15리 밖에서 물을 길어 오고,

199) 『華城城役儀軌』에서는“周尺으로 보면 1步는 6尺이고, 營造尺으로 보면 1步는 3尺8寸”이라 하였다.

200) 『太宗實錄』太宗 17年 5月 甲辰條

201) 李元鎣, 『耽羅志』旌義縣 古蹟條.

대정현에서도 5리 밖에서 물을 길어 옵니다. (중략) 청컨대 정의는 토산으로 옮기고, 대정은 감산으로 옮기게 하십시오.²⁰²⁾

- ㉔. 제주 및 대정읍성 내에는 모두 井泉이 없습니다. 제주는 동문 밖 40여步, 대정에는 남문 밖 70여步의 땅에 小川이 있어서 비록 가뭄어도 마르지는 않습니다. 청컨대 웅성을 쌓고 流水를 성중으로 끌어들여서 완급에 대비하십시오.²⁰³⁾
- ㉕. 지금 정의, 대정의 흙을 보니 모두 평원에 설치되어 있어, 지형의 이점을 택하지 않았고, 양쪽 성의 주위는 1천 여 보가 되어 광대, 공허하고 保守하기가 심히 어려우니 형세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두 현의 성밖에는 모두 멀리까지 평야가 있고, 인가는 적어 20리 사이에서 연기를 바라볼 수 없으니 비록 변고를 당한다 하더라도 서로 구할 수 없어 人和를 얻지 못합니다. 두 성안에는 모두 수원이 없어서 멀리 5리 밖에서 물을 길어 오니, 추운 때나 더운 때에 멀리서 물을 길어 오는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화재를 만나면 또 어떻게 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뜻밖에 일을 만나면 어떻게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중략) 정의현은 서쪽 50리쯤에 있는 靈泉館으로, 대정현은 5리쯤에 있는 把古山(簾山 : 지금의 안덕면 사계리)으로 옮겨야 합니다.²⁰⁴⁾
- ㉖. 정의현 동쪽 牛峯과 대정현 서쪽 竹島는 예로부터 왜선이 몰래 정박하니 가장 요해지입니다. 우도 인근의 수산과 죽도 인근의 차귀방호소는 모두 성곽이 없으니, 왜적이 밤에 침범하여 돌입한다면 군사들이 의지할 곳이 없어 응전하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적당히 헤아려 축성하고 적변에 대응하게 하십시오.²⁰⁵⁾
- ㉗. 별방 진성은 동쪽과 북쪽이 바다에 임하였고, 포구의 공간이 몹시 좁고 甬道 나온 돌 모서리가 날카로워 배를 정박할 수 없다. 성을 설치하여 방어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²⁰⁶⁾
- ㉘. 수산 진성은 이도원 어사가 "바다와 10리나 떨어져 있어서 방어에 어려우므로 성산, 오조, 고성 등지로 옮기자."고 건의하였다.²⁰⁷⁾
- ㉙. 명월 진성은 서북쪽이 바다에 임하였고, 진 앞에는 배를 정박할 곳이 없으나, 진의 서쪽 3리쯤에 獨浦가 있어서 어선이나 상선이 와서 정박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또 제주와 대정 사이에 위치하여 토지가 비옥하고 어재가 풍부하여 9진 중 으뜸이다. 성지가 광활하고 샘물과 창고가 있어서 충분히 자급할 수 있다.²⁰⁸⁾
- ㉚. 애월 진성은 북면이 바다에 임하였고, 포구에 배를 정박하기에는 장애물이 없다. 성안이 낮고 좁으며 우물과 저장할 양식이 없어서 외적이 침입하였을 때 방어가 어렵다.²⁰⁹⁾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읍성의 입지 조건 중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水源의 확보이다.²¹⁰⁾ 성내에 물이 없기에 이설의 필요성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㉑과 ㉒에 의하면, 정의현이 너무 동쪽으로 치우쳐 있어 행정적 폐단과 왜구의 잦은 침입 등으로

202) 『世宗實錄』世宗 12年 6月 癸酉條.

203) 『成宗實錄』成宗 13年 10月 戊辰條.

204) 『中宗實錄』中宗 20年 9月 甲申條.

205) 『世宗實錄』世宗 21年 閏二月 壬午條.

206) 朴天衡, 『濟州巡撫御使書啓』『書啓輯錄』권4, 규장각 15083-4.

207) 李源祚, 『耽羅誌草本』旌義縣 鐵堡條.

208) 朴天衡, 『濟州巡撫御使書啓』『書啓輯錄』권4.

209) 朴天衡, 상계서.

210) 심정보(1995), 전계서, p.353에서, 읍성의 입지조건 중에는 성내가 넓고 평평하며 수원 역시 풍부한 곳을 城基 선정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주민들이 불편을 겪음에 따라 정의현을 고성에서 진사리로 이설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㉔에서는 읍성의 입지 조건으로 수원 확보뿐만 아니라 인가와 너무 떨어져서도 안 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읍성은 행정적인 기능인 주민의 편의와 군사적인 기능인 왜침의 방어를 고려하여 성을 축조할 곳을 선택하였다.

진성은 요해지에 군사적인 목적으로 축성되었다. 즉 ㉔에서처럼 왜선이 자주 정박하는 牛峯과 竹島를 방어하기 쉬운 곳에 축성하고 있다. 4면이 바다인 제주도는 해안을 통해서만 외침을 받을 수 있기에, ㉔처럼 해안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진성은 해안 쪽으로 이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진성 안에는 광활해야 하며 그 안에서 수원이 확보되었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보관할 창고가 있어야 했다. 그리고 해안에 축성한 진성과 연계된 포구를 이용함에 불편이 있어서도 안되었다. 따라서 진성은 군사적인 기능인 왜구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하여 요해지에 축성된 동시에 읍성과 같이 수원 확보와 주민의 편의도 고려하여 축성지를 선택하고 있다.

4) 유형

읍성과 진성의 유형을 분류함에 있어서는 축성재료, 입지한 지형, 그리고 그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1) 축성재료로 본 읍성과 진성의 유형

성곽의 축성재료에는 나무와 鹿角, 흙, 石材가 대표적이다. 축성 재료에 대하여 문종 원년(1451)에 皇甫仁이 “鹿角은 長久한 계획이 아니므로 흙으로 성을 축성하고자 하는데 어떤가 하니, 城堡는 들로 쌓는 것이 가장 좋지만 功이 많이 들어 어려우니 흙으로 쌓는 것도 좋다.”고 임금께 답하고 있다.²¹¹⁾ 즉 성곽의 축성 재료로는 목재(鹿角), 흙 및 石材가 모두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石城이 가장 좋지만 간혹 鹿角城이나 토성이 축조되고 있다.

제주도의 성곽은 고려시대 축성된 향파두리 토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석성이다. 즉 읍성과 진성은 모두 석재로 축성하였다. 다만 애월진성은 고려시대 삼별초가 목성으로 축성하였다가 선조 14년(1581)에 金泰廷 목사가 石築으로 개축하였다.²¹²⁾ 뿐만 아니라 중종 5년(1510)에 張琳 목사가 木城으로 축조한 명월진성도 선조 25년(1592) 李慶祿 목사가 석성으로 개축하였다. 석성의 축조는 흙이나 목재로 축성하는 것보다는 많은 공력이 들지만 자연적인 여건상 석재 확보가 쉽기 때문이다.

211) 『文宗實錄』 文宗 元年 2月 丁亥條,

上又問仁曰 黃海道體察使鄭討 請鹿角非長久之計 欲築土爲城 卿意何如 對曰 凡城堡用石爲上 然功重難 辨築土爲良.

212) 李源祚, 『耽羅誌草本』 鐵堡條.

(2) 지형과 형태로 본 읍성과 진성의 유형

입지조건에 대해서 앞절에서 언급했다. 읍성과 진성은 평지성이다. 이를 지형에 따라 세분하면 대부분은 해안에 위치한 해안성이다.

- ㉠ 내륙성 : 정의읍성, 대정현성, 차귀진성, 수산진성
- ㉡ 해안성 : 제주읍성, 화북진성, 조천진성, 별방진성, 애월진성, 명월진성, 서귀진성, 모슬진성

이와 같이 해안성이 많은 것은 4면이 해안인 섬이라는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 때문이다. 따라서 해안성은 해안으로 침입하는 왜구를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인 기능이 많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형태 면에서는 우리 나라 읍성이 입지하는 지형조건이 자연적인 방어력을 고려하여擇定되었기에 넓은 평야일 경우는 방형 및 원형으로 축조했다. 그러나 대부분 지형조건에 알맞게 읍성이 축조됨에 따라 방형 및 원형이라기보다는 부정형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옛 지도에 보이는 성곽의 형태는 대부분 원형 또는 방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바로 실제의 형태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성곽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다.²¹³⁾

조선시대 숙종조에 李衡群 제주 목사의 『耽羅巡歷圖』에도 읍성과 진성의 형태가 대부분 원형과 타원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성곽이 실제의 형태라기보다는 성곽에 대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제주도의 읍성과 진성의 형태는 방형, 원형 또는 타원형과 부정형(형태 확인 곤란)으로 나눌 수 있다. 원형과 타원형의 구분이 어려워 하나의 형태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 ㉠ 방형 : 정의읍성, 대정읍성, 수산진성, 차귀진성
- ㉡ 원형(타원형) : 화북진성, 조천진성, 별방진성, 애월진성, 명월진성
- ㉢ 부정형, 형태불명 : 제주읍성, 모슬진성, 서귀진성

형태 확인이 곤란한 제주읍성을 제외한 정의·대정읍성은 방형으로 축조되었다. 그리고 진성 중에 형태확인 곤란한 모슬진성과 서귀진성을 제외한 7개의 진성 중에 수산진성과 차귀진성은 방형으로 축조되었고, 나머지는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축조되었다.

물론 읍성과 진성의 형태는 방형·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축조되었지만 세부적으로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즉 읍성의 경우는 방형 중에 귀가 죽은 방형이기에 이를 타원형에 포함시켜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제주도의 읍성 중 형태를 확인할 수 없는 제주읍성을 제외한 정의읍성과 대정읍성은

213) 李相謙(1983), 「조선중기 읍성에 관한 연구 : 輿地圖書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공학석사학위논문.

방형으로 축조되었다. 이러한 방형의 형태는 조선 초기의 평지 읍성의 형태로 각 방향의 중심부에 성문을 두었다.²¹⁴⁾ 따라서 정의읍성과 대정읍성은 조선 초기의 평지 읍성의 형태를 모델로 하여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제주 9진성의 형태는 원형(타원형)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형태는 군사적인 기능인 방어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형태로 보인다. 즉, 정약용은 “尹耕의 『堡約』에 이르기를, ‘堡의 제도는 크고 작음에 한정될 것이 없고, 굽고 곧은 데 한정되지 않는다. 다만 그 안에 많은 군병을 수용하고 밖으로 멀리 감시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큰 것은 작은 것만 같지 못하고, 작으면 튼튼하나 곧은 것은 굽은 것만 못하니 曲하면 지키기에 쉽다.”²¹⁵⁾라 한 바와 같이, 제주의 진성의 형태가 원형(타원형)인 것은 이러한 기본 정신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의 읍성과 진성의 지형과 형태를 종합하면, 조선초기에 축조된 읍성과 진성은 내륙성에 방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반면에 조선중기에 이르러 축조된 읍성과 진성은 해안성에 원형 혹은 타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다.

5) 구 조

성곽에는 성곽의 본체인 성체 이외에 적의 공격시 방어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된 주요 시설로 성문·여장·치성·옹성·해자 등이 있다.

(1) 성문

성문은 성의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로이다. 유사시에는 적의 공격을 막고 전쟁의 형세가 유리할 때에는 적을 역습하거나 격퇴하는 통로였다. 이러한 성문은 통행에 편리한 곳에 만들어 놓아 출입용 구조물로서의 역할을 한다. 성문은 주로 사람의 출입과 필요한 물자를 운송하기 편리한 위치를 택하여 설치했기에 적의 접근도 용이하여 적의 주공격 목표가 되기도 했다.

성문의 수는 성곽의 규모, 축성목적, 지형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정해졌지만 기본적으로 4개 성문을 두었다. 성문의 방향도 동서남북으로 하며, 가능하면 간격도 균등하게 하여 출입의 불편을 줄이고자 했다.

읍성과 진성의 성문 설치 현황을 정리하면 <표 4-3>과 같다.

214) 孫永植(1987), 전계서, p.62.

215) 丁若鏞, 『興猶堂全集』 卷181, 民堡議 堡垣之制,

尹耕堡約曰 堡制 大小不限 曲直無拘 但取內容丁衆 外遠俯逼而已 然大不如小 小則堅 直不如曲 曲則易守.

『堡約』은 尹耕이 쓴 책 이름이다.

〈표 4-3〉 음성과 진성의 성문현황

성곽명	『新增東國輿地勝覽』	『耽羅志』	『濟州邑誌』 『濟州大靜旌義邑誌』	『耽羅誌草本』	지적도에 의한 추정지
제주읍성	-	동·서·남 3문	동·서·남 3문	동·서·남 3문	동·서·남 3문
정의읍성	-	동·서·남 3문	동·서·남 3문	동·서·남 3문	동·서·남 3문
대정읍성	『南槎錄』 4문	-	동·서·남 3문	동·서·남 3문	동·서·남 3문
화북진성	-	-	동·서 2문	동·서 2문	
조천진성	『南槎錄』 동문 1문	동문 1문	1문	동 1문	동 1문
별방진성	동·북 2문	동·남·북 3문	동·남·북 3문	동·남·북 3문	동·서·남 3문
애월진성	-	남·서 2문	남·서 2문	남·서 2문	남·서 2문
명월진성	동·서·남 3문	3문	동·서·남 3문	동·서·남 3문	동·서·남 3문
수산진성	-	좌우 2문	동·서 2문	동·서 2문	동·서 2문
서귀진성	『南槎錄』 남·서 2문	-	동·서 2문	남·서 2문	-
모슬진성	-	-	북 1문	동 1문	-
차귀진성	『南槎錄』 2문	-	동·서 2문	동·서 2문	동·서 2문

제주 3읍성 중 대정읍성의 성문은 당초 동·서·남·북으로 4개소를 설치하였으나, 18세기 이전에 북문이 폐쇄되어 동·서·남 3문만 남았다. 그리고 제주읍성과 정의읍성은 성곽의 축성 당시부터 동·서·남 3문만을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읍성의 성문이 기본적으로 4문으로 설치한 것과 달리 풍수지리에 의해서 북측에 성문을 두지 않은 것이 읍성의 일반적인 형태였다.²¹⁶⁾

이와는 달리 제주의 9진성은 1~3개의 성문을 개설하였다. 즉 1문을 설치한 진성은 조천과 모슬진성이고, 2문을 설치한 진성은 화북·애월·수산·서귀·차귀진성이다. 그리고 3문을 설치한 진성은 별방과 명월진성이다. 이처럼 2문을 설치한 진성이 55%에 달하는 것은 읍성에 비하여 규모도 작지만, 지형여건과 효과적인 방어를 위한 군사적인 면이 충분히 고려되어 시설된 것으로 보인다.

(2) 여장²¹⁷⁾

여장은 적의 화살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시설로 낮게 쌓은 담장이다. 뿐만 아니라 여장은 體城 위에 설치된 구조물이다. 하지만 여장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확실

216) 孫永植(1987), 전계서, pp 61~63.

217) 향토문화개발협의회(1987), 「성곽조사의 이론」, 『문화유적조사요람』, pp.287~292.

이 여장은 다른 용어로 여담, 女堞, 雉堞, 堞, 女垣이라고도 하고, 우리말로는 성각뿔, 성각뿔, 살반이터라고도 한다.

치 않으나, 尉那巖城, 遼東城塚에 여장의 형태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 초기부터 여장이 활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¹⁸⁾

이 여장에 대하여 『華城城役儀軌』에서는

성의 女堞을 塚라고 하는데, 살받이라는 뜻의 塚는 피할 躲를 말한다. 옛날 제도로서 塚의 높이는 6자이고 넓이는 7자인데, 이제 京外의 모든 女牆의 높이가 중간 키쯤 되는 사람의 머리에도 미치지 못하고, 넓이는 數人이 列을 이룰 수가 없을 정도여서 몸을 들릴 경우에 화살을 받기가 쉽다. 그리하여 여러 제도를 참고하여, 마땅히 높이 5자, 넓이 20자로 기준을 삼는다.²¹⁹⁾

라 하였다. 즉 옛 제도의 여장 규격이 적당하지 않아서 『華城城役儀軌』에는 높이 5자, 넓이 20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華城城役儀軌』는 영조자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기준치인 31.22Cm를 적용하면, 높이는 156.1Cm이고, 너비는 624.4Cm이다.

제주도 3읍성의 여장은 제주읍성 404개소, 정의읍성 180개소, 대정읍성 155~240개소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9진성의 여장은 별방진성 139개소, 명월진성 123개소, 모슬진성 22개소, 차귀진성 73개소가 문헌에 기록되어 있으나 나머지 진성의 여장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耽羅歷歷圖』를 참조하면, 제주 9진성에는 여장의 시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문헌 기록에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제주 3읍성과 9진성에 설치되었던 여장은 대부분 훼손되어 규모를 확인할 수 없다.

(3) 응성과 치(치성)



성문과 성체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는 응성, 敵臺와 雉가 있다. 응성은 성문을 밖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설치한 이중의 성벽으로 모양은 반으로 쪼갠 독과 같다. 그리고 치는 성벽에서 적의 접근을 빨리 관측하고 전투시 성벽에 접근한 적을 정면 또는 측면에서 격퇴시킬 수 있도록 성벽의 일부를 돌출 시켜 장방형으로 내 쌓은 구조물이다.

먼저, 응성의 중요성은 “重門에 응성이 없으면 성이 없는 것과 같으니 응성을 쌓을 수 밖에 없다. 이는 아름다움을 찾자는 것이 아니라 견고함에 있으며, 적을 방어함에 절대로 필요하다.”²²⁰⁾라 했다. 즉, 성문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로 응성의 설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성에는 치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산성의 경우에는 성벽과 능선이 교차되는 높은 지점에 치를 만들었고, 평지성에서는 산성보다 일정한 간격으로 치를 설치하였다. 치의 높이는 체성의 높이와 같으나 규모는 일정하지 않다. 특히 치 중에서 성문의 좌우에 설치한 것을 적대라 한다. 이 적대는 성문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문 주변 가까운 측면에 공격할 수 있게 만든 방어시설물의 하나이다.²²¹⁾

218) 孫永植(1987), 전계서, p. 194.

219) 수원시(1977), 『國譯 華城城役儀軌』 上, p.82.

220) 朴齊家, 『北學議』.

221) 孫永植(1987), 전계서, pp.206~208.

치성의 효용성에 대하여

(城堡는 작으면 견고하나) 비록 작은 성이라도 만약 雉城이 없다면 성이 없는 것만 못하다. 우리나라의 성에는 모두 雉城은 없고, 女牆에 砲穴만 약간 파놓았으니 어디에 쓸 것인가. 적이 성 밑에 붙어 돌 머리를 파낸다면 비록 돌을 깨서 던지고 물을 흘려 내려도 모두 賊人의 등에 떨어지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丸箭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성문의 좌우에 곡성을 만들어 甕城을 대신하고, 그 문이 없는 측면에도 曲雉를 설치하며, 그 두 雉城 사이 불과 50~60步지점에 箭丸이 서로 미치게 한다면 성에 붙은 적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²²²⁾

라 하여, 치는 성 밑에 접근하는 적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시설이며 성문 좌우에도 曲城을 설치하여 甕城을 대신토록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조선시대 세종 12년(1430)에 병조에서 성을 축조할 때에는 城面에 굴곡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평평하고 곧은 부분에는 그 지형에 따라 100보마다 1개의 臺[雉]를 축조토록²²³⁾하고 있다. 세종 12년(1430) 이후부터는 치와 웅성이 규칙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치와 웅성은 體城의 축성을 완료한 후에 축조토록²²⁴⁾ 하였기에 제대로 완비되지는 못하였다.

세종 15년(1433)에 병조에서는 “치는 全面 15자, 左右 각 20자의 규모로 하여, 150자에 1개의 치를 설치토록”²²⁵⁾ 하고 있다. 세종 22년(1440)에 崔閔德은 웅성의 길이를 50~60자로 성문에 설치토록²²⁶⁾ 하고 있다.

이를 포백자의 기준치인 46.73cm로 환산하면 치의 규모는 전면의 7m, 좌우면의 9.3m이고, 간격은 70m이다. 그리고 웅성의 둘레는 223m~280m이다.

제주도의 성곽의 웅성과 격대를 정리하면²²⁷⁾ <표 4-4>와 같다.

<표 4-4> 읍성과 진성의 웅성과 치성현황

성곽명	문헌 기록	조사 결과	성곽둘레
제주읍성	『耽羅志』 격대 27	전체적인 개수는 불투명함 치성 3개소만 보존 (간격 65 - 75m)	-
정의읍성	-	웅성 3개소, 치성 9개소 (간격 55m - 125m)	1,200m
대정읍성	『增補文獻備考』 雉堞 4, 甕城 4	웅성 3개소, 치성 6개소 (간격 42m - 140m)	1,260m
명월진성	『知瀛錄』 격대 7개소	웅성 3개소, 치성 7개소 (간격 50m - 140m)	960m
별방진성	『知瀛錄』 격대 7개소	웅성 3개소, 치성 7개소 (간격 70m - 180m)	1,360m
수산진성	-	치성 3개소 (간격 110m - 130m)	544m

222) 丁若鏞, 『與猶堂全集』 권181, 民堡議 民垣之制.

223) 『世宗實錄』 권49, 世宗 12年 9月 壬戌條.

自今各處城時 除城面屈曲處外 平直處隨其地形 一百步築一臺 從之.

224) 『世宗實錄』 권97, 世宗 24年 7月 戊寅條.

225) 『世宗實錄』 권59, 世宗 15年 正月 丁卯條.

226) 『世宗實錄』 卷88, 世宗 22年 3月 癸卯條.

〈표 4-4〉에서 보듯이, 정의읍성과 대정읍성의 각 문에는 옹성을 시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 9진성의 경우에는 별방진성과 명월진성에서만 옹성이 확인되었고, 나머지 7개의 진성은 옹성의 시설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지만 『耽羅巡歷圖』를 보면 대부분의 성곽의 문에는 옹성이 묘사되어 있다.

제주 3읍성의 치성은 정의읍성 9개소, 대정읍성 6개소가 시설되었다. 제주읍성은 전체적인 시설 수를 확인할 수 없지만 『耽羅志』에는 27개소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진성의 雉[치성]는 별방진성 7개소, 명월진성 7개소, 수산진성 3개소가 시설되었으며 나머지 진성에는 雉가 설치되었는지 불분명하다.

치성과 치성의 간격중 가장 짧은 것은 42m, 가장 긴 것은 180m으로 일정하지 않지만, 대부분은 80m~120m의 간격으로 설치되었다. 이는 바로 조선시대 세종 15년(1433)에 150자마다 雉를 설치토록 한 규정보다는 30m 이상 넓게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치의 설치는 성곽을 축조한 후에 성벽에 덧대어 축조하고 있다. 즉 세종 22년(1440) 崔閔德의 上言²²⁸⁾에 따라 우선 성곽을 먼저 축조한 후 치를 설치하였다. 이와 같이 성곽을 먼저 축조한 후에 17~18세기에 이르러 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4) 해자

해자는 성벽 주위에 인공적으로 땅을 파서 도랑을 내거나 자연 하천 등의 장애물을 이용하여 성의 방어력을 증진시키는 성곽 보호시설의 하나이다. 해자는 적의 거동에 방해를 주는 하천, 바다 등을 이용한 '자연 해자'와 인공적으로 壕를 파거나 도랑을 낸 '인공 해자'가 있다.²²⁹⁾

우리 나라의 해자는 삼국시대부터 궁성·도성 등에서 자연해자를 위주로 널리 이용되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해자의 설치가 규칙화된 것으로 보인다.²³⁰⁾

제주 3읍성 중 제주 읍성과 대정읍성에는 해자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읍성 해자의 설치와 관련하여 “널 다리를 해자 위에 걸쳐 人馬를 통하게 하고, 양변의 나무인 형에 쇠줄을 걸어 놓았다. 성에 오르면 줄을 당겨 다리가 들리게 하였다.”²³¹⁾라 했다. 그리고 제주 읍성의 군사에 관한 내용 중 “城門擧橋軍三十七名”²³²⁾라 하여 擧橋軍 37명이 있었다. 고 한 대목이 주목된다. 거교군은 성문을 나와 해자를 건너는 데 필요한 釣橋를 들어올리는 임무를 맡은 것으로 보아 해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合浦 內廂城은 “且帶以壕水 阻以釣橋”²³³⁾라 하여, 壕에 물을 돌리고 釣橋로 막았다고 한

227) 김봉욱·신석하(1996), 전게서.

228) 『世宗實錄』 권88, 世宗 22년 3월 癸卯條.

229) 孫永植(1987), 전게서, pp.212~215.

230) 沈正輔(1995), 전게서, pp.384~385.

231) 嶺山 金聖鐸, 『嶺山全集』.

232) 『濟州兵制烽臺摠錄』, 濟州牧條, 규장각도서 4481.

233)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2, 昌原都護府 關防條·右三道兵馬節制使營 李滄記.

것으로 보아 壕字가 시설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²³⁴⁾

그러나 제주읍성 전체를 둘러서 해자가 설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성곽에 부분적으로 해자를 설치하여 성문 통행은 물론 방어 시설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대정읍성에 "성의 내·외를 빙 둘러서 濠를 너비 10자, 깊이 7자의 규모로 만들고 성 밖에는 탕자나무를 심었다."²³⁵⁾는 기록으로 보아, 너비 10자, 깊이 7자의 규모로 壕字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즉 당시의 성곽의 둘레는 周尺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를 周尺으로 환산하면 너비가 10자이면 210.4cm이고, 깊이가 7자이면 147.28cm로 규모가 작은 해자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조천진성에도 擧橋가 있었지만 조천 진성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기에 통행을 위한 시설물로 보인다.

(5) 축조공법

제주 3읍성과 9진성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곳은 없다. 따라서 성곽의 축조 공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성곽의 내·외벽에 대한 축조기법을 검토해 보자 한다.

제주 3읍성과 9진성은 제주도 현무암을 治石한 후 허튼층쌓기로 축조하였다. 제주 3읍성과 9진성의 축조 공법은 대부분 협축으로 축조되었다.²³⁶⁾

제주 3읍성과 9진성의 성체의 외벽의 기울기는 직선형 성벽과 곡선형 성벽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직선형에는 단경사, 복경사와 유단경사가 있고, 곡선형에는 흘형과 궁형이 대표적이다.

제주 3읍성과 9진성의 외벽의 기울기는 성벽의 안정성과 방어능력에 크게 달라진다. 즉 경사비율이 적으면 성벽이 완만하여 성벽의 안정성이 있으나 방어력이 감소되고, 반대로 경사율이 크면 급경사가 되어 방어력은 있으나 안정성이 부족하여 붕괴의 우려가 커진다.²³⁷⁾

제주 3읍성과 9진성의 성벽의 외벽 기울기는 대부분 직선형이고, 단경사를 이루고 있다.²³⁸⁾ 즉 제주 3읍성과 9진성의 성벽을 일정한 경사비율에 따라 성벽 하단부터 상단까지 쌓아 올렸다. 따라서 제주 3읍성과 9진성은 안정성보다는 방어 능력에 중점을 두어 축조했음을 알 수 있다.

234) 沈正輔(1995), 전계서, pp.384~385.

235) 『濟州邑誌』.

236) 김봉옥·신석하(1996), 전계서, p.93에서, 화북진성과 애월진성의 축조공법을 내탁으로 보고 있으나, 정밀조사를 통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37) 孫永植(1987), 전계서, p.178.

238) 김봉옥·신석하(1996), 전계서, p.67, p.93에서 화북진성과 애월진성의 외벽 기울기를 궁형으로 보고 있으나, 정밀조사를 통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봉수와 연대

1) 봉수와 연대의 시기별 변천

제주도의 봉수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고려말의 기록이 되어 있는 『東史綱目』에 나타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상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조선시대 세종 21년(1439) 안무사 韓承舜의 啓를 통하여 제주목에 10개소, 정의현에 7개소, 대정현에 5개소 등 모두 22개의 봉수가 도내에 시설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도내에 있는 봉수와 연대의 설치 현황을 각 시기별로 정리하면 <표 4-5>와 같다.

<표 4-5> 봉수와 연대 설치 현황

구분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世宗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耽羅志』	『耽羅防營摠覽』	『濟州邑誌』	『耽羅誌草本』
계	22개소	23개소	25개소	61개소	63개소	54개소
봉수	22개소	23개소	25개소	24개소	25개소	25개소
연대	?	?	?	37개소	38개소	29개소

<표 4-5>에서 보듯이, 도내의 봉수와 연대 중 봉수는 15세기에 22개소, 16세기에 23개소, 17세기에 25개소가 시설되어 있으나, 연대에 관한 기록은 없다.

즉 연대에 관한 기록은 18세기에 편찬된 『耽羅防營摠覽』이 가장 이른 기록이다. 이에 따르면 도내에는 24봉수와 37연대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濟州邑誌』에는 봉수 1개소와 연대 1개소가 추가되어 25봉수, 38연대가 설치되었다.

19세기 편찬된 『耽羅誌草本』의 봉수와 연대는 濟州牧의 威德·佐可·歸德·馬頭연대, 정의현의 所尔路·終達연대, 대정현의 摹瑟봉수, 尔希川·別老川연대 등 봉수 1개소와 연대 8개소가 폐쇄되어 봉수 24개소와 연대 30개소가 유지되고 있다.

2) 봉수와 연대 특징

(1) 봉수의 특징

제주도내의 25개소의 봉수가 위치한 기생화산(오름)의 높이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 해발 100m 미만의 오름에 위치한 봉수 : 6개소 (도원, 서산, 입산, 왕가, 송악, 호촌봉수)
- . 해발 100~200m 미만의 오름에 위치한 봉수 : 16개소 (사라, 원당, 수산, 고내, 도내, 구산, 당산, 모슬, 남산, 독자, 달산, 토산, 수산, 성산, 지미, 삼매양 봉수)
- . 해발 200m 이상의 오름에 위치한 봉수 : 3개소 (만조, 호산, 자배봉수)

제주도내의 봉수 중 해발 100m~200m의 오름에 위치한 봉수가 전체의 64%에 해당한다. 따라서烽軍이 쉽게 오를 수 있으며 멀리 볼 수 있는 높은 오름에 봉수가 위치하고 있다.

봉수와 봉수가 서로 응하는 거리로는 10km 이상의 만조봉수와 당산봉수, 구산봉수와 호산봉수가 11km이며 모슬봉수와 당산봉수가 14.5km, 나머지 봉수와 봉수의 서로 응하는 거리로는 10km 미만이다. 가장 가까운 것은 사라 봉수와 제주목으로 거리가 2km이고, 가장 먼 것으로는 모슬과 당산봉수로 거리가 14.5km이다. 그러나 육지 지방의 봉수와 봉수의 서로 응하는 거리가 보통은 30~40리,²³⁹⁾ 멀게는 70리²⁴⁰⁾가 되는 것에 비하면 대부분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제주도내 봉수의 축조 형태는 형태 확인이 가능한 17개소 중 15개소는 원형이고 성산봉수 1개소는 방형으로石築을 하였다. 다만 往可봉수는 형태가 뚜렷하지 않지만 방형으로 보인다. 그리고 형태가 원형인 15개소 중 10개소는 2중의 독으로 축조되었는데 이는 우천시 배수를 고려하여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내 봉수의 축조 재료는 확인 가능한 16개소 중 왕가·성산·자배 등 3개소는石築이고, 구산봉수는 흙과 돌을 혼용, 나머지 12개소는土築하고 있다. 이는 바로 봉수가 오름의 정상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축조 재료를 구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변방의 최전방에 있는 연대와는 달리 멀리서 망을 보고 연락하는 기능을 수행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봉수의 규모는 확인이 가능한 13개소의 직경이 30m 정도의 평균치이다. 가장 적은 것은 왕가 봉수로 직경이 11m, 가장 큰 것은 수산 봉수로 45m이다. 이처럼 규모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봉수가 지형에 적합하게 축조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연대의 특징

위치를 확인하기 곤란한 竹島와 馬頭煙臺를 제외한 제주도내 연대 36개소 중 해안과의 이격거리가 100m 미만은 21개소, 100m~200m 미만은 5개소, 200m 이상은 10개소이다. 가장 가까운 것은 해안에 접해 있는 別刀·威德·頭毛煙臺이고, 가장 먼 것은 말등포 연대로 550m 정도가 해안에서 떨어져 있다. 따라서 100m 미만이 58%를 차지하고 있는 바, 연대가 해안 구릉에 위치하여 적의 동태를 자세히 살피기 편리한 곳에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주도내의 연대는 서로 응하는 연대에 연락을 취하는 동시에 가까운 봉수에도 연락을 하고 있다. 즉, 연대에서 서로 응하는 연대와의 거리가 36개소 중 7km 이내가 29개소, 7km 이상이 7개소이다. 물론 가장 먼 거리는 威德과 無注煙臺와의 13.1km이다. 이처럼 거리가 멀거나, 자연 지형으로 서로 연락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가까운 봉수에 급보를 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239) 『英祖實錄』卷114, 英祖 46년 5월 辛未條.

240) 『增補文獻備考』, 卷123, 兵考 15, 烽燧1.

제주도내 연대는 형태 확인이 가능한 17개소 중 15개소가 방형으로 축조되었다. 하지만 倭浦와 淵洞연대는 원형이다. 그러나 倭浦연대는 내·외벽의 2중 벽체로 남아²⁴¹⁾ 있기에 구체적인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주도내 연대의 축조 재료는 모두 石築이다. 이처럼 石築한 것은 연대의 기능이 변방의 최전방에 위치하여 망보는 일과 더불어 요새 시설이라는 특수한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내 연대의 규모는 하단석이 확인 가능한 12개소 중 한 변의 길이가 6m~10m 내외인 것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연대의 규모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자연적인 지형에 적합하게 축조되었기 때문이다. 제주도내의 연대 규모는 장축이 7.9m이고, 단축은 7.2m이 평균치이다. 높이는 상부가 훼손되거나 복원되었기에 원래의 높이를 알 수가 없다.

조선시대 세종 29년(1447) 3월에 연대의 규모를 營造尺으로 하며 높이는 20자, 둘레는 70자, 연대 밑의 사방은 30자, 10자의 참호를 파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환산하면 둘레가 21.8m, 높이는 6.3m이다. 따라서 제주도내 연대의 평균 둘레가 30.2m이므로 앞선 규정에 비하면 규모가 큰 편이다.

그러나 제주도에 있는 연대의 주변에서는 참호시설이 발견된 바가 없었다. 이는 바로 주변지역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설치여부는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연대가 설치된 지역의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면 참호 시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41) 김봉옥·신석하(1996), 전계서, pp.210~211에서, 왜포연대가 내벽과 외벽으로 분리 축조된 것은 해안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었고, 또한 제주의 강한 바람을 막기 위하여 축조되었다고 한다.

V. 결 론

제주도 관방 시설의 축조시기는 왜구 침입이 많았던 고려말 조선초기를 중심으로 하여 크게 조선시대 이전과 조선시대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성곽과 봉수·연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문헌자료, 지적도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였다.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을 축조 시기를 중심으로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제주도의 관방 시설은 행정적인 편의와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축조되었다. 즉 조선시대 태종 16년(1416)에 제주가 3읍으로 분리되면서 읍성이 축조되거나 정비되었고, 진성과 봉수·연대는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축조하였다.

제주도 관방시설의 축조 시기를 정리하면 <표 5-1>과 같다.

〈표 5-1〉 관방시설의 시기별 변천현황

구분	설치연도	읍 성	진 성 축 조	방호소	수전소	봉 수
I 기	1400년대	3읍성	수산·차귀진성	9개소	21개소	22개소
II 기	1500년대	읍성 정비	명월·별방·동해·서귀·조천·애월진성	13개소	13개소	23개소
III 기	1600년대	"	모슬·화북진성	9개소	10개소	25개소
IV 기	1700년대	"	진성의 보수, 정비	9개소	-	25봉수, 38연대
V 기	1800년대	"	"	"	-	25봉수, 29연대

<표 5-1>에서 보듯이, 제주도내의 관방시설은 축조 시기를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I 기(15세기)에는 3읍 체제가 정비되면서 읍성이 축조·정비되었다. 뿐만 아니라 고려말 이후 계속되는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방호소 9개소, 수전소 21개소와 봉수 22개소가 정비되었다. 또한 세종 21년(1443)에 제주 도안무사 韓承舜의 건의가 계기가 되어 9개의 방호소 중 수산과 차귀방호소에 진성이 축조되었다.

II 기(16세기)에는 중종 5년(1510)에 발생한 三浦倭亂 이후에 일본으로 귀국하지 않고 해상 각처에 흩어져 연해 지방을 침략하는 三浦의 왜놈(倭奴)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하여 I 기(15세기)에 비하여 4개소의 방호소가 증설되어 13개소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張琳 목사의 건의로 성곽이 없었던 방호소 가운데에 명월·별방·동해·서귀진성이 축조되었

다. 또한 이 무렵에 조천진성과 애월진성도 改築되었다. 그러나 수전소는 I기(15세기)에 비하여 8개소가 감소되었으나, 봉수는 1개소가 증가한 23개소가 되고 있다.

III기(17세기)에는 明宗때의 을묘왜변과 宣祖 25년(1592)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바다를 방비하는[海方]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성곽이 없었던 화북방호소에 진성이 축조되었고, 동해진성은 모슬진성으로 移築되고 있다. III기(17세기)에 수전소는 10개소가 유지되고 있고, 봉수는 2개소가 증가하여 25개소가 되었다. 그러나 II기(16세기)때 13개소의 방호소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9개소로 축소되었다

IV기(18세기)에는 방호소의 증설은 없지만 진성의 보수·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해안 방어의 강화로 해안 구릉에 38개소의 연대가 축조되었다. 이와는 달리 IV기(18세기)에 이르러 수전소는 모두 폐지되었다.

V기(19세기)에는 제주 3읍성과 9진성은 보수·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38 연대 증기능을 상실한 9개소가 폐지되어 29개소만 정비되고 있다.

이처럼 관방시설은 영토의 보존·백성의 보호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축조되었다. 하지만 고려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면서 남방지역은 왜구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조정의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는 해안 방어의 요충지로 지적됨에 따라 왜구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해안에 방호소·수전소와 봉수·연대가 축조되는 등 관방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필자는 조선시대 방어체제의 전체적인 이해 속에서 제주도의 관방시설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라는 공간적 범위 속에서 관방시설의 축조와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제주 3읍성과 9진성에 종사하는 군사제도에 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힘이 미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주 3읍성과 9진성에 대한 세밀한 현장 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정밀조사를 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술한 한계가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앞으로 미진한 부분은 차차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參考文獻

1) 史料

『朝鮮王朝實錄』.

金奉玉譯(1986), 『朝鮮王朝實錄中 耽羅錄』, 제주문화방송.

李存의 (1530), 『新增東國輿地勝覽』, 영인본(1970), 民族文化推進黨.

金尙憲(1601~1602), 金禧東譯(1992), 『南槎錄』, 永嘉文化社.

李元鎮, 『耽羅志』, 영인본(1991),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李益泰(1696), 金益洙譯(1997), 『知瀛錄』, 濟州文化院.

李衡祥(1704), 『耽羅巡歷圖, 南宦博物誌』, 영인본(1994), 濟州市·濟州大學校博物館.

著者未詳(18세기 중엽), 『耽羅防營總攬』.

『濟州兵制烽臺摠錄』, 규장각도서 NO.4485.

朴天衡, 『濟州巡撫御使書啓』, 『書啓輯錄』 권4, 규장각 15083-4.

『濟州邑誌』, 『韓國地理志叢書』, 한국문헌학연구소, 영인본(1983), 亞細亞文化社.

『濟州大靜旌義邑誌』, 『韓國地理志叢書』, 한국문헌학연구소, 영인본(1983), 亞細亞文化社.

李源祚, 『耽羅誌草本』, 영인본(1989),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濟州郡邑誌』, 『韓國地理志叢書』, 한국문헌학연구소, 영인본(1983), 亞細亞文化社.

『旌義郡邑誌』, 『韓國地理志叢書』, 한국문헌학연구소, 영인본(1983), 亞細亞文化社.

『大靜郡邑誌』, 『韓國地理志叢書』, 한국문헌학연구소, 영인본(1983), 亞細亞文化社.

金錫翼(1918), 金啓淵譯(1976), 『耽羅紀年』, 제주도교육위원회.

『萬機要覽』, 영인본(1972), 경인문화사.

『備邊司牘錄 濟州記事』, 영인본(1999), 濟州道·濟州史定立事業推進協議會.

霽山 金聖鐸, 『霽山全集』.

鄭若鏞, 『與猶堂全書』.

『國譯華城城役儀軌』, 上·下, 번역본(1979), 수원시.

『耽羅誌』, 영인본(1989),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2) 單行本

高昌錫(1995), 『耽羅國史料集』, 圖書出版 新亞文化社.

董鑒泓 等編, 成周鐸譯(1993), 『中國都城發達史』, 學研文化社.

김봉옥·신석하(1996), 『濟州의 防禦遺跡』, 제주도.

金惠右·高時洪譯(1994), 『高麗史耽羅錄』, 도서출판제주문화.
 南都泳(1997), 『韓國馬政史』,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南濟州郡·濟州大學校博物館(1995), 『旌義縣 客舍址』.
 ----- (1996), 『南齊州郡의 文化遺蹟』.
 大田直轄市(1993), 『大田의 城郭』.
 北齊州郡(1993), 『明月城 地表調査 報告書』.
 ----- (1993), 『別防鎮 地表調査 報告書』.
 -----·濟州大學校博物館(1998), 『北齊州郡의 文化遺蹟』.
 서귀포시(1998), 『서귀포시 문헌자료집』.
 孫永植(1987), 『韓國城郭의 研究』,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신영훈(1987), 『농촌주거환경조사연구보고서』, 한국건축문화연구소, 한샘.
 沈正輔(1995), 『韓國 邑城의 研究』, 學研文化社.
 오창명(1998),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학교출판부.
 陸軍本部(1983), 『高麗軍制史』, 『韓國軍制史』.
 濟州道(1993), 『濟州道誌』, 제1·3편.
 ----(1998), 『濟州의 文化財』.
 ----(1998),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 : 제주향파두리 향몽유적지』.
 濟州市·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1988), 『禾北浦口地表調査報告書』.
 -----(1990), 『濟州城址 및 五賢壇 整備計劃(案)』.
 -----·濟州大學校博物館(1992), 『濟州市의 文化遺蹟』.
 -----(1998), 『濟州牧官衙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 研究論文

姜政弘(1981), 「城」, 제주신문 1 - 11연재.
 姜彰彥(1991), 「濟州島의 環海長城 研究」, 『耽羅文化』11,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
 高昌錫, 「濟州島史 誌上講座」1 ~38, 『관광제주』.
 金祥玉(1997), 「朝鮮後期 濟州地方의 軍事制度」, 『19세기 濟州社會研究』, 一志社.
 金泰能(1964), 「濟州島內 諸城의 由來」, 『濟州道』 15.
 朴用厚(1962), 「歷史上에서 본 濟州島의 防衛」, 『濟州道』 2.
 ----(1975), 「濟州島의 城址와 防衛施設」, 『濟州道』 66.
 朴興秀(1967), 「李朝尺度에 관한 研究」, 『大東文化研究所』 제4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
 화원구원.
 方相鉉(1982), 「朝鮮前期 城郭機能考」, 『사학지』 16.

- 車勇杰(1977), 「朝鮮朝下三道沿海邑城築造에 대하여」, 『사학연구』 7.
- (1983), 「朝鮮前期 關防施設의 整備過程」, 『한국사론』 7, 국사편찬위원회.
- (1997), 「朝鮮成宗代 海防施設築造論議와 그 樣相」, 『백산학보』 23.
- 吳洙政(1997), 「19세기의 濟州邑城」, 『19세기 濟州社會研究』, 一志社.
- 趙楨基(1989), 「西涯柳成龍의 城郭論」, 『龍巖 車文燮教授華甲紀念論叢 朝鮮時代史研究』.
- 진영일(1996), 「高麗前期 耽羅國 研究」, 『耽羅文化』 16.
- 향토문화개발협의회(1987), 「성곽조사의 이론」, 『문화유적 조사 요람』.
- 洪淳晩(1979), 「濟州主城考」, 『耽羅星主遺事』.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BSTRACT〉

A STUDY ON DEFENSE INSTALLATIONS OF THE
BORDER OF CHE - JU DO IN THE ERA
OF YI DYNASTY

Kim Myoung - cheol

History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ho, Chang - cheok

The defense of the border is said to construct a castle and a trench or something at a strategic point and to station the army against enemies' invasion. That is, the defense installations of the border are constructed for the purpose of keeping the territory and protecting peoples from enemies' invasion. Our country is a geopolitical strategic point which connects the continent with the ocean and is located in the advanced base to invade either the continent or the ocean. As a result, historically it has been invaded so many. That is why the defense installations of the border were built as the working of the national policy especially in the southern coast area of the nation against Japanese pirate raiders between at the end the era of Koryeo Dynasty and at the beginning of the era of Yi Dynasty. Especially Cheju do was thought to be a strategic point for coastal defense, so defense installations of the border, such as Up - seong (castle of town), Jin - seong (castle of military camp), Shujeon - sho (place to block and fight against enemy) and Bong - shu (signal fire) · Yeon - dae (heights to send the signal of smoke), were constructed systematically.

This study is to arrange not only the process of th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defense installations of the border in Cheju do, but also the current conditions of them. That is, it is to examine the changing process of defense installations of the border through the related documents and field investigation, and provide the research of the history of

border defense of Cheju do with a basic data, and at the same time at the current point of view, arrange the defense installations of the border which are being injured day by day owing to urbanization or something.

It isn't easy to find out when the defense installations of the border in Cheju do began to construct. So this study arranged the installations built before the era of Yi Dynasty on the basis of the related documents. And the main objects of this study, such as three Up-seongs, nine Jin-seongs, twenty five Bong-shus and thirty eight Yeon-daes built in the era of Yi Dynasty, were examined in terms of the process of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and the details of the installations preferentially through the related documents, and then the current conditions of them were described through field investigation.

Up-seong and Jin-seong consist of the central elements among the defense installations of the border. Up-seong or castle of town was a castle mixed with both military and administrative functions and was constructed or repaired at the seats of Mok and Hyun at the beginning of the 15th century when Cheju do was divided into 3 ups or towns. And unlike Up-seong, Jin-seong or castle of military camp was a castle made for the military purpose and was constructed at a strategic point between in the 15th century and in the 16th century and then repaired partially in the 17th century.

Bong-shu and Yeon-dae was a communication system which had sent the military information by means of torch and smoke traditionally. Bong-shu or signal fire was installed at ohrums or parasite volcanos of Cheju do to observe enemies's movement in the era of Koryeo Dynasty, but the systematic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were done in the 15th century. And Yeon-dae or heights to send the signal of smoke wasn't constructed on the heights in coast zone until the 18th century to observe enemies' movement within near distance. Both of them played functions that informed the reciprocal corresponding place of an urgent news of the frontier and finally via Shara Bong-shu informed Cheju mok of it.

The current defense installations of the border are injured a lot by either artificial or natural reason, and so they are left just in part and even some of them can't be recognized. Therefore I hope that this study will act as the basic data in restoring and repairing the defense installations of the border left by our ancestors.

※ A thesis submitted to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0.

〈附 錄〉

1. 呂城關聯 文獻資料

〈濟州城址 古文獻〉

- 『世宗實錄』地理志 卷 151
呂城 石城 周回九百十步
- 『新增東國輿地勝覽』卷38 城郭條
石築 周四千三百九十四尺 高十一尺 城內無水 城南大石下 有大穴水湧出 名嘉樂泉 深可丈許 截流別築重城 城中人取汲
- 『耽羅志』濟州牧 城郭條
呂城 石築周五千四百八十九尺 高十一尺 城中無水 嘉樂泉 在於城外 別築重城 城中人取汲焉 嘉靖乙丑 郭屹爲牧使時 退築東城 嘉樂泉 今在城內 又有山底泉 有東南西三門 又有南北水口二門 擊臺二十七 堞堞四百四 本大村 三姓所居之地
- 『濟州巡撫御使書啓』
濟州城在漢孛山之北 大海之上 築石爲城 善類易修 壕池 塞 小旱輒乾 城中有大川 爲北水門 南水門 以通其流 且有山底大井 亢旱不渴 城內居民 千有餘戶 最爲富貴 緩急可恃 而但其城 址內低外高 賊兵俯臨 毫髮可數 未足爲守城之地是白齊
- 『東國輿地志』卷五上
州城石築 周五千四百八十九尺 立三門 東曰濟衆 南曰定遠 西曰白虎又有南北水口二門 擊臺 二十七 堞堞四百四 城內舊無水 嘉樂泉在於城外 別築重城取汲 明宗時牧使郭屹 退築東城入 城內 又有山底泉
- 『濟州邑誌』城池條
石築 周回五千四百八十九尺 高十一尺 有東西南三門 南北水口 東城外有嘉樂川 北城外有山 底泉 州城本在南北兩川之間 嘉靖乙丑 牧使郭屹退築 東城一川在城中 每致汎濫 人家輒多 漂沒民俗 欲還環築舊基故 今庚子春 牧使金永綬 因舊基築間城 以防其弊 長五百五十一步 高九尺
- 『濟州旌義大靜邑誌』州城條
石築 周十里 高十一尺 女堞四百四 城門東西南三處 水口南北二處 城外有郭 重關防而設 城內有間城防川水之汎濫
- 『耽羅誌草本』州城條
石築 周五千四百八十九尺 高十一尺 擊臺二十七 堞堞四百四 有東南西三門 北水口有虹門 牧使李元鏞所建 城內有間城 牧使金永綬 所築以防山底川之汎濫 舊時城內無水 明廟乙丑 牧使郭屹 退築 東城嘉樂泉 今在城內又有山底泉
- 『增補文獻備考』卷27
石築 周五千四百八十九尺 高十一尺 擊臺二十七 堞堞四百四 山底泉在城內 嘉樂泉在城外別 築重城取汲 明宗朝郭屹退築東城入 城內有東南西三門 又有南北水口二門
- 『增補耽羅誌』
石築 周五四八九尺 高十一尺 擊臺二十七 堞堞四百四 東南西三門 南北水口二門 三姓所居之地 明宗 20年 牧使郭屹退築 東城一川在城中 宣祖 32年 牧使成允文 五尺 加築 正祖 4年 牧使金永綬 因舊基築間城 以防其弊

〈旌義邑城 古文獻〉

- 「襄樞記」
其城基 二千五百二十尺 高十三尺也
- 「新增東國輿地勝覽」卷38 城郭條
石築 周二千九百八十六尺 高二十四尺
- 「南槎錄」
石城 周三千十三尺 高八尺 有東西南三門 門上皆設譙樓 城內有一井 旱則枯
- 「耽羅志」城郭條
石築 周二千九百八十六尺 高十三尺
- 「濟州巡撫御使書啓」
旌義縣在漢拏山之東 東距大海十里 西距濟州一百二十里 邑處平野之中 已非要衝之地 而城既 不固 池又乾廢 城內城外 初無泉井 居民只飲天落水 防守一節 非所可論是白齊
- 「東國輿地志」卷五上
石築 周二千九百八十尺 南有門 世宗五年 安撫使鄭幹城中舊無水今鑿二井
- 「濟州邑誌」
石築 周二千九百八十六尺 高十三尺 有東西南三門 城中有二井 非生水旱 則取汲於城南二里許大川水
- 「濟州大靜旌義邑誌」邑城條
石築 周一千九百九十步 高十三尺 女堞一百八十 城門東西南三處
- 「耽羅誌草本」
石築 周一千五百九十三步 高十三尺 女堞一百八十 有東西南三門
- 「旌義郡邑誌」城池 縣城條
石築 周二千九百八十六尺高十三尺 有東西南三門 城中有二井 非生水旱 則取汲於城南二里許大川水
- 「增補文獻備考」卷27
石築 周二千九百八十尺 高十三尺 內有井二 世宗五年 安撫使鄭幹所築

〈大靜邑城 古文獻〉

- 「世宗實錄」地理志 卷151
邑石築周回一千一百七十九步
- 「新增東國輿地勝覽」卷38 城郭條
石築 周二千六百四十七尺 高二十八尺
- 「南槎錄」
縣城 石築 周二千八百餘尺 高十尺 有四門 門上設譙樓 中有一井 旱則枯
- 「耽羅志」
石城 周四千八百九十尺 高十七尺四寸
- 「濟州巡撫御使書啓」
大靜縣在漢拏山之 西南距大海七八里 東距濟州一百二十里 邑處平野 三面通豁 城池雖似完固 而城內只有一井海患 枯渴遠地負水 最爲痼弊 臨亂防守 非所可論是白齊
- 「東國輿地志」卷五上
石築 周四千八百九十尺 有門 太宗十八年縣監俞信築
- 「濟州邑誌」

石城 周回四千九十尺 高十七尺四寸 堞二百四十 城樣表裡如削環城有濼潤十尺深七尺外有枳樹
城中有池 周回二十二丈 深四尺 南門內有井 周回四丈 深六丈 八尺 甚旱則渴

○『濟州大靜旌義邑誌』城郭條

石城 周三千二百餘步 高十七尺四寸 女堞二百四十 城門東西南三處

○『耽羅誌草本』縣城條

石築 周四千八百九十尺 高十七尺四寸 女堞一百五十五 有東西南三門 設縣後二年戊戌 縣監 俞信所築

○『大靜郡邑誌』

石築 周四千八百九十尺 高十七尺四寸 女堞一百五十五 有東西南三門 設縣後二年戊戌 縣監 俞信所築

○『增補文獻備考』卷27

石築周四千九百十尺 高十七尺四寸 堞二百四十 瓮城四 雉堞四 有濼池 內有井一池一 太宗十八年縣監俞信築



2. 鎮城關聯 文獻資料

〈禾北鎮〉

- 『耽羅志』濟州牧
〈水戰所〉禾北浦 有板屋戰船 中部左部右部各一隻 待變糧六石 格軍一百八十名射砲八十七名
- 『濟州巡撫御使書啓』禾北防護所
在濟州東十里 北邊臨海與靈巖康津等地 相對陸船之往來者 皆泊於此實是 一島之要路 而但城內狹窄既無泉井 又無倉儲守城一節非所可論是白齊
- 『耽營防營摺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禾北鎮 自州東距十里 助防將一人 兼城將 雉摠二人 防軍一百名 每番十六名或十七名 每朔五日立番 中省記分把外 餘數番除 書記十三名 每番二名 每朔五日立番 放砲手十一名 每番一名或二名 每朔五日立番 弓人七名 每番一名或二名 每朔五日立番 矢人十名 每番一名或二名 每朔五日立番 伺候船一隻 沙工一名 延送亭在城外浦頭
- 『濟州兵制烽臺摺錄』濟州三邑軍制
禾北鎮 助防將一人 雉摠二人 城丁軍一百五十六名 留直軍一百二十八名
- 『濟州邑誌』濟州牧
〈城池〉禾北堡 在州東十里 石城 周回六百六尺 高十二尺 置東西兩門
〈鎮堡〉禾北鎮 城中有客舍軍器 北城上有望洋亭 鎮將一人雉摠二人 書記十二名 元防軍四十九名 添防軍五十名 放砲手十一名 弓人八名 矢人十名 城丁軍一百五十六名 城底有延送亭
- 『濟州大靜旌義邑誌』濟州牧 鎮堡
禾北鎮 在州東十里 石城 周三百三步 伺候船一隻 書記十二名 防軍一百二十一名
- 『耽羅誌草本』濟州牧鎮堡
禾北鎮 在州東十里 肅廟戊午牧使崔寬創設 城周三百三步 高十尺 東西兩門 城內有 客舍 軍器庫 助防將 一人雉摠三人 防軍九十二名 伺候船一隻 喚風亭即客舍 肅廟乙卯牧使南至薰建
- 『濟州郡邑誌』
〈水戰所〉禾北浦 有板屋戰船中部左部右部各一隻 待變糧六石 格軍一百八十名 射砲八十七名

〈朝天鎮〉

- 『新增東國輿地勝覽』濟州牧 關防
朝天館防護所 在州東二十六里 朝天館浦口水戰所
- 『南棧錄』
城周四百三十餘尺 高十尺 無井 只有東門 門上有譙 環海潮爲壕 防守之制 與涯月 同
- 『耽羅志』濟州牧
〈城郭〉朝天城 在朝天浦 石築周四百二十八尺七寸 高九尺一寸 東有一門
〈防護所〉朝天所 城中有朝天館 廚廡 軍器庫 東城上有雙碧樓戀北亭
〈水戰所〉朝天浦 有板屋戰船一隻 待變糧三石 格軍一百二十八名 射砲二十一
○朴天衡,『濟州巡撫御使書啓』朝天防護所
朝天防護所 在濟州東三十里 鎮基斗入海中 放船最爲便捷 故凡係進上物種 裝載之船多放於 此鎮陸地入來之船 亦多到泊 此亦島中之要路 而但城內無泉井無倉儲 外寇雖來 有難守城是 白齊
- 『耽營防營摺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朝天鎮 自州東距三十里 助防將一人 兼城將 雉摠二人 防軍七十五名 每番十二名或十三名 每朔五日立番 中省記分把外 餘數番除 書記七名 每番一名或二名 每朔五日立番 放砲手十名 每番一名或二名 每朔五日立番 弓人九名 每番一名或二名 每朔五日立番 矢人九名 每番一名 或二名 每朔五日立番 伺候船一隻 沙工一名 禪大廳在城外浦頭

-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朝天鎮 助防將一人 雉摠二人 城丁軍九十二名 留直軍一百三名
 - 『濟州邑誌』濟州牧
〈城池〉在州東三十里 石城周回四百二十八尺高七尺 南置一門
〈鎮堡〉朝天鎮 城中有客舍 軍器 東城上有雙碧樓戀北亭 鎮將一人 雉摠二人 書記十二名 防軍七十五名 放砲手十名 弓人十名 矢人十名 城丁軍一百七十名
 - 『濟州大靜旌義邑誌』濟州牧 鎮堡
朝天鎮 在州東三十里 石城 周二百四十步 伺候船一隻 書記七名 防軍一百十八名
 - 『耽羅誌草本』濟州牧 鎮堡
朝天鎮 在州東二十五里 城周二百四十步 高九尺 三面阻海只通一 門上設 樓 城內有朝天館 戀北亭 軍器庫 助防將一人 雉摠二人 防軍六十七名 伺候船一隻 戀北亭即客舍 舊在城外 宣廟庚寅 牧使李沃 修建于東城上 扁以雙碧 己亥成允文重修 改扁曰戀北
 - 『耽羅誌』濟州牧
〈城郭〉朝天城 在朝天浦 石築 周四百二十八尺七寸 高九尺一寸 東有一門
〈防護所〉朝天鎮 在州東三十里 城中有朝天館 廚廡 軍器庫 東城上有戀北亭即客舍 宣廟庚寅 牧使李沃建 扁以雙碧 己亥成允文重修 改扁曰戀北 助防將一人 雉摠二名 書記十二名 城丁軍一百三十名 差備十名 防軍一百五十一名 伺候船一隻
〈水戰所〉朝天浦 有板屋戰船一隻 待變糧三石 格軍一百二十八名 射砲二十一名
 - 『濟州郡邑誌』濟州牧
〈城郭〉朝天城 在朝天浦 石築 周四百二十八尺七寸 高九尺一寸 東有一門
〈防護所〉朝天所 城中有朝天館廚廡軍器庫 東城上有雙碧樓戀北亭
〈水戰所〉朝天浦 有板屋戰船一隻 待變糧三石 格軍一百二十八名 射砲二十一名
- 〈別防鎮〉
- 『新增東國輿地勝覽』濟州牧 關防
(新增)別防城 在州東七十五里 石築周二千三百九十尺 高七尺 東北有門 正德庚午 以此地爲牛島 倭船泊近處 築城 移金寧防護所于此 號爲別防
 - 金尙憲『南槎錄』
按地誌 別防城 在州東七十五里 石築周二千三百九十尺 高七尺 有東南北三門 中有一井味鹹 地名古稱下道衣灘里 正德庚午 牧使張琳 以此地與牛島 倭船來泊處相近 撤金寧防護所 移設于此
 - 『耽羅志』濟州牧
〈城郭〉別防城 在州東七十里 石築周二千三百九十尺 高七尺 東南西有門 有二泉
〈防護所〉別防所 北城有待變廳 中有客舍 別倉 軍器庫 正德庚午 牧使張琳 以此地 爲牛島 倭船泊近處 築城移金寧防護所于此 號別防
 - 朴天衡『濟州巡撫御使書啓』別防防護所
別防防護所 在濟州東八十里 東北臨海 城內比禾北 朝天稍廣 有泉有倉粗有防鎮 規模而但浦口狹窄 石角如戟 船不得泊 置烽報警 猶或可也 而設鎮控扼 似非其地是白齊
 - 『耽營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別防鎮 自州東距八十里 助防將一人兼城將 雉摠四人 防軍一百名 每番十六名或十七名 每朔五日立番 中省記分把外 餘數番除 書記七名 每番一名或二名 每朔五日立番 放砲手十二名 每番二名 每朔五日立番 弓人十二名 每番二名 每朔五日立番 矢人十二名 每番二名 每朔五日立番 營賑倉牧司倉 皆在鎮中
 -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別防鎮 助防將一人 雉摠四人 城丁軍五百十名 留直軍一百四十八名

○『濟州邑誌』濟州牧 鎮堡

〈城池〉別防堡 在州東八十里 石城周回二千八百九十尺 置東西南三門城中有二泉

〈鎮堡〉別防鎮 城中有客舍 軍器 別倉 待變廳 鎮將一人 雉摠四人 書記八名 防軍一百名 放砲手十二名 弓人十二名 矢人十二名 城丁軍二百名

○『濟州大靜旌義邑誌』濟州牧 鎮堡

別防鎮 在州東八十里 石城 周一千八十一步 伺候船一隻 書記七名 防軍一百二十名

○『耽羅誌草本』鎮堡

別防鎮 在州東八十里 中廟庚午 牧使張琳 以地近牛島 賊路要衝 移設金寧防護所于此 城周一千八十一步 高七尺 東西南三門 俱設譙樓 城內有客舍 別倉 軍器庫 助防將一人 雉摠四人 防軍一百名 伺候船一隻

○『耽羅誌』濟州牧

〈城郭〉別防城 在州東七十里 石築周二千三百九十尺 高七尺 東南西有門 有泉

〈防護所〉別防鎮 在州東八十里 中廟庚午 牧使張琳 以地近牛島 賊路要衝 移設金寧防護所于

此 東西南三門 俱設譙樓 城內有客舍 別倉 軍器庫 憲廟戊申 牧使張寅植重建 鎮將所居之舍 助防將一人 雉摠四名 書記十五名 城丁軍三百四十六名 差備二十四名 防軍二百三十九名 伺候船一隻

○『濟州郡邑誌』

〈城郭〉別防城 在州東七十里 石築周二千三百九十尺高七尺 東南西有門有二泉

〈防護所〉別防所 北城 有待變廳中有客舍別庫軍器庫 正德庚午 牧使張琳以 爲此地爲牛島倭船泊近處築城 移金寧防護所于此 號別防

※『新增東國輿地勝覽』濟州牧 關防

金寧浦防護所 在州東五十一里

〈涯月鎮〉

○『新增東國輿地勝覽』濟州牧 關防

涯月浦防護所 在州西四十二里 涯月浦口水戰所

○『南槎錄』

涯月 在濟州西四十五里 自古設防護 以備倭患 城周僅三里 有東北二 門 門上皆譙樓

○『耽羅志』濟州牧

〈城郭〉涯月城 在涯月浦 石築周五百四十九尺 高八尺 南西有門

〈防護所〉涯月所 城中有客舍軍器庫

〈水戰所〉涯月浦 有板屋戰船一隻 待變糧三石 格軍一百十八名 射砲二十八名

○『濟州巡撫御使書啓』涯月防護所

涯月防護所 在濟州西四十里 北面臨海 浦口船泊處 最爲平穩無碍 陸船之向禾北 朝天者 若 失風勢 往來泊於此 亦可謂要害之地 而城內湫隘 又無泉井糧儲 外寇雖來 恐難守城是白齊

○『耽營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涯月鎮 自州西距四十五里 助防將一人兼城將 雉摠二人 防軍七十五名 每番十二名或十三名 每朔五日立番 中省記分把外 餘番除書記七名 每番一名或二名 每朔五日立番 放砲手七名 每 番一名或二名 每朔五日立番 弓矢人十二名 每番二名 每朔五日立番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涯月鎮 助防將一人 城將四人 雉摠八人 城丁軍一百六十九名 城門舉橋軍三十七名

○『濟州邑誌』濟州牧

〈城池〉涯月堡 在州西四十里 石城周回五百四十九尺 置南西南門

〈鎮堡〉涯月鎮 城中有客舍 軍器 鎮將一人 雉摠二人 書記十三名 防軍七十五名 放砲手十 名 弓

人六名 矢人六名 城丁軍一百十二名

○『濟州大靜旌義邑誌』濟州牧 鎮堡

涯月鎮 在州西四十里 石城 周二百五十五步 伺候船一隻 書記七名 防軍九十三名

○『耽羅誌草本』鎮堡

涯月鎮 在州西四十里 古有木城 本三別抄所築 以禦官軍處 宜廟辛巳 牧使金泰廷改築石城 城周二百五十五步 高十六尺 西南兩門上設 譙樓 城內有客舍 軍器庫 助防將一人 雉摠二人 防軍七十四名 伺候船一隻

○『耽羅誌』濟州牧

〈城郭〉涯月城 在涯月浦 石築周五百四十九尺 高八尺 南西有門

〈防護所〉涯月鎮 在州西四十五里 古有木城 本三別抄所築 以禦官軍處 宜廟辛丑 牧使金泰 廷改築石城 西南兩門上設 樓 城內有客舍 軍器庫 助防將一人 雉摠二名 書記 七名 城丁軍一百三十名 差備十名 防軍一百三十八名

〈水戰所〉涯月浦 有板屋戰船一隻 待變糧三石 格軍一百十八名 射砲二十八名

○『濟州郡邑誌』

〈城郭〉涯月城 在涯月浦口 石築周五百四十九尺 高八尺南西有門

〈防護所〉涯月所 城中有客舍軍器庫

〈水戰所〉有板屋戰船一隻 待變糧三石格軍一百十八名 射砲二十八名

〈明月鎮〉

○『新增東國輿地勝覽』濟州牧 關防

明月浦防護所 在州西六十里 (新增) 石築 城周三千二十尺 高八尺 東西南有門 城中有泉 湧出如川 古無城 正德庚午 以此地爲飛陽島 倭船泊近處 築之 明月浦口水戰所

○『南槎錄』

牧使李慶祿 改築石城 周三千五十餘尺 高九尺 有三門 門上皆有譙樓 中有一井 暎旱不渴 水味甚甘冽

○『耽羅志』濟州牧

〈城郭〉明月城 在明月浦 石築 周三千二十尺 高八尺 東南西有門 城中有泉 如川湧出 大旱不竭 古無城 正德庚午 牧使張琳 以此地爲飛揚島 倭船泊近處 築之 城將邑城四人 四所城各一人

〈防護所〉明月所 城中有客舍 軍器庫 射場

〈水戰所〉明月浦 有板屋戰船一隻 待變糧三石 格軍一百三名 已上二浦屬右舫 古有軍卒立番 分戍 凡貢膳之物 輪輸渡海 三邑同 今度健入 金寧 伐浪 朝貢三浦 古有水戰所 今廢船將 禾北浦三人 四所浦各一人

○『濟州巡撫御使書啓』明月防護所

明月防護所 在濟州西七十里 西北臨海 鎮前雖無泊船之處 而鎮西三里許有獨浦 漁船商船來 泊者甚多 且居於濟州 大靜之間 土地之饒 漁採之利 爲列鎮之最 城池廣濶 居民殷富 亦有 泉井倉儲 足以自給 實是西南之一巨鎮也 一自甲申陞萬戶之後 規模設施與他鎮自別 待報瓜 遞付京職 自有定式是白乎矣 前後萬戶之報瓜者 非無其人 而該曹不爲舉論 甚非所以建置萬 戶之意也 伏望 申飭銓曹 此後則待報瓜 卽爲遷轉 俾無遐鄉武士抑鬱之歎是白齊

○『耽營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明月鎮 自州西距六十五里 助防將一人兼城將 雉摠四人 防軍六十三名 每番十名或十一名 每 朔五日立番 中省記分把外 餘番除書記七名 每番一名或二名 每朔五日立番 放砲手十二名 每 番二名 每朔五日立番 弓矢人二十五名 每番四名或五名 每朔五日立番

○營賑倉 牧司倉 在 鎮中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明月鎮 萬戶一員 隨率軍八十二名 雉摠四人 城丁軍三百三十名 留直軍九十九名

○『濟州邑誌』濟州牧

〈城池〉明月堡 在州西六十里 石城周回三千二十尺 高八尺 置東西南三門城中有大泉

〈鎮堡〉明月鎮 城中有客舍 軍器 別倉 射場 萬戶一員 雉摠四人 書記二十二名 防砲手十二名 防軍七十五名 弓人十三名 矢人十四名 城丁軍三百五十名

○『濟州大靜旌義邑誌』濟州牧 鎮堡

明月鎮 在州西六十里 石城 周七百十五步 伺候船一隻 軍官三十人 鎮吏十四名 使令二十四 名 書記十八名 防軍一百三十名 (建置沿革) 英宗三十九年癸未 設明月鎮萬戶

○『耽羅誌草本』鎮堡

明月鎮 在州西六十里 中廟庚午 牧使張琳築木城 宣廟壬辰 李慶祿築石城 城周七百十五步 高一尺 東西南三門 俱設 樓 城內有客舍 別倉 軍器庫 射場 英廟甲申 御使李壽鳳 啓 請助防將陞 爲萬戶 以本營出身中 備三望自 受點 萬戶一員 雉摠四人 鎮吏二十名 防軍三百 十七名

○『耽羅誌』濟州牧

〈城郭〉明月城 在明月浦 石築周三千二十尺 高八尺 東南西有門 城中有泉如川 湧出大旱不

渴 古尤城 正德庚午 牧使張琳 以此地爲飛揚島 倭船迫近處築之 城將邑城四人 四 所城各一人

〈防護所〉明月鎮 在州西六十五里 中廟庚午 牧使張琳築木城 宣廟壬辰李慶祿築石城 東西南

三門 俱設 謙樓 此城上有水關 城內有愬宸閣 別倉 軍器庫 射場 英廟甲申 御 使李壽鳳 啓請助防將陞爲萬戶 以本營出身中 備三望自 辟受點 萬戶一員 雉摠 四 人 假率三十二名 鎮吏二十二名 書記三十名 通引二十八名 使令二十六名 官奴三名 官婢三名 倉直二名 紙匠一名 鹽漢二名 鐵匠二名 木手一名 城丁軍五百名 差 備二十名 防軍三百八十二名

〈水戰所〉明月浦 有板屋戰船一隻 待變糧三石 格軍一百三名 已上二浦 屬右舫

○『濟州郡邑誌』

〈城郭〉明月城 在明月浦石築周三千二十尺 高八尺 東南西有門 城中有泉 如川湧出 大旱不 渴 古無城 正德庚午 牧使張琳以此地 爲飛揚島倭船泊近處築之 城將邑城四人四所 城各一人

〈防護所〉明月所 城中有客舍軍器庫射場

〈水戰所〉有板屋戰船一隻待變糧三石 格軍一百三名

〈水山鎮〉

○『新增東國輿地勝覽』旌義縣 卷38

〈城郭〉大水山防護所城 石城周一千二百六十四尺 高二十六尺

〈關防〉大水山防護所 在縣東二十五里

○『南棧錄』

石城周二千尺 高九尺 但無井水 汲於城外一里許

○『耽羅志』旌義縣

〈城郭〉石築 周一千一百六十四尺 高十六尺 左右各有一門

〈防護所〉首山 在首山城內 有客舍軍器庫中廢新修

○『濟州巡撫御使書啓』水山防護所

水山防護所 在旌義東二十里 東距海十里而有山遮隔 不見海色處 在野中既非要衝之地 浦口狹 隘 又無船泊之所 築城設鎮徒貽民弊其 無義意亦與遮歸鎮 一般從前御使多有革罷之議 尙今未 果是 白齊

○『耽營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水山鎮 自州東距一百十九里 助防將一人兼城將雉摠一人 防軍六十六名 每番十一名 每朔五日立 番 中省記分把外 餘數番除書記七名 每番一名或二名 每朔五日立番 軍器匠人 弓人二 矢人七 每

番一名或二名 每朔五日立番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水山鎮 助防將一人 雉摠一人 城丁軍一百六十八名 留直軍八名

○『濟州邑誌』

〈城池〉水山堡 石城周回 一千一百六十四尺 高十六尺 東西二門 城中有一井

〈鎮堡〉水山鎮 在縣東三十里 助防將一人 雉摠一人 城丁軍一百七十名 防軍七十五名 書記 七名 放砲手一名 弓人三名 矢人七名 鎮內 客舍軍器庫有之

○『濟州大靜旌義邑誌』旌義縣

〈鎮堡〉水山鎮 在縣東三十里 石城 周五百八十二步 伺候船一隻 書記七名 防軍八十五名

○『耽羅誌草本』旌義縣 鎮堡

〈水山鎮〉在縣東三十里 大德庚子 元奇皇后遣塔羅赤載牛馬駱駝驢羊來 放于水山坪 馬大蕃 息彌漫山野 塔羅赤亡後設防護所 宣廟壬辰倭寇搶攘 牧使李慶億移設于城山 己亥成允文罷 城山 選鎮於坊 肅廟乙酉陞爲萬戶 戊戌選設助防將 城周一千一百六十四尺 高十六尺 東西兩門 城內有客舍軍器庫 助防將一人 雉摠二人 防軍七十 四名 伺候船一隻

○『耽羅誌』濟州牧

〈城郭〉首山城 石築周回一千一百六十四尺 高十六尺 左右各有一門

○『旌義郡邑誌』

〈水山堡〉石城 周回 一千一百六十四尺 高十六尺 東西二門 城中有一井

〈西歸鎮〉

○『新增東國輿地勝覽』旌義縣

〈城郭〉西歸浦防護所城 石築 周一百六十一尺 高五尺

〈關防〉西歸浦防護所 在縣西 七十一里 西歸浦水戰所

○『南槎錄』

舊在海濱洪墟川上 牧使李沃時 移築于今所 城周五百餘尺 高六尺 有西南二門

○『耽羅志』旌義縣

〈城郭〉石築 周八百二十五尺五寸 高十二尺

〈防護所〉西歸 在西歸浦 東城中 有客舍別倉軍器庫射亭 引正方淵上流穿入 東城內作小水池 貯水後 放出西城外 以上兩所有營差 旅帥各一人

〈水戰所〉西歸浦 有兵船一隻待變糧三石 射格并一百五十名

○『濟州巡撫御使書啓』西歸防護所

西歸防護所 在漢孛山之正南 東距旌義七十里 西距大靜六十里 大靜旌義一百三十里之間 獨 有此一鎮而臨在海上 其東南則日本正南則琉球 西南則蘇杭 皆爲隔海相對之地異國風帆之往 來者 瞭望最好魚採商賈之船 亦多到泊此實賊路要衝之地 關防形勝之處 城內雖欠少窄而有井 有倉 足以防守是白齊

○『耽營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臺

西歸鎮 自州東距二百二十六里 助防將一人兼城將 雉摠一人 防軍八十六名 每番十四名或十五名 每朔五日立番 中省記分把外 餘番除書記七名 每番一名或二名 每朔五日立番 弓人二名 每朔五日立番 營賑倉縣司倉 在鎮中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西歸鎮 助防將一人 雉摠一人 城丁軍一百三十二名 留直軍九名

○『濟州邑誌』

〈城池〉石城 周回 八百二十五尺 高十二尺 東西二門 城中有生水一泉

〈鎮堡〉在縣西七十里 助防將一人 雉摠一人 城丁軍一百三十三名 防軍七十五名 州添防軍

九名 書記七名 放砲手一名 弓人三名 失人七名 鎮內有 客館軍器倉庫

○『濟州大靜旌義邑誌』

〈鎮堡〉西歸鎮 在縣西七十里 石城 周四百十五步 伺候船一隻 書記七名 防軍九十一名

○『耽羅誌草本』旌義縣

〈鎮堡〉西歸鎮 本在海濱烘爐川上 宣廟庚寅牧使李沃移建于 以距縣七十里 城周八百二十五 尺 高十二尺 西南兩門 城內有客舍別倉軍器庫射場 助防將一人 雉摠一人 防軍七十 名 伺候船一隻 鎮下浦名水戰浦 港口甚 依岸藏風 可容數百艘 古者戰船未罷時合 操于坊

○『旌義郡邑誌』

〈西歸堡〉石城 周回 八百二十五尺 高十二尺 東西二門 城中生水一泉

〈東海鎮·慕瑟鎮〉

(東海鎮)

○『新增東國輿地勝覽』大靜縣

〈關防〉東海防護所 在縣東五十七里 (新增) 在縣東四十五里 石築 周 五百尺 高八尺 城中 有泉 正德庚午移 加內關防于此

○『南槎錄』

大靜界 城二百八十餘尺 有西南二門 中有一井 舊城頽圯 牧使成允文時改築 頗草 並無守軍 距縣 五十七里

○『耽羅志』大靜縣

〈城郭〉在縣西四十五里 石築 周五百尺 高八尺 城中有泉

〈防護所〉東海 城內有客舍軍器庫 正德庚午移 加來防護所于此 遮歸有營 差旅帥一人 東海 只有 隊正一人

○『濟州邑誌』

〈東海〉有城

○『大靜郡邑誌』

〈城郭〉東海城 石築 周五百尺 高八尺 城中有泉今廢

(慕瑟鎮)

○『新增東國輿地勝覽』大靜縣

〈關防〉毛瑟浦防護所 在縣南十里

○『耽羅志』大靜縣 (1653)

〈水戰所〉慕瑟浦 有板屋戰船一隻 待變糧三石 射格并一百四名 船將一人

○『濟州巡撫御使書啓』慕瑟防護所

慕瑟防護所 在大靜西十里 斗入海中 傍有兩浦往來商船 皆泊于此 異國船隻最好瞭望鎮底民家 亦 復殷盛 可謂海防之緊關處也 但城內至窄且無泉井倉儲地 雖天塹有難防守是白齊

○『耽營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慕瑟鎮 自州西距一百六里 助防將一人兼城將 雉摠二人 防軍一百一十一名 每番十八名或十九名 每 朔五日立番 中省記分把外 餘番除書記七名 每番二名或一名 每朔五日立番 軍器匠人 弓人 五矢 人五 每番一名或二名 每朔五日立番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慕瑟鎮 助防將一人 雉摠二人 城丁軍一百七十七名 留直軍一百二十八名

○『濟州邑誌』

〈慕瑟堡〉縣南距十里 石城 周回 三百十五尺 高十二尺 地形如入海 如射斗狀三面枕海北有門 樓

〈慕瑟鎮〉舊有戰船繫在本浦 康熙戊午革罷 移東海鎮設置 城中有客館軍器 助防將一人 雉摠 二 人 書記七名 防軍八十九名 防砲手三名 弓人三名 失人三名 城丁軍七十名



- 『濟州大靜旌義邑誌』鎮堡
 〈摹瑟鎮〉在縣南十里 石城 周二百十步 伺候船一隻 書記七名 防軍一百十七名
- 『耽羅誌草本』大靜縣 鎮堡
 〈摹瑟鎮〉在縣南十里 古爲水戰所 肅廟乙卯御使李選建議 越四半戊午 牧使尹昌亨撤東海所 移設城周三百三十五尺 高十二尺 堞堞二十二 東一門上有熊樓 雉摠二人 城丁軍 一百三十八名 助防將一人兼城將 伺候船一隻 城在石島上三面阻海一面 通陸城中 無泉 城外東距五十步有大泉 名曰靈神水城底村間甚盛
- 『大靜郡邑誌』
 〈城郭〉摹瑟城 石築 周三百三十五尺 高十二尺 有東一門 城在石島上三面阻海 城中無泉 城外有水
 〈鎮堡〉摹瑟堡 在縣南十里 古爲水戰所
 ※ 동해진에서 모슬진으로 移築함에 따라 동해진과 모슬진에 관한 사료를 발췌 별도로 정리했음
- 〈遮歸鎮〉
- 『新增東國輿地勝覽』大靜縣 關防
 〈城郭〉遮歸防護所城 石築周一千四百六十六尺 高三十三尺
 〈關防〉遮歸防護所 在縣西二十五里
- 『南槎錄』
 石城周一千一百九十餘尺 高十尺 有二門 中有一井
- 『耽羅志』大靜縣
 〈城郭〉在縣西二十五里 石築 周二千四百六十六尺 高二十二尺 中廢新修 已上兩城有城將各一人
 〈防護所〉遮歸 城內有客舍軍器庫 遮歸有營差旅帥一人
- 『濟州巡撫御使書啓』遮歸防護所
 遮歸防護所 在大靜西二十里 南距海口爲三四里許 築城最完 未易頽圯 蓋聞麗末牧 子鞏爲 驛馬完築 而曾前李元鎮爲牧使時 因其築 狀請設鎮是白如乎 觀其鎮基 既非 海口要害之地 又無船艦來泊之處 荒僻無人之野 設鎮防守 殆無義意 從前御使 多有 革罷之議 而事係沿革 未得施行是白齋
- 『耽羅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遮歸鎮 自州西距百里 助防將一人兼城將 雉摠二人 防軍一百一十五名每番十九名或十八名 每 朔五日立番 中省記分把外 餘番除書記七名 每番一名或二名 每朔五日立番 軍器匠人放砲手一 弓人六 矢人六 每番二名或三名 每朔五日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遮歸鎮 助防將一人 城將四人 雉摠八人 城丁軍八百六十九名 城門舉橋軍 三十七名
- 『濟州邑誌』
 〈城池〉遮歸堡 西距三十里 石城周回二千四百六十六尺 高二十二尺 東西兩門 有樓城中有泉
 〈鎮堡〉遮歸鎮 正德庚午設置 城中有客舍軍器 助防將一人 雉摠二人 書記八名 防軍一百二十一 名 放砲手三名 弓人三名 矢人三名
- 『濟州大靜旌義邑誌』大靜縣
 〈鎮堡〉遮歸鎮 在縣西三十里 石城 周一千六百四十四步 書記八名 防里一百十七名
- 『耽羅誌草本』大靜縣城堡
 遮歸鎮 在縣東(西의 착오)二十六里 高麗末元哈赤築城 以爲養馬之所 哈赤敗亡後 牧使李元鎮狀請設鎮 置旅帥 其後肅廟乙卯罷旅帥差助防將 丙戌宋廷奎陞爲萬戶 丙 申御使 黃龜河華萬戶復置助防將 石城 周一千一百九十餘尺 高十尺 堞堞七十三 東西兩門上有譙樓 城內有客舍軍器庫 助

防將一人 雉摠二人 城丁軍一百三十八名

○『耽羅誌』大靜縣

〈城郭〉石築 周二千四百六十六尺 高二十二尺 有東西兩門上有譙樓 城內有客舍 軍器庫

〈防護所〉遮歸鎮 在縣西二十五里 城中有客舍 軍器庫 高麗末元哈赤築城 以爲養馬之所 哈 赤敗
亡後 牧使李元鎮狀請 設鎮置旅帥 其後肅廟乙卯 罷旅帥差助防將 丙戌宋廷 奎 陞爲萬
戶 丙申御史黃龜河 革萬戶復置助防將一人焉 雉摠二名 城丁一百三十 八名 防軍一百
六十九名 書記 差備并在其中 伺候船一隻

○『大靜郡邑誌』

〈城郭〉遮歸城 石築周二千四百六十六尺高二十二尺 有東西兩門 城內有客舍及軍器庫

〈鎮堡〉遮歸堡 在縣西二十五里 有客舍軍器庫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烽燧關聯 文獻資料

(1) 濟州牧 所屬 烽燧

〈紗羅烽燧〉

- 『新增東國輿地勝覽』濟州牧 烽燧
紗羅岳烽燧 西應道道里岳 東應別刀
- 『耽羅志』濟州牧 烽燧
紗羅 東應元堂 西應道圓 州所屬 望漢十二名
- 『耽羅防營摺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紗羅烽 自州西距五里 州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烽軍三十六名 每番三名 每朔五日 立番
- 『濟州兵制烽臺摺錄』濟州三邑軍制
紗羅烽燧 東應元堂 西應道圓 別將六人 烽軍三十六名
- 『濟州邑誌』濟州 烽燧
紗羅烽 東應元堂 西應道圓 州屬別將六人 烽軍三十六名
- 『濟州大靜旌義邑誌』濟州 烽燧
紗羅烽 在州東六里 東應元堂 西應道圓
- 『耽羅誌草本』濟州牧 烽燧
紗羅烽臺 在州東六里 東應元堂 西應道頭 別將六人 烽軍十二名
- 『耽羅誌』濟州牧 烽燧
紗羅烽臺 在州東六里 東應元堂 西應道頭 別將六人 烽軍十二名

〈道圓烽燧〉

- 『新增東國輿地勝覽』濟州牧 烽燧
道道里岳烽燧 東應紗羅岳 西應水山岳
- 『耽羅志』濟州牧 烽燧
道圓 東應紗羅 西應水山 州屬 望漢十八名
- 『耽羅防營摺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道頭烽 自州西距十一里 州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烽軍三十六名 每番三名 每朔五日 立番
- 『濟州兵制烽臺摺錄』濟州三邑軍制
道圓烽燧 東應紗羅 西應水山 別防六人 烽軍二十四名
- 『濟州邑誌』濟州 烽燧
道圓烽 東應紗羅 西應水山
- 『濟州大靜旌義邑誌』濟州 烽燧
道圓烽 在州西十五里 東應紗羅 西應水山
- 『耽羅誌草本』烽燧
道頭 在州西十五里 東應紗羅 西應水山
- 『耽羅誌』濟州牧 烽燧
道頭烽臺 在州西十五里 東應紗羅 西應水山 別將六人 烽軍十二名

〈元堂烽燧〉

- 『新增東國輿地勝覽』濟州牧 烽燧
元堂岳烽燧 西應別刀 東應笠山岳

- 『耽羅志』濟州牧 烽燧
元堂 東應西山 西應紗羅 州屬 望漢 十八名
- 『耽羅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元堂烽 自州東距二十里 州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烽軍三十六名 每番三名 每朔五日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元堂燧燧 東應西山 西應紗羅 別將六人 烽軍三十六名
- 『濟州邑誌』濟州 烽燧
元堂烽 東應西山 西應紗羅 州屬別將各六人 烽軍各三十六名
- 『濟州大靜旌義邑誌』濟州 烽燧
元堂烽 在州東二十里 東應西山 西應紗羅
- 『耽羅誌草本』濟州牧 烽燧
元堂 在州東二十里 東應西山 西應紗羅
- 『耽羅誌』濟州牧 烽燧
元堂 在州東二十里 東應西山 西應紗羅

〈水山燧燧〉

- 『新增東國輿地勝覽』濟州牧 燧燧
水山岳燧燧 東應道道里岳 西應高內岳
- 『耽羅志』濟州牧 燧燧
水山 東應道圓 西應高內 已上州屬 望漢 各十八名
- 『耽營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水山烽 自州西距二十八里 州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烽軍三十六名 每番三名 每朔五日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水山燧燧 東應道圓 西應高內 別將六人 烽軍十二名
- 『濟州邑誌』濟州 燧燧
水山烽 東應道圓 西應高內 州屬別將各六人 烽軍各二十四名
- 『濟州大靜旌義邑誌』濟州 燧燧
水山烽 在州西三十里 東應道圓 西應高內
- 『耽羅誌草本』燧燧
水山 在州西三十里 東應道頭 西應高內
- 『耽羅誌』燧燧
水山 在州西三十里 東應道頭 西應高內

〈西山燧燧〉

- 『耽羅志』濟州牧 燧燧
西山 東應笠山 西應元堂 朝天所屬 望漢十二名
- 『耽營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西山烽 自州東距三十七里 朝天所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烽軍二十四名 所番二名 兩朔五日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西山燧燧 東應笠山 西應元堂 別將六人 烽軍二十四名
- 『濟州邑誌』濟州 燧燧

西山烽 東應笠山 西應元堂 朝天所屬別將六人 烽軍二十四名

- 『濟州大靜旌義邑誌』濟州 烽燧
西山烽 在州東三十六里 東應笠山 西應元堂
- 『耽羅誌草本』燧燧
西山 在州東三十六里 東應笠山 西應元堂
- 『耽羅誌』燧燧
西山 在州東六十九里 東應笠山 西應元堂

〈笠山燧燧〉

- 『新增東國輿地勝覽』濟州牧 燧燧
笠山岳燧燧 西應元堂岳 東應旌義只未山
- 『耽羅志』濟州牧 燧燧
笠山 東應往可 西應西山 別防所屬 望漢各十二名
- 『耽營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笠山燧 自州東距五十里 別防所屬 別將所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烽軍二十四名 兩朔五日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笠山燧燧 東應往可 西應西山 別將六人 烽軍二十四人
- 『濟州邑誌』濟州 烽燧
笠山烽 東應往可 西應西山 別防所屬 別將各六人 烽軍各二十四名
- 『濟州大靜旌義邑誌』濟州 烽燧
笠山烽 在州東五十里 東應王哥 西應西山
- 『耽羅誌草本』燧燧
笠山 在州東五十里 東應王哥 西應西山
- 『耽羅誌』燧燧
笠山 在州東五十里 東應王哥 西應西山

〈往可燧燧〉

- 『耽羅志』濟州牧 燧燧
往可 東應指尾 西應笠山 別防所屬 望漢各十二名
- 『耽營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王哥烽 自州東距六十五里 別防所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烽軍二十四名 每番二名 兩朔五日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往可燧燧 東應旌義指尾 西應笠山 別將六人 烽軍二十四名
- 『濟州邑誌』濟州 烽燧
往可烽 東應旌義指尾 西應笠山 別防所屬 別將各六人 烽軍各二十四名
- 『濟州大靜旌義邑誌』濟州 烽燧
往哥烽 在州東六十九里 東應旌義地尾 西應笠山
- 『耽羅誌草本』燧燧
王哥 在州東六十九里 東應旌義地尾 西應笠山
- 『耽羅誌』燧燧
王哥 在州東六十九里 東應旌義指尾 西應笠山

〈道內燧燧〉

- 『耽羅志』濟州牧 燧燧

道內 東應高內 西應板浦 明月所屬 望漢各十二名

- 『耽營防營摠覽』 管下各邑鎮及烽煙臺

道內烽 自州西距五十五里 明月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烽軍二十四名 每番二名 每朔五日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 濟州三邑軍制

道內燧燧 東應高內 西應晚早 別將六人 烽軍二十四名

- 『濟州邑誌』 濟州 烽燧

道內烽 東應高內 西應板浦 明月所屬 別將各六人 烽軍各二十四名

- 『濟州大靜旌義邑誌』 濟州 烽燧

道內烽 在州西五十五里 東應高內 西應晚早

- 『耽羅誌草本』 燧燧

道內 在州西五十五里 東應高內 西應晚早

- 『耽羅誌』 燧燧

道內 在州西五十五里 東應高內 西應晚早

<高內燧燧>

- 『新增東國輿地勝覽』 濟州牧 燧燧

高內岳燧燧 東應水山岳 西應板乙浦岳

- 『耽羅志』 濟州牧 燧燧

高內 東應水山 西應道內 涯月所屬 望漢十二名

- 『耽營防營摠覽』 管下各邑鎮及烽煙臺

高內烽 自州西距四十里 涯月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烽軍二十四名 每番二名 每朔五日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 濟州三邑軍制

高內燧燧 東應水山 西應道內 別將六人 烽軍二十四名

- 『濟州邑誌』 濟州 烽燧

高內烽 東應水山 西應道內 涯月所屬別將六人 烽軍二十四名

- 『濟州大靜旌義邑誌』 濟州 烽燧

高內烽 在州西四十里 東應水山 西應道內

- 『耽羅誌草本』 燧燧

高內 在州西四十里 東應水山 西應道內

- 『耽羅誌』 燧燧

高內 在州西四十里 東應水山 西應道內

<晚早烽燧>

- 『新增東國輿地勝覽』 濟州牧 烽燧

板乙浦烽燧 東應高內岳 西應大靜遮歸岳

- 『耽羅志』 濟州牧 燧燧

板乙浦 東應道內 西應堂山 明月所屬 望漢各十二名 今移晚里朝天浦教義嶼舊 有燧燧今廢

- 『耽營防營摠覽』 管下各邑鎮及烽煙臺

晚早烽 自州西距七十里 明月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煙軍十二名 每番二名 每朔五日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 濟州三邑軍制

晚早燧燧 東應道內 南應大靜堂山 別將六人 烽軍二十四名

- 『濟州大靜旌義邑誌』濟州 烽燧
晚早燧 在州西六十五里 東應道內 西應大靜堂山
- 『耽羅誌草本』燧燧
晚早 在州西三十里 東應道圓 西應西山
- 『耽羅誌』燧燧
晚早 在州西三十里 東應道圓 西應西山

(2) 大靜縣 所屬 烽燧

〈貯別烽燧〉

- 『新增東國輿地勝覽』大靜縣 烽燧
松岳烽燧 在縣南十五里 西應毛瑟浦岳 東應屈山
- 『耽羅志』大靜縣 烽燧
松岳 東應嶽山 西應辜瑟 各燧燧 有監官一人 望漢則每番立二名
- 『耽羅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貯別烽 自州西距二百二十一里 辜瑟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烽軍十二名 每番二名 每朔五日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貯別烽燧 東應嶽山 北應辜瑟 別防六人 烽軍十二名
- 『濟州邑誌』大靜 烽燧
貯別烽 東應嶽山 北應辜瑟 遮歸鎮屬別將各六人 烽軍十二名
- 『濟州大靜旌義邑誌』大靜 烽燧
貯別烽 在縣南十里 東應嶽山烽 北應辜瑟烽
- 『耽羅誌草本』大靜鎮 烽燧 烟台附
貯別 在縣南十里東應嶽山 西應辜瑟
- 『耽羅誌』大靜縣 烽燧
貯別 在縣南十里 東應嶽山 西應辜瑟

〈嶽山烽燧〉

- 『新增東國輿地勝覽』大靜縣 烽燧
堀山烽燧 在縣東二十五里 應居玉岳
- 『耽羅志』大靜縣 烽燧
嶽山 東應龜岳 西應松岳 舊在山下 今移海岸顯屬 各燧燧 有監官一人 望漢則每番立二名
- 『耽羅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伊頭烽 自州西距一百一十一里 大靜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烽軍十二名 每番二名 每朔五日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嶽山烽燧 東應龜山 西應貯別 別防六人 烽軍十二名
- 『濟州邑誌』大靜 烽燧
嶽山烽 東應龜山烽 西應貯別烽 遮歸鎮屬以上 別將各六人 烽軍各十二名
- 『濟州大靜旌義邑誌』大靜 烽燧
嶽山烽 在縣東二十里 東應龜山烽 西應貯別烽
- 『耽羅誌草本』大靜鎮 烽燧 烟台附
嶽山 在縣東二十里東應龜山 西應貯別

- 『耽羅誌』大靜縣 烽燧
蠓山 在縣東二十里 東應龜山 西應貯別

〈龜山烽燧〉

- 『新增東國輿地勝覽』大靜縣 烽燧
居玉岳烽燧 在縣東四十五里 應旌義縣三每陽
- 『耽羅志』大靜縣 烽燧
龜岳 東應旌義三梅陽 西應蠓山 東海所屬 各燧燧 有監官一人 望漢則每番立二名
- 『耽羅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龜山烽 自州西距一百六十六里 大靜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烽軍十二名 每番二名 每朔五日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龜山烽燧 東應旌義三每陽 西應蠓山 別將六人 烽軍十二名
- 『濟州邑誌』大靜 烽燧
龜山烽 東應旌義三每讓烽 西應蠓山烽 遮歸鎮屬 以上別將各六人 烽軍各十二名
- 『濟州大靜旌義邑誌』大靜 烽燧
龜山烽 在縣東四十五里 東應旌義三義(每의 오자)讓烽 西應蠓山烽
- 『耽羅誌草本』大靜鎮 烽燧
龜山烽 在縣東四十五里東應旌義三義(每의 오자)讓 西應蠓山
- 『耽羅誌』大靜縣 烽燧
龜山 在縣東四十五里 東應旌義 三義(每의 오자)陽 西應蠓山 別將六人 烽軍六名

〈慕瑟烽燧〉

- 『新增東國輿地勝覽』大靜縣 烽燧
毛瑟岳烽燧 在縣西南五里 應遮歸岳
- 『耽羅志』大靜縣 烽燧
慕瑟 東應松岳 西應遮歸 已上縣屬 各燧燧 有監官一人 望漢則每番立二名
- 『耽羅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慕瑟烽 自州西距一百七里 大靜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烽軍十二名 每番二名 每朔五日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慕瑟烽燧 南應貯別 西應堂山 別將六人 烽軍十二名
- 『濟州邑誌』大靜 烽燧
慕瑟烽 南應貯別 西應堂山 遮歸鎮屬 以上別將各六人 烽軍各十二名
- 『濟州大靜旌義邑誌』大靜 烽燧
慕瑟烽 在縣西五里 南應貯別烽 西應堂山烽

〈堂山烽燧〉

- 『新增東國輿地勝覽』大靜縣 烽燧
遮歸岳烽燧 在縣西二十六里 應慕濟州板浦岳
- 『耽羅志』大靜縣 烽燧
遮歸 東應慕瑟 西應濟州板浦遮歸所屬
- 『耽羅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堂山烽 自州西距九十七里 遮歸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烽軍十二名 每番二名 每朔五日入番

-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堂山烽燧 東應募瑟 北應濟州晚早 別防六人 烽軍十二名
- 『濟州邑誌』大靜 烽燧
堂山烽 東應募瑟 北應濟州晚注 遮歸鎮屬以上 別將各六人 烽軍各十二名
- 『濟州大靜旌義邑誌』大靜 烽燧
堂山烽 在縣西三十里 東應募瑟烽 北應濟州晚早烽
- 『耽羅志草本』大靜縣 烽燧烟?早
堂山 在縣西三十里 東應募瑟 北應濟州晚早
- 『耽羅誌』大靜縣 烽燧烟坵附
堂山 在縣西三十里 東應募瑟 北應濟州晚早

(3) 旌義縣 所屬 烽燧

〈南山烽燧〉

- 『新增東國輿地勝覽』旌義縣 烽燧
南山烽燧 東應吾音沙只岳 西應兔山
- 『耽羅志』旌義縣 烽燧
南山 東應獨子 西應兔山 縣屬 有監官一人 望漢則一番立二名
- 『耽羅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南山烽 自州東距一百四十四里 旌義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烽軍十二名 每番二名 每朔五日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南山烽燧 東應獨子 南應達山 別防六人 烽軍十二名
- 『濟州邑誌』旌義 烽燧
南山烽 東應獨子 南應達山 縣屬 別將各六人 烽軍各十二名
- 『濟州大靜旌義邑誌』旌義 烽燧
南山烽 在縣東南三里 東應獨子 南應達山
- 『耽羅志草本』旌義鎮 烽燧烟臺附
南山 在縣東南三里 東應獨子 西應達山
- 『耽羅誌』旌義縣 烽燧
南山 在縣東南三里 東應獨子 西應達山

〈獨子烽燧〉

- 『新增東國輿地勝覽』旌義縣 烽燧
吾音沙只岳烽燧 在縣東十里 應餘乙溫
- 『耽羅志』旌義縣 烽燧
獨子 東應小首山 西應南山 縣屬 各烽燧 有監官一人 望漢則一番立二名
- 『耽羅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獨子烽 自州東距一百三十一里 旌義屬 別將每番一名 每朔五日立番 烽軍十二名 每番二名 每朔五日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獨子烽燧 東應水山 西應南山 別防六人 烽軍十二名
- 『濟州邑誌』旌義 烽燧
獨子烽 東應水山 西應南山 縣屬 別將各六人 烽軍各十二名

- 『濟州大靜旌義邑誌』旌義 烽燧
獨子烽 在縣東南八里 東應首山 西應南山
- 『耽羅誌草本』旌義鎮 烽燧烟臺附
獨子 在縣東南八里東應首山西應南山
- 『耽羅誌』旌義縣 烽燧
獨子 在縣東南八里 東應水山 西應南山

〈水山烽燧〉

- 『新增東國輿地勝覽』旌義縣 烽燧
小水山烽燧 在縣東十七里 應只末山
- 『耽羅志』旌義縣 燧燧
小首山 東應城山 西應獨子 各燧燧 有監官一人 望漢則一番立二名
- 『濟州邑誌』旌義 烽燧
水山烽 東應城山 西應獨子 水山鎮所屬 別將各六人 烽軍各十二名
- 『濟州大靜旌義邑誌』旌義 烽燧
首山烽 在縣東三十里 東應城山 西應獨子
- 『耽羅誌草本』旌義 烽燧
首山烽 在縣東三十里 東應城山 西應獨子
- 『耽羅誌』旌義 烽燧
首山烽 在縣東三十里 東應城山 西應獨子

〈城山烽燧〉

- 『耽羅志』旌義縣 烽燧
城山 東應小首山 西應指尾 各燧燧 有監官一人 望漢則一番立二名
- 『耽羅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城山烽 自州東距一百一十一里 水山所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烽軍十二名 每番二名 每朔五日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城山烽燧 北應指尾 西應水山 別防六人 烽軍十二名
- 『濟州邑誌』旌義 烽燧
城山烽 北應地尾 西應水山 水山鎮所屬 別將各六人 烽軍各十二名
- 『濟州大靜旌義邑誌』旌義 烽燧
城山烽 在縣東三十五里 東應指尾 西應首山
- 『耽羅誌草本』旌義鎮 烽燧烟臺附
城山 在縣東三十五里東應指尾西應首山
- 『耽羅誌』旌義縣 烽燧
城山 在縣東三十五里 東應指尾 西應首(水)山

〈指尾烽燧〉

- 『新增東國輿地勝覽』旌義縣 烽燧
只末山烽燧 應濟州道衣灘
- 『耽羅志』旌義縣 烽燧
指尾 東應城山 西應濟州往可 首山所屬 有監官一人 望漢則一番立二名
- 『耽羅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地尾烽 自州東距八十八里 水山所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煙軍十二名 每番二名 每朔

五日立番

- 『濟州邑誌』旌義 烽燧
地尾烽 南應城山 西應濟州王介 水山鎮所屬 別將各六人 烽軍各十二名
- 『濟州大靜旌義邑誌』旌義 烽燧
指尾烽 在縣東三十五里 南應城山 西應濟州王介

〈達山烽燧〉

- 『新增東國輿地勝覽』旌義縣 烽燧
達山烽燧 應兎山
- 『耽羅志』旌義縣 烽燧
達山 東應南山 西應兎山 各燧燧 有監官一人 望漢則一番立二名
- 『耽羅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達山烽 自州東距一百六十三里 旌義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烽軍十二名 每番二名 每朔 五日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達山燧燧 北應南山 西應兎山 別防六人 烽軍十二名
- 『濟州邑誌』旌義 烽燧
達山烽 北應南山 西應兎山 縣屬 別將各六人 烽軍各十二名
- 『濟州大靜旌義邑誌』旌義 烽燧
達山烽 在縣南九里 北應南山 西應兎山
- 『耽羅誌草本』旌義鎮 烽燧烟臺附
達山 在縣南九里北應南山西應兎山
- 『耽羅誌』旌義縣 烽燧
達山 在縣南九里 北應南山 西應兎山

〈兎山烽燧〉

- 『新增東國輿地勝覽』旌義縣 烽燧
兎山烽燧 應餞月論
- 『耽羅志』旌義縣 烽燧
兎山 東應達山 西應紫浦 已上縣屬 各燧燧 有縣監一人 望漢即一番立二名
- 『耽羅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兎山烽 自州東距一百七十八里 旌義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烽軍十二名 每番二名 每朔 五立 番
-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兎山烽燧 東應達山 西應資盃 別防六人 烽軍十二名
- 『濟州邑誌』旌義 烽燧
兎山烽 東應達山 西應資盃 縣屬 別將各六人 烽軍各十二名
- 『濟州大靜旌義邑誌』旌義 烽燧
兎山烽 在縣西南十七里 東應達山 西應資盃
- 『耽羅誌草本』旌義鎮 烽燧烟臺附
兎山 在縣西南十七里東應達山西應資盃
- 『耽羅誌』旌義縣 烽燧
兎山 在縣西南十七里 東應達山 西應資杯(盃)

〈狐村烽燧〉

- 『新增東國輿地勝覽』旌義縣 烽燧
狐兒村烽燧 在古狐兒縣 應三每陽
- 『耽羅志』旌義縣 烽燧
狐村 東應紫浦 西應三梅陽 各燧燧 有監官一人 望漢則一番立二名
- 『耽羅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狐村烽 自州東距二百二十五里 西歸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烽軍十二名 每番二名 每朔五日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狐村烽燧 北應資盃 西應三每陽 別防六人 烽軍十二名
- 『濟州邑誌』旌義 烽燧
狐村烽 北應資盃 西應三每陽 西歸鎮所屬 平時火始發處 別將各六人 烽軍各十二名
- 『濟州大靜旌義邑誌』旌義 烽燧
狐村烽 在縣西五十五里 北應資杯 西應三梅陽
- 『耽羅誌草本』旌義鎮 烽燧烟臺附
狐村 在縣西五十五里北應資盃西應三每陽
- 『耽羅誌』旌義縣 烽燧
狐村 在縣西五十五里 北應資杯(盃) 西應三每陽

〈三每陽烽燧〉

- 『新增東國輿地勝覽』旌義縣 烽燧
三每陽烽燧 在縣西八十里 應大靜縣居玉岳
- 『耽羅志』旌義縣 烽燧
三梅陽 東應狐村 西應大靜龜岳 已上西歸所屬 各燧燧 有監官一人 望漢則一番立二名
- 『耽羅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三每陽烽 自州東距二百三十六里 西歸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烽軍十二名 每番二名 每朔五日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三每陽烽燧 東應狐村 西應大靜龜山 別防六人 烽軍十二名
- 『濟州邑誌』旌義 烽燧
三梅陽烽 東應狐村 西應大靜龜山 各六人烽軍各十二名
- 『濟州大靜旌義邑誌』旌義 烽燧
三梅陽烽 在縣西七十里 東應狐村 西應大靜龜山
- 『耽羅誌草本』旌義鎮 烽燧烟臺附
三每陽 在縣西七十里東應狐村西應大靜龜山
- 『耽羅誌』旌義縣 烽燧
三每陽 在縣(西탈자)七十里 東應狐村 西應大靜龜山

〈資盃烽燧〉

- 『新增東國輿地勝覽』旌義縣 烽燧
錢月論烽燧 應狐兒狐
- 『耽羅志』旌義縣 烽燧
紫浦 東應兎山 西應狐村 舊在錢縣里 今移此岳 各燧燧 有監官一人 望漢則一番立二名
- 『耽羅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紫盃烽 自州東距二百里 西歸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烽軍十二名 每番二名 每朔五日

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資盃烽燧 東應兔山 南應狐村 別防六人 烽軍十二名
- 『濟州邑誌』旌義 烽燧
資盃烽 東應兔山 南應狐村 西歸嶽所屬 平時火始發處 別將各六人 烽軍各十二名
- 『濟州大靜旌義邑誌』旌義 烽燧
資盃烽 在縣西四十里 東應兔山 南應狐村
- 『耽羅誌草本』旌義嶽 烽燧烟臺附
資盃 在縣西四十里 東應兔山 南應狐村
- 『耽羅誌』旌義縣 烽燧
資杯(盃) 在縣西七十里 東應兔山 西應狐村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4. 煙臺關聯 文獻資料

(1) 濟州牧 所屬 烽燧

〈修近煙臺〉

- 『耽管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修近煙臺 自州西距五里 州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煙軍十二名 每番二名 每朔五日 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修近煙臺 東應別刀 西應藻腐 別將六人 直軍十二名
- 『濟州邑誌』濟州 烟臺
修近烟臺 東應紗羅 西應藻腐 州屬 別將各六人 直軍各十二名
- 『濟州大靜旌義邑誌』濟州 烽燧烟臺
修近烟臺 在州西八里 東應別刀 西應藻腐
- 『耽羅誌草本』濟州鎮 烽燧烟台附
修連烟 在州西八里 東應別刀 西應藻腐
- 『耽羅誌』濟州牧 煙臺
修近 在州西八里 東應別刀 西應藻腐

〈藻腐煙臺〉

- 『耽管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藻腐煙臺 自州(西距)二十里 州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煙軍十二名 每番二名 每朔五日 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藻腐煙臺 東應修近 西應南頭 別將六人 直軍十二名
- 『濟州邑誌』濟州 烟臺
藻腐烟臺 東應修近 西應南頭 州屬 別將各六人 直軍各十二名
- 『濟州大靜旌義邑誌』濟州 烽燧烟臺
藻腐烟臺 在州西二十二里 東應修近 西應南頭
- 『耽羅誌草本』濟州鎮 烽燧烟台附
藻腐烟 在州西二十二里 東應修近 西應南頭
- 『耽羅誌』濟州牧 煙臺
藻腐 在州西二十二里 東應修近 西應南頭

〈別刀煙臺〉

- 『新增東國輿地勝覽』濟州牧 烽燧
別刀烽燧 西應紗羅岳 東應元堂岳
- 『耽管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別刀煙臺 自州東距十一里 禾北所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煙軍十二名 每番二名 每朔五日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別刀煙臺 東應朝天 西應修近 別將六人 直軍十二名
- 『濟州邑誌』濟州 烟臺
別刀烟臺 東應朝天 西應修近 禾北所屬 別將六人 直軍十八名
- 『濟州大靜旌義邑誌』濟州 烽燧烟臺
別刀烟臺 在州東十里 東應朝天 西應修近

- 『耽羅誌草本』濟州鎮 烽燧烟台附
別刀烟 在州東十里 東應朝天 西應修近 別將六人烟軍六名以下同
- 『耽羅誌』濟州牧 煙臺
別刀 在州東十里 東應朝天 西應修近 別將六人 烽軍六名

〈頭毛煙臺〉

- 『耽營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頭毛煙臺 自州西距八十里 明月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煙軍十二名 每番二名 每朔五日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頭毛煙臺 東應大浦 南應大靜牛頭 別將六人 直軍十二名
- 『濟州邑誌』濟州 烟臺
頭毛煙臺 東應大浦 西應大靜堂山 明月所屬 別將各六人 直軍各十二名
- 『濟州大靜旌義邑誌』濟州 烽燧烟臺
頭毛煙臺 在州西九十里 東應大浦 西應大靜縣牛頭
- 『耽羅誌草本』燧燧附
頭毛煙 在州西九十里 東應大浦 西應大靜牛頭
- 『耽羅誌』燧燧
頭毛煙臺 在州西九十里 東應大浦 西應大靜牛頭

〈大浦煙臺〉

- 『耽營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大浦煙臺 自州西距七十八里 明月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煙軍十二名 每番二名 每朔五日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大浦煙臺 東應孟令 西應頭毛 別將六人 直軍十二名
- 『濟州邑誌』濟州 烟臺
大浦煙臺 東應孟令 西應頭毛 明月所屬 別將各六人 直軍各十二名
- 『濟州大靜旌義邑誌』濟州 烽燧烟臺
大浦煙臺 在州西八十三里 東應孟令 西應頭毛
- 『耽羅誌草本』燧燧附
大浦煙臺 在州西八十三里 東應頭毛
- 『耽羅誌』燧燧
大浦煙臺 在州西八十三里 東應頭毛

〈孟令煙臺〉

- 『耽營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孟令煙臺 自州西距七十里 明月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煙軍十二名 每番二名 每朔五日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孟令煙臺 東應馬頭 西應大浦 別將六人 直軍十二名
- 『濟州邑誌』濟州 烟臺
孟令煙臺 東應馬頭 西應大浦 明月所屬 別將各六人 直軍各十二名
- 『濟州大靜旌義邑誌』濟州 烽燧烟臺
孟令煙臺 在州西七十七里 東應馬頭 西應大浦

- 『耽羅誌草本』 燧燧附
孟令煙臺 在州西七十七里 東應南頭 西應牛池
- 『耽羅誌』 燧燧
孟令煙臺 在州西七十七里 東應南頭 西應牛池

〈馬頭煙臺〉

- 『耽營防營摠覽』 管下各邑鎮及烽煙臺
馬頭煙臺 自州西距六十三里 明月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煙軍十二名 每番二名 每朔五日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 濟州三邑軍制
馬頭煙臺 東應竹島 西應孟令 別將六人 直軍十二名
- 『濟州邑誌』 濟州 烟臺
馬頭烟臺 東應竹島 西應孟令 明月所屬 別將各六人 直軍各十二名
- 『濟州大靜旌義邑誌』 濟州 烽燧烟臺
馬頭烟臺 在州西六十五里 東應竹島 西應孟令

〈竹島煙臺〉

- 『耽營防營摠覽』 管下各邑鎮及烽煙臺
竹島煙臺 自州西距六十里 明月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煙軍十二名 每番二名 每朔五日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 濟州三邑軍制
竹島煙臺 東應牛池 西應馬頭 別將六人 直軍十二名
- 『濟州邑誌』 濟州 烟臺
竹島烟臺 東應牛池 西應馬頭 明月所屬 別將各六人 直軍各十二名
- 『濟州大靜旌義邑誌』 濟州 烽燧烟臺
竹島烟臺 在州西六十二里 東應牛池 西應馬頭
- 『耽羅誌草本』 燧燧附
竹島煙 在州西六十二里 東應牛池 西應孟令
- 『耽羅誌』 燧燧
竹島煙臺 在州西六十二里 東應牛池 西應孟令

〈牛池煙臺〉

- 『耽營防營摠覽』 管下各邑鎮及烽煙臺
牛池煙臺 自州西距五十八里 明月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煙軍十二名 每番二名 每朔五日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 濟州三邑軍制
牛池煙臺 東應歸德 西應竹島 別將六人 直軍十二名
- 『濟州邑誌』 濟州 烟臺
牛池烟臺 東應歸德 西應竹島 明月所屬 別將各六人 直軍各十二名
- 『濟州大靜旌義邑誌』 濟州 烽燧烟臺
牛池烟臺 在州西五十八里 東應歸德 西應竹島
- 『耽羅誌草本』 燧燧附
牛池 在州西五十八里 東應涯月 西應竹島
- 『耽羅誌』 燧燧
牛池煙臺 在州西五十八里 東應涯月 西應竹島

〈歸德煙臺〉

- 『耽營防營摠覽』 管下各邑鎮及烽煙臺
歸德煙臺 自州西距五十五里 明月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煙軍十二名 每番二名 每 朔五日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 濟州三邑軍制
歸德煙臺 東應涯月 西應牛池 別將六人 直軍十二名
- 『濟州邑誌』 濟州 烟臺
歸德烟臺 東應涯月 西應牛池 明月所屬 別將各六人 直軍各十二名
- 『濟州大靜旌義邑誌』 濟州 烽燧烟臺
歸德烟臺 在州西五十五里 東應涯月 西應牛池

〈涯月煙臺〉

- 『耽營防營摠覽』 管下各邑鎮及烽煙臺
涯月煙臺 自州西距四十七里 涯月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煙軍十二名 每番二名 每 朔五日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 濟州三邑軍制
涯月煙臺 東應南頭 西應歸德 別將六人 直軍十二名
- 『濟州邑誌』 濟州 烟臺
涯月烟臺 東應南頭 西應歸德 涯月所屬 別將各六人 直軍各十二名
- 『濟州大靜旌義邑誌』 濟州 烽燧烟臺
涯月烟臺 在州西四十五里 東應南頭 西應歸德
- 『耽羅誌草本』 燧燧附
涯月煙 在州西四十五里 東應南頭 西應牛池
- 『耽羅誌』 燧燧
涯月煙臺 在州西四十五里 東應南頭 西應牛池

〈南頭煙臺〉

- 『耽營防營摠覽』 管下各邑鎮及烽煙臺
南頭煙臺 自州西距三十五里 涯月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煙軍十二名 每番二名 每 朔五日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 濟州三邑軍制
南頭煙臺 東應藻腐 西應涯月 別將六人 直軍十二名
- 『濟州邑誌』 濟州 烟臺
南頭烟臺 東應藻腐 西應涯月 涯月所屬 別將各六人 直軍各十二名
- 『濟州大靜旌義邑誌』 濟州 烽燧烟臺
南頭烟臺 在州西三十七里 東應藻腐 西應涯月
- 『耽羅誌草本』 燧燧附
南頭煙 在州西三十七里 東應藻腐 西應涯月
- 『耽羅誌』 燧燧
南頭煙臺 在州西三十七里 東應藻腐 西應涯月

〈朝天煙臺〉

- 『耽營防營摠覽』 管下各邑鎮及烽煙臺
朝天煙臺 自州東距三十二里 朝天所屬 別將所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煙軍十二名 所番二名 每 朔五日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朝天煙臺 東應倭浦 西應別刀 別將六人 直軍十二名
- 『濟州邑誌』濟州 烟臺
朝天烟臺 東應倭浦 西應別刀 朝天所屬 別將各六人 直軍各十二名
- 『濟州大靜旌義邑誌』濟州 烽燧烟臺
朝天烟臺 在州東三十里 東應倭浦 西應別刀
- 『耽羅誌草本』燧燧附
朝天煙 在州東三十里 東應倭浦 西應別刀
- 『耽羅誌』燧燧
朝天煙臺 在州東三十里 東應倭浦 西應別刀

〈倭浦煙臺〉

- 『耽營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倭浦煙臺 自州東距三十三里 朝天所屬 別將所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煙軍十二名 所番二名 每朔五日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倭浦煙臺 東應咸德 西應朝天 別將六人 直軍十二名
- 『濟州邑誌』濟州 烟臺
倭浦烟臺 東應咸德 西應朝天 朝天所屬 別將各六人 直軍各十二名
- 『濟州大靜旌義邑誌』濟州 烽燧烟臺
倭浦烟臺 在州東三十三里 東應咸德 西應朝天
- 『耽羅誌草本』燧燧附
倭浦煙臺 在州東三十三里 東應無住 西應朝天
- 『耽羅誌』燧燧
倭浦煙臺 在州東三十三里 東應無住 西應朝天

〈咸德煙臺〉

- 『耽營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咸德煙臺 自州東距三十五里 朝天所屬 別將所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煙軍十二名 所番二名 每朔五日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咸德煙臺 東應無住 西應倭浦 別將六人 直軍十二名
- 『濟州邑誌』濟州 烟臺
咸德烟臺 東應無注 西應倭浦 朝天所屬 別將各六人 直軍各十二名
- 『濟州大靜旌義邑誌』濟州 烽燧烟臺
咸德烟臺 在州東三十五里 東應無注 西應倭浦

〈無注煙臺〉

- 『耽營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無注浦煙臺 自州東距五十五里 別防所屬 別將所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煙軍十二名 所番二名 每朔五日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無住煙臺 東應佐哥 西應咸德 別將六人 直軍十二名
- 『濟州邑誌』濟州 烟臺
無注烟臺 東應佐可 西應咸德 別防所屬 別將各六人 直軍十二名

- 『濟州大靜旌義邑誌』濟州 烽燧烟臺
無注烟臺 在州東五十七里 東應左哥 西應咸德
- 『耽羅誌草本』燧燧附
無注煙臺 在州東五十七里 東應笠頭 西應倭浦
- 『耽羅誌』燧燧
無注煙臺 在州東五十七里 東應笠頭 西應倭浦

〈佐可煙臺〉

- 『耽營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佐哥煙臺 自州東距六十三里 別防所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煙軍十二名 每番二名 每朔五日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佐哥煙臺 東應笠頭 西應無注 別將六人 直軍十二名
- 『濟州邑誌』濟州 烟臺
佐哥烟臺 東應笠頭 西應無注 別防所屬 別將各六人 直軍十二名
- 『濟州大靜旌義邑誌』濟州 烽燧烟臺
左哥烟臺 在州東六十五里 東應笠頭 西應無注

〈笠頭煙臺〉

- 『耽營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笠頭煙臺 自州東距七十六里 別防所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煙軍十二名 每番二名 每朔五日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笠頭煙臺 東應旌義終達 西應佐可 別將六人 直軍十二名
- 『濟州邑誌』濟州 烟臺
笠頭烟臺 東應旌義指尾 西應佐可 別防所屬 別將各六人 直軍十二名
- 『濟州大靜旌義邑誌』濟州 烽燧烟臺
笠頭烟臺 在州東八十一里 東應旌義終達 西應左哥
- 『耽羅誌草本』燧燧附
笠頭煙 在州東八十一里 東應旌義終達 西應無注
- 『耽羅誌』燧燧
笠頭煙臺 在州東八十一里 東應旌義終達 西應無注

(2) 大靜縣 所屬 烽燧

〈牛頭煙臺〉

- 『耽營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牛頭煙臺 自州西距九十二里 遮歸所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煙軍十二名 每番二名 每朔五日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牛頭煙臺 東應西林 北應濟州頭毛 別將六人 直軍十二名
- 『濟州邑誌』大靜 烟臺
牛頭烟臺 東應西林 西應濟州頭毛 遮歸鎮屬 別將各六人 煙軍十二名
- 『濟州大靜旌義邑誌』大靜 烟臺
牛頭烟臺 在縣西二十五里 東應西林 西應濟州頭毛

- 『耽羅誌草本』大靜縣 燧燧烟台附
牛頭 在縣西二十五里 東應西林 西應濟州頭毛
- 『耽羅誌』大靜縣 燧燧
牛頭煙臺 在縣西二十五里 東應西林 北應濟州頭毛

〈別老川煙臺〉

- 『耽營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別老川煙臺 自州西距一百五十三里 大靜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煙軍十二名 每番二名 每朔五日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別老川煙臺 東應大浦 西應唐浦 別將六人 直軍十二名
- 『濟州邑誌』大靜 煙臺
別老川煙臺 東應大浦 西應唐浦 奉瑟鎮屬 別將各六人 煙軍十二名
- 『濟州大靜旌義邑誌』大靜 煙臺
別老川煙臺 在縣東三十里 東應大浦 西應唐浦

〈大浦煙臺〉

- 『耽營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大浦煙臺 自州西距一百五十八里 大靜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煙軍十二名 每番二名 每朔五日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大浦煙臺 東應々希川 西應別老川 別將六人 直軍十二名
- 『濟州邑誌』大靜 煙臺
大浦煙臺 東應々希川 西應別老川 奉瑟鎮屬 別將各六人 煙軍各十二名
- 『濟州大靜旌義邑誌』大靜 煙臺
大浦 在縣東三十五里 東應々希 西應別老
- 『耽羅誌草本』大靜鎮 烽燧 烟台附
大浦 在縣東三十五里 東應邊水 西應唐浦

〈々希川煙臺〉

- 『耽營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々希川煙臺 自州西距一百五十八里 大靜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煙軍十二名 每番二名 每朔五日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々希川煙臺 東應邊水 西應大浦 別將六人 直軍十二名
- 『濟州邑誌』大靜 煙臺
々希川煙臺 東應邊水 西應大浦 奉瑟鎮屬 別將各六人 煙軍各十二名
- 『濟州大靜旌義邑誌』大靜 煙臺
々希煙臺 在縣東四十里 東應邊水 西應大浦

〈邊水煙臺〉

- 『耽營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邊水煙臺 自州西距一百七十六里 大靜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煙軍十二名 每番二名 每朔五日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邊水煙臺 東應旌義淵洞 西應_尔希川 別將六人 直軍十二名

- 『濟州邑誌』大靜 烟臺

邊水烟臺 東應旌義所洞烟 西應_尔希烟 奉瑟鎮屬 別將各六人 煙軍各十二名

- 『濟州大靜旌義邑誌』大靜 烟臺

邊水烟臺 在縣東五十里 東應旌義淵洞 西應 希

- 『耽羅誌草本』大靜鎮 烽燧 烟台附

邊水烟臺 在縣東五十里東應旌義淵洞 西應大浦

- 『耽羅誌』大靜縣 煙臺

邊水 在縣東五十里 東應唐浦 西應無首

〈茂首煙臺〉

- 『耽營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無水(茂首)烟臺 自州西距一百十二里 奉瑟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煙軍十二名 每番二名 每朔五日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茂首烟臺 東應山房 西北西林 別將六人 直軍十二名

- 『濟州邑誌』大靜 烟臺

無首烟臺 東應山房 西應西林 奉瑟鎮屬 別將各六人 煙軍各十二名

- 『濟州大靜旌義邑誌』大靜 烟臺

無首烟臺 在縣東五里 東應山房 西應西林

- 『耽羅誌草本』大靜鎮 烽燧 烟台附

無首 在縣南五里東應山房 西應西林

- 『耽羅誌』大靜縣 烟臺

無首 在縣南五里 東應山房 西應西林



〈西林煙臺〉

- 『耽營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西林煙臺 自州西距一百三里 大靜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煙軍十二名 每番二名 每朔五日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西林煙臺 東應茂首 西應牛頭 別將六人 直軍十二名

- 『濟州邑誌』大靜 烟臺

西林烟臺 東應無首 西應牛頭 遮歸鎮屬 別將各六人 烟軍各十二名

- 『濟州大靜旌義邑誌』大靜 烟臺

西林 在縣西七里 東應無首 西應牛頭

- 『耽羅誌草本』大靜鎮 烽燧 烟台附

西林 在縣西七里東應無首 西應牛頭

- 『耽羅誌』大靜縣 煙臺

西林 在縣(?)七里 東應無首 西應牛頭

〈山房煙臺〉

- 『耽營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山房煙臺 自州西距一百三十六里 大靜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煙軍十二名 每番二名 每朔五日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山房煙臺 東應唐浦 西應茂首 別將六人 直軍十二名

○『濟州邑誌』大靜 烟臺

山房烟臺 東應唐浦 西應無首 幕瑟鎮屬 別將各六人 烟軍各十二名

○『濟州大靜旌義邑誌』大靜 烟臺

山房烟臺 在縣東十里 東應唐浦 西應無首

○『耽羅誌草本』大靜鎮 烽燧 烟台附

山房 在縣東十里 東應唐浦 西應無首

○『耽羅誌』大靜縣 煙臺

山房 在縣東十里 東應唐浦 西應無首

〈唐浦煙臺〉

○『耽營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唐浦煙臺 自州西距一百四十六里 大靜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煙軍十二名 每番二名 每朔五日立番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唐浦煙臺 東應別老川 西應山房 別將六人 直軍十二名

○『濟州邑誌』大靜 烟臺

唐浦烟臺 東應別老川 西應山房 幕瑟鎮屬 別將各六人 烟軍各十二名

○『濟州大靜旌義邑誌』大靜 烟臺

唐浦烟臺 在縣東二十里 東應別老 西應山房

○『耽羅誌草本』大靜鎮 烽燧 烟台附

唐浦 在縣東二十里 東應大浦 西應山房

○『耽羅誌』大靜縣 煙臺

唐浦 在縣東二十里 東應大浦 西應山房

(3) 旌義縣 所屬 烽燧

〈所々路煙臺〉

○『耽營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所々路煙臺 自州東距六十八里 旌義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煙軍十二名 每番二名 每朔五日立番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所々路煙臺 東應川尾 西應伐浦 別將六人 直軍十二名

○『濟州邑誌』旌義 烟臺

所々路煙臺 東應川尾 西應伐浦 所屬 別將各六人 直軍各十二名

〈川尾煙臺〉

○『耽營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川尾煙臺 自州東距一百五十八里 旌義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煙軍十二名 每番二名 每朔五日立番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川尾煙臺 東應末等浦 西應所々路 別將六人 直軍十二名

○『濟州邑誌』旌義 烟臺

川尾烟臺 東應末等 西應所々路 縣屬 別將六人 直軍十二名

○『耽羅誌草本』旌義鎮 烽燧烟臺附

川尾 在縣南十五里東應末等西應伐浦

○『耽羅誌』旌義縣 燧燧

川尾 在縣南十五里 東應末等 西應伐浦

〈末等浦煙臺〉

○『耽營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末等煙臺 自州東距一百三十九里 旌義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煙軍十二名 每番二名 每朔五日立番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末等浦煙臺 東應挾子 西應川尾 別將六人 直軍十二名

○『濟州邑誌』旌義 烟臺

末等浦烟臺 東應挾子 西應川尾 縣屬 別將各六人 直軍十二名

○『耽羅誌草本』旌義鎮 烽燧烟臺附

末等烟臺 在縣東南二十三里東應挾子西應川尾

○『耽羅誌』旌義縣 燧燧

末等 在縣東南二十里 東應挾子 西應川尾

〈挾子煙臺〉

○『耽營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挾子煙臺 自州東距一百二十三里 水山所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煙軍十二名 每番二名 每朔五日立番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挾子煙臺 北應吾召浦 西北末等浦 別將六人 直軍十二名

○『濟州邑誌』旌義 烟臺

挾子烟臺 北應吾召 西北末等 水山鎮所屬 別將各六人 直軍十二名

○『耽羅誌草本』旌義鎮 烽燧烟臺附

挾子 在縣東三十里北應吾照西應末等

○『耽羅誌』旌義縣 煙臺

挾子 在縣東三十里 北應吾照 西應末等

〈吾召浦煙臺〉

○『耽營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吾照煙臺 自州東距九十九里 水山所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煙軍十二名 每番二名 每朔五日立番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吾召浦煙臺 南應挾子 北應終達 別將六人 直軍十二名

○『濟州邑誌』旌義 烟臺

吾召浦烟臺 南應挾子 北應終達 水山鎮所屬 別將各六人 直軍各十二名

○『耽羅誌草本』旌義鎮 烽燧烟臺附

吾照 在縣東三十五里南應挾子北應金祿浦

○『耽羅誌』旌義縣 煙臺

吾照 在縣東三十五里 南應挾子 北應金祿浦

〈金路浦煙臺〉

○『耽營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金路浦煙臺 自州東距一百九十五里 西歸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煙軍十二名 每番二名 每朔五日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金路浦煙臺 東應伐浦 西應又尾 別將六人 直軍十二名

○ 『濟州邑誌』旌義 烟臺

金露浦烟臺 東應伐浦 西應又尾 西歸鎮所屬 別將各六人 直軍各十二名

○ 『耽羅誌草本』旌義鎮 烽燧烟臺附

金祿浦 在縣西南四十里東應伐浦西應爲美

○ 『耽羅誌』旌義縣 煙臺

金祿浦 在縣西南四十里 東應伐浦 西北爲美

〈又尾煙臺〉

○ 『耽營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又尾煙臺 自州東距二百五里 西歸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煙軍十二名 每番二名 每朔五日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又尾煙臺 東應金路浦 西應甫木 別將六人 直軍十二名

○ 『濟州邑誌』旌義 烟臺

又尾烟臺 東應金露 西應甫木 西歸鎮所屬 別將各六人 直軍各十二名

○ 『耽羅誌草本』旌義鎮 烽燧烟臺附

爲美 在縣西四十里東應金祿浦西應甫木

○ 『耽羅誌』旌義縣 煙臺

爲美 在縣西四十里 東應金祿浦 西應甫木

〈淵洞煙臺〉

○ 『耽營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淵洞煙臺 自州東距二百四十一里 西歸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煙軍十二名 每番二名 每朔五日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淵洞煙臺 東應甫木 西應大靜邊水 別將六人 直軍十二名

○ 『濟州邑誌』旌義 烟臺

淵洞煙臺 東應甫木 西應大靜邊水 西歸鎮所屬 別將各六人 直軍各十二名

○ 『耽羅誌草本』旌義鎮 烽燧烟臺附

淵洞 在縣西八十里東應甫木西應大靜邊水

○ 『耽羅誌』旌義縣 煙臺

淵洞 在縣西八十里 東應甫木 西應大靜邊水

〈甫木煙臺〉

○ 『耽營防營摠覽』管下各邑鎮及烽煙臺

甫木煙臺 自州東距二百二十五里 西歸屬 別將每番一人 每朔五日立番 煙軍十二名 每番二名 每朔五日立番

○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甫木煙臺 東應又尾 西應淵洞 別將六人 直軍十二名

○ 『濟州邑誌』旌義 烟臺

甫木烟臺 東應又尾 西應淵洞 西歸鎮所屬 別將各六人 直軍各十二名

- 『耽羅誌草本』旌義鎮 烽燧烟臺附
甫木 在縣西五十五里東應爲美西應淵洞
- 『耽羅誌』旌義縣 烟臺
甫木 在縣西五十五里 東應爲美 西應淵洞

〈終達煙臺〉

- 『濟州兵制烽臺摠錄』濟州三邑軍制
終達煙臺 南應吾召浦 西應濟州笠頭 別將六人 直軍十二名
- 『濟州邑誌』旌義 烟臺
終達煙臺 南應吾召 西應濟州笠山 水山鎮所屬 別將各六人 直軍各十二名



감사의 글

본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끊임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고창석 지도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논문심사와 조언을 해주신 권인혁 교수님, 진영일 교수님, 김동전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학위 과정에서 도와주신 제주대학교 사학과 선배님과 후배들 그리고 국어교육학과 강정식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공직 생활과 연구를 병행하는 처지를 헤아려 대학원 과정 내내 성원을 보내주신 제주도청 문화예술과 오창무 과장님, 김영옥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학위 과정 동안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신 양가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가정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고 끝까지 뒷바라지 해준 아내 오순실과 아들 경보, 딸 화현이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2000년 8월

김 명 철